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2017~2021)

2016년 11월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목 차

I.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1
1.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2
3. 운영 기본계획 범위	2
4. 운영 기본계획 연구기간	3
5.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3
6. 운영 기본계획 내용	4
7.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기대 효과	4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5
1. 제주학연구센터 현황	5
2.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조례 분석	11
3. 제주학연구센터 조직운영 실태 분석	13
4. 제주학연구센터 재정운영 실태 분석	16
5. 제주학연구센터 시설분야 실태 분석	19
6. 제주학연구센터 고유목적사업 추진 실태 분석	21
7. 각 사업별 내부 평가	24
III. 최근 국내·외 지역학 사례 분석	60
1. 국내 지역학 사례 분석	60
2. 국외 지역학 사례 분석	67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88
1. 제주학 연구 현황과 변화	88
2. 제주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요인 변화	96
3. SWOT 분석 및 전략 방향 도출	98
4.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101

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구상	116
1.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116
2. 운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19
VI. 사업별 추진계획 및 5개년 로드맵	122
1.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122
2. 제주학대회	126
3. 제주마을기록화 사업	127
4. 제주역사 편찬사업	128
5. 교육문화 교류사업	129
6. 공기관 대행사업 및 국책사업	131
7.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132
8. 제주학 출판 지원사업	134
9. 제주어 연구사업	135
10. 자연과학분야 제주학 사업	140
VII. 실행계획	143
1. 행정계획	143
2. 재정계획	151
참고문헌	157
부 록	159
■ 분야별 전문가 회의록	159
■ 전문가 워크숍 회의록	168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75

<표 목차>

<표 II- 1>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14
<표 II- 2>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인력 변화	15
<표 II- 3>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	16
<표 II- 4> 제주학연구센터 재원	18
<표 II- 5> 분야별 전문가 수와 비율	22
<표 II- 6> 제주학연구센터 설립목적 부합 운영과 역할	23
<표 II- 7> 고유목적 사업별 평가	23
<표 II- 8> 2012~2015년도 제주학 자체 정책연구 및 공모지원 연구 목록 ..	27
<표 II- 9> 2016년도 제주학 자체 정책연구 및 공모지원 연구 목록 ...	28
<표 II-10> 연차별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예산 및 인원	31
<표 II-11> 제주학 총서 발간 상황(2012~2015)	33
<표 II-12> 제주학 총서 발간 상황(2016)	33
<표 II-13> 총서 발간 및 출판비 지원 사업 예산	33
<표 II-14> 강의별 참석 인원	38
<표 III- 1> 지역학의 대상 종류	69
<표 III- 2> 일본의 지역학 운영 현황	70
<표 III- 3> 일본의 지역학 사례	72
<표 III- 4> 중국의 대표적 지역학	83
<표 IV- 1> 인문·사회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90
<표 IV- 2> 자연과학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91
<표 IV- 3> 복합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92
<표 IV- 4>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92
<표 IV- 5> 제주대학교 내 연구소 및 연구센터	93
<표 IV- 6> 국회도서관 제주 관련 자료	95
<표 IV- 7>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	103
<표 IV- 8>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방향	103
<표 IV- 9> 제주학에 대한 자료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104
<표 IV-10> 제주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	104
<표 IV-11>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	105
<표 IV-12>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105
<표 IV-13> 세계적 수준의 장기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	106

<표 IV-14>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여건 조성	106
<표 IV-15> 제주학 연구결과물의 향유 여건 조성	107
<표 IV-16> 제주학 연구자 및 연구단체 지원 기능	107
<표 IV-17>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기능 및 주요업무 ...	108
<표 IV-18>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108
<표 IV-19>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 수행	109
<표 IV-20> 제주학 관련 토대 연구 수행	109
<표 IV-21>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110
<표 IV-22>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110
<표 IV-23> 제주문화 원형 발굴 조사, 보존 활용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111
<표 IV-24>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111
<표 IV-25>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112
<표 IV-26> 인문학 연구사업의 중요도	113
<표 IV-27> 사회과학분야 연구사업 중요도	114
<표 IV-28> 자연과학분야 연구사업 중요도	115
<표 IV-29>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재원조달 방안	115
<표 VII- 1>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	144
<표 VII- 2> 조직의 창조적 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	145
<표 VII- 3> 매트릭스 조직 형태의 재설계	146
<표 VII- 4> 독립 후 제주학연구원 조직도	147
<표 VII- 5> 조직인력 규모 및 편성	148
<표 VII- 6> 독립 후 공간 구조	150
<표 VII- 7> 독립 후 시설 공간 예상 이용 층위	150
<표 VII- 8> 결집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151
<표 VII- 9> 재정 확보 추진일정	152
<표 VII-10> 주요 목적사업	153
<표 VII-11> 연도별 사업 추진 일정	155
<표 VII-12> 연도별 세부사업 소요 예산(추정)	156

<사진 · 그림 목차>

<사진 II-1> 연구실 전경	20
<그림 III-1> 일본의 지역학 지도	72

I.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개요

1.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제37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의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 : 제주어 회생사업 지원 및 제주학 집중 육성.
- 민선 6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방향) 핵심정책 : ‘제주학 및 제주어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세계화’ 실천 계획.
- 201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조례 제 1020호)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실천계획(2010.10)에 따라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의 완료.
- 제주학연구센터 준비기부터 단계별 발전과정에 따른 안정기 계획 수립 필요성.

구 분	기 간	내 용
준비기	2010	—
출범기	2011~2013	•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범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사업비·운영비로 사업 추진 • 기초 토대 연구,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연구인력 확보, 중장기 인력 확충과 편제 계획 수립
발전기	2014~2016	• 체계적인 제주학 연구사업 추진 • 지역학 연구기관, 세계 섬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연구 홍보·교육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 전문연구인력 확충, 분야별 전문가 확보
안정기	2017~2020	•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 연구기관 전환 • 제주학 관련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 완성된 조직 및 역할에 따른 고유사업 추진 및 지원 • 제주학 연구의 정체성 확립

- 제주학을 둘러싼 외부 환경요인들 및 내부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수용 전략의 필요성 : SWOT 분석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동시에 판단하고 안정기 전략 수립 요구.
- 제주학 연구 확산을 위한 거점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와 시민향유 및 활용에 대한 요구 확산 수용.

2.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의 완료와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7~2021) 수립.
- 제주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변화와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하는 SWOT 분석을 통해 제주학 안정기 전략 수립.
-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으로서의 거점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한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직 및 역할에 따른 고유 사업 추진 및 지원.
- 5R 전략을 통한 독립 연구기관으로의 전환.
- 제주학 연구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학 연구의 세계화.
- 제주학 수집 자료 및 연구결과물의 시민향유 및 문화적 활용을 보강한 계획 수립.

3. 운영 기본계획 범위

3-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내·국외 관계 속의 제주특별자치도

3-2 시간적 범위

○ 기준 연도 : 2016년

○ 시행 연도 : 2017년 ~ 2021년(5개년)

4. 운영 기본계획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6년 5월 23일 ~ 2016년 11월 30일

5.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1단계	...	2차 운영 기본계획 과제의 도출 • 2차 운영 기본계획 목표 및 방향성 설정 • 1차 운영 기본계획 수행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제주학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분석
2단계	...	2차 운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구상 • 전문가 의견 조사 •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 분야별 자문위원 의견 수렴
3단계	...	2차 운영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및 추진 계획 • 연구 자체사업 발굴/연구 지원사업 발굴 • 연구결과물의 주민 향유 및 활용 사업 발굴 • 자문위원 및 행정 의견 수렴(조정)
4단계	...	2차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 최종 시안 수립 및 확정

6. 운영 기본계획 내용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구상.
- 사업별 추진계획 및 5개년 로드맵 등.

7.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기대 효과

-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제주학 연구인력 양성 지원의 안정적 기반 제공.
- 제주학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연구역량 결집과 구심체 역할의 확대.
- 제주학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시민 향유 활성화에 기여.
- 제주학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 제주문화의 지역화 및 세계화를 위한 학문적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과 지역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
-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 및 제주학 연구 역량 제고.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1. 제주학연구센터 현황

1-1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배경

-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음의 외부적 환경 요인과 내부적 환경 요인 등에 의하여 설립됨.
- 외부적 요인
 -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공정, 이어도공정, 독도 문제 등과 같은 영토분쟁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민족의식을 더욱 강화시켜 새로운 민족 간의 문화갈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의 생활공동체적 문화 전통 또한 ‘세계화’의 총체적인 흐름에 직면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며 지역의 특수성·보편성, 문화·경관 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은 21세기 제주도가 남방 해양문화와 북방 대륙문화의 교차지점이며, 동아시아 해역의 거점으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건설의 계기를 마련하는 학문적·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내부적 요인
 -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특별자치도로 재편되면서 제주학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제주도내 제주학 연구 관련 공공 성격의 연구기관이 부재함.
 - 학제 간의 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제주문화 및 미래사회 발전의 엔진 기능을 수행할 연구기관이 필요함.
 - 제주도내 산재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체계가 부족함.
 - 제주학의 진흥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이 취약함.

○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설치, 운영 배경

- 독립적인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의 설립은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상 독립적인 연구기관 출범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함.
- 제주발전연구원에는 기존 제주학 관련 전문연구인력 및 지원행정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직·간접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온 성과가 있음.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따라서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 연구기관으로 전환될 때까지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학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지원의 기능을 수행함.

1-2 제주학연구센터 연혁

연도		연 혁
2010	10. 04.	제주발전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 위탁 계약 체결
2011	08. 12.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제주학연구센터 설치
	09. 20.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2012~2016)
	10. 11.	제주학연구센터 현판식
	11. 02.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개최
	11. 18.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제주학회 공동)
2012	08. 31.	제1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12. 26.	제주어 표기법 제정 관련 세미나 개최
2013	03. 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10. 04.	제2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10. 08.	제주어 보전 방향 관련 세미나 개최
2014	03. 14.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오픈
	07. 04.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개최(한국지역학 네트워크 공동)
	08. 12.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09. 18.	‘재일제주인의 생활사와 문화’ 세미나 개최(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공동)
	11. 07.	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11. 27.	‘방언 보전 활동의 전국 동향과 전망’ 토론회 개최
2015	10. 02.	제4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6	03. 09.	2대 센터장 취임
	04. 25.	제1회 제주학 정책포럼 개최(세계 섬 문화 네트워크)
	07.~08.	제주학 아카데미(구술사 강좌) 운영
	10. 07.	제1회 제주학대회 개최
	10. 07.	제10차 한국지역학포럼 개최(한국지역학 네트워크 공동)

1-3 제주학연구센터 기능

주요업무	내 용
연구·교육사업 거점연구기관	- 제주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지원, 협동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연구 수행 - 제주학 관련 시민강좌·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중교양서적 발간 등
아카이브 구축	- 제주학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초자료, 연구성과 및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 제주학 관련 역사문헌자료, 민속자료, 구술자료, 영상·사진류, 해외자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수집·정립 작업 수행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제주도내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민간연구단체 등과 유기적인 제주학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진흥기금 조성
연구자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 역량 있는 제주학 관련 전문 연구자 지원, 레지던스 사업 시행 - 제주학 연구 후속세대인 신진 연구인력 지원 양성
제주어 중점 연구 사업	- 제주어 보전 정책 연구 - 제주어 관련 기초자료 축적,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제주어 교육 및 대중화 자료 개발·보급, 제주어 전승자 양성 지원

1-4 제주학연구센터 조직 현황

항 목	내 용
소 속	제주발전연구원 부설 센터
인 력	- 센터장 1인 - 연구원 3인 : 전문연구위원 2인, 전문연구원 1인 - 행정직 1인
예 산	2015년 도비 예산 5억원 (4억원 출연금, 1억원 사업비) - 연구사업비 3억3,500만원, 인건비 1억5,0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2016년 도비 예산 8억원으로 증액(전액 출연금)

1-5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업무 및 성과

주요업무	내 용
연구 및 지원사업	-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해녀문화의 보전 방안 등을 통해 전통문화자원 발굴 - 해양문화, 목축문화, 마을어장, 제주옛길, 전설지, 목민관 비석 등 관련 연구 공모 지원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내·외 정보화 서비스 시행 - 고문헌, 고지도, 구술자료, 신문기사, 제주관련 영상물 등 탑재
제주학 총서 발간 지원	- 탐라사 재해석,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의 잣성 등 역사자료 발간 - 제주건축, 제주의 먹을거리, 제일제주인, 민요, 제주문화, 제주방언 등 발간 지원
제주어 중점 연구 사업	‘제주어 표기법’ 제정 및 해설서 발간 - 제주어 보전 정책 연구, 제주어 교육 및 대중화 자료 개발·보급, 제주어 교육 등 제주어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수행
연구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교류 - 도내 제주학 연구기관과 연구 협력 추진

1-6 2016년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추진사업 내역

○ 총예산 : 892,017천원 (사업비 556,000천원, 운영비 336,017천원)

연구사업명	예산(천원)	사업 내역
총 계	892,017	2016년도 출연금 : 800,000천원 2015년도 이월금 : 92,017천원
운 영 비	336,017	- 인건비 297,000천원 -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통통신비, 여비 등 39,017천원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운영	105,600	-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운영 - 현재 35,000여 건의 제주학 자료 구축
제주학 대회	25,000	· 국제학술대회
	7,000	· 제주어 세미나
	28,000	· 제주학 연구기관 세미나, 전국 지역학포럼
	20,000	· 제주학 도서사진전
	소계 : 80,000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연구사업명	예산(천원)	사업 내역
제 주 학 연 구 공 모 지 원 사 업	160,000	· 정책연구과제 4건 선정 · 기초연구과제 4건 선정
제 주 학 총 서 출 판 지 원 사 업	27,000	· 총서 발간 지원 2건 선정 · 번역서 발간 지원 2건 선정
제 주 역 사 자 료 총 서 발 간 사 업	50,000	·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발간
제주학정책연구	20,000	· 제주의 역사인물전승 조사 · 제주학 시민 향유 실태 조사
제주학교육사업	20,000	· 제주학아카데미: “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2 차 제 주 학 연 구 센 터 운 영 기 본 계 획	20,000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제 주 어 중 점 연 구 사 업	40,300	· 제주 이주민 대상 제주어 책자 발간
	33,100	· 제주어 교육 강좌 운영(2회)
	소계 : 73,400	

1-7 2016년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사업 참여연구자

연번	연구사업명	사업비(천원)	참여연구자	비고
1	제 주 학 대 회 (국 제 학 술 대 회)	25,000	조동일 외 16인	
2	제 주 학 대 회 (한 국 지 역 학 포 럼)	7,000	이익주 외 13인	
3	제 주 학 대 회 (제 주 어 세 미 나)	7,000	송상조 외 5인	
4	제 주 학 대 회 세 미 나 지 원 (제 주 대 탐 라 문 화 연 구 원)	5,000	김동윤 외 15인	
5	제 주 학 대 회 세 미 나 지 원 (이 어 도 연 구 회)	5,000	고충석 외 15인	
6	제 주 학 대 회 세 미 나 지 원 (제 주 섬 문 화 연 구 소)	5,000	마르틴 외 5인	
7	제 주 학 대 회 세 미 나 지 원 (제 주 신 화 연 구 소)	5,000	문무병 외 7인	
8	제주학연구비 지원 및 연구사업	180,000	고계성 외 9인	
9	제주학총서 및 제주학 관련 번역서 발 간 출 판 지 원 사 업	27,000	고병련 외 3인	

연번	연구사업명	사업비(천원)	참여연구자	비고
10	제주학 교육사업 제주학 아카데미	20,000	정근식 외 7인	
11	제주역사자료총서 발간사업 일제하 신문기사 자료집 (제주역사문화진흥원)	50,000	강만생 외 6인	외부 위탁
12	제주 이주민 대상 제주어 책자 발간	40,300	오창명 외 2인	
13	제주어 교육 강좌 운영	33,100	고동호 외 4인	
14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000	박찬식 외 6인	
15	제주학 정책 세미나	2,300	조판기 외 12인	
16	지역학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1,650	이상협	
17	제주언론인클럽 공동세미나	3,000	민영 외 12인	
18	제주해녀어업 보전활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87,482	유철인 외 9인	
19	제주 해양 생활 문화 연구	10,000	주강현 외 6인	
20	제주학회 공동세미나	5,000	오영주 외 10인	
합계		538,832	182인	

1-8 업무 제휴 기관

일시	분야	기관
2011. 12. 20.	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2011. 12. 14.	학회	(사)제주학회
2012. 03. 13.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12. 08. 02.	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04. 07.	방송	제주MBC
2013. 11. 07.	신문사	(주)제민일보
2014. 06. 13.	방송, 학회	(주)KCTV, 민요학회
2015. 06. 24.	신문사	(주)한라일보

2.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조례 분석

2-1 시행 중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 정 2013. 03. 20

일부개정 2016. 07. 08

일부개정 2016. 11. 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23>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11.23>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6.11.23>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2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11.23>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6.11.23>

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현행 조례의 한계**

- 연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독립적인 공공연구기관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제3조(위치)에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라는 규정의 삭제 또는 수정 필요성 : 제주발전연구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중복 출연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연구센터가 독립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예산·규정·인력 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독립기관을 염두에 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센터의 안정적이고 항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 확보가 중요한데,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등의 운영 사례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제주학육성기금> 또는 <제주학연구원육성기금> 조성에 관련된 조항이 조례로 규정될 필요 있음.
- 수행 사업에 대한 세부적 검토 필요.
- 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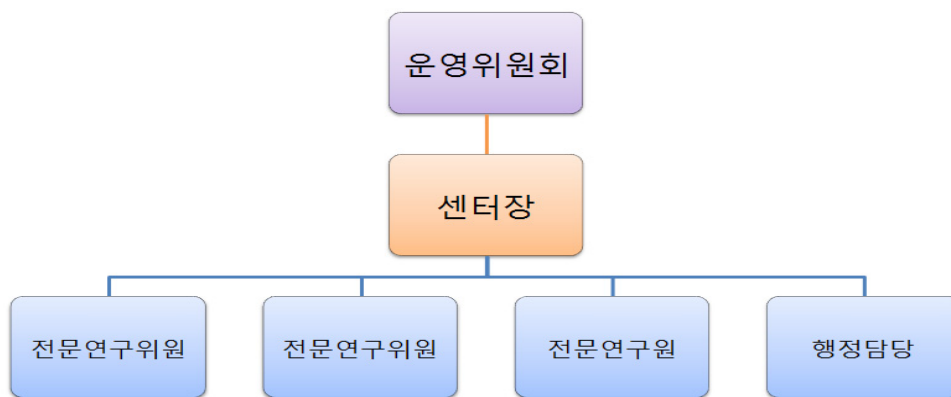
3. 제주학연구센터 조직운영 실태 분석

3-1 **업무추진체계**

-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 집행과 예산 운영은 연구센터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는 제주발전연구원의 규정대로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사업 중 센터 연구사업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심의위원회(융역심의위원회)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그 외 센터 사업은 제주학연구센터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제주학연구센터의 최고 상위 의결기구로서,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되어 있음.

<표 II-1>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 제주학연구센터 인력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업무
센터장	• 센터의 총괄 운영 및 관리 • 제주학 연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정책연구 • 제주학대회(총괄)
전문연구위원 1	•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 • 제주학 연구비 및 발간비 공모 지원 • 제주학 정책연구 •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전문연구위원 2	• 제주학 교육사업 • 제주학 연구비(연구공모) • 제주학 정책연구 • 제주학대회 분야별 사업
전문연구원	• 제주어 연구사업 • 제주학대회 분야별 사업
행정	• 센터 행정 업무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은 전문연구 인력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체계성과 통합성에 따른 사업의 계획·집행, 성과 관리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3-2 조직운영의 현실과 한계

- 제주학연구센터는 출범 때로부터 사업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인하여 연구원별 사업 수행량이 과부하임.
- 2016년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인원 현황은 총 5명으로 센터장과 연구원 3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1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위촉 연구원 1명의 형태로 추진되어 오다가, 이후 점차 센터 직원을 확대하여 2012년 초빙연구원과 초빙연구위원 2명을 채용. 이후 각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위원으로 전환하여, 겸직 센터장 1인, 전문연구위원 1인, 전문연구위원 1인 등 3인 체제를 유지하여 옴. 2016년 3월 전임(專任) 센터장 채용과 함께 전문연구위원 1명이 다시 임용되어 2016년 11월 기준, 전임 센터장 1인, 전문연구위원 2인, 전문연구위원 1인, 행정 1인 체제를 유지함.

<표 II-2>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인력 변화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센터장	겸직 1	겸직 1	겸직 1	겸직 1	겸직 1	전임 1
연구직	—	초빙연구위원 1 초빙연구위원 1	초빙연구위원 1 초빙연구위원 1	초빙연구위원 1 초빙연구위원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위원 1
행정직	—	—	—	—	—	1

- 한시적으로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 수행 인력을 보충해 옴.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보조인력 구인난으로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종종 나타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상임 연구인력의 채용 증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II-3>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수	-	1	1	2	4	10

- 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전문연구자를 박사급 위주로 충원해 왔기 때문에, 학문후속세대이며 연구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센터의 중간층인 석사급 인력이 한 명도 없음. 향후 분야별로 박사급 연구원 수와 비슷한 석사급 인력 충원이 필요함.
- 특히 행정업무를 맡아줄 행정 전담직원의 부재는 연구직 직원들에게 연구사업 업무 외에 행정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과중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기획하고 수행해야 할 많은 사업에 제한을 가져옴.
- 연구인력을 돕는 연구보조인력은 상근 비정규직으로서 낮은 보수와 직급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교체가 있어왔음. 앞으로 연구보조인력은 각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건비 편성을 통해서 임시로 선발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무 방식도 사업의 운영 성격에 따라서 상근과 비상근을 겸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석사급 전문연구 인력의 충원과 더불어 연구센터의 행정업무를 전담할 정규직 행정직원의 채용, 연구보조인력의 사업별 활용 방식이 필요함.

4. 제주학연구센터 재정운영 실태 분석

4-1 재원의 요소

- 제주학연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재원이 불확실하면 그 계획을 확정할 수 없음.

- 공공의 성격을 지닌 기관 및 센터의 재정은 제주학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자원으로서 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칭함.
- 재원은 그 성격에 따라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음. 대부분의 기관들은 공공자원과 민간자원 복수의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재원에 따라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제주학연구센터의 재원은 공공자원의 성격을 가짐.
- 공공자원은 조세 제도를 근간으로 공공조직의 체계를 통해서 수집되고 기관들에 배분되는 방식의 재원으로, 재원의 규모나 가용성 크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안정성이 뛰어나함.
- 공공성을 지닌 기관 및 센터의 재정구조는 크게 수입과 지출로 살펴볼 수 있음. 수입은 세입예산을 이루는 모든 거래로, 정부보조금재원, 기부금(후원금)재원, 설비이용료재원, 기타(이월금)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지출은 채무이행에 있어 최종 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뜻하고, 지출을 이루는 항목에는 대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비, 기타(채무상환) 등이 있음.¹⁾

4-2 제주학연구센터의 재원 현황과 한계

- 제주학연구센터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재정지원)에 의거하여 도지사가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비 등 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학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된 2011년 설치 및 운영 준비비 마련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한 이래, 제주학연구센터의 재원은 100% 도비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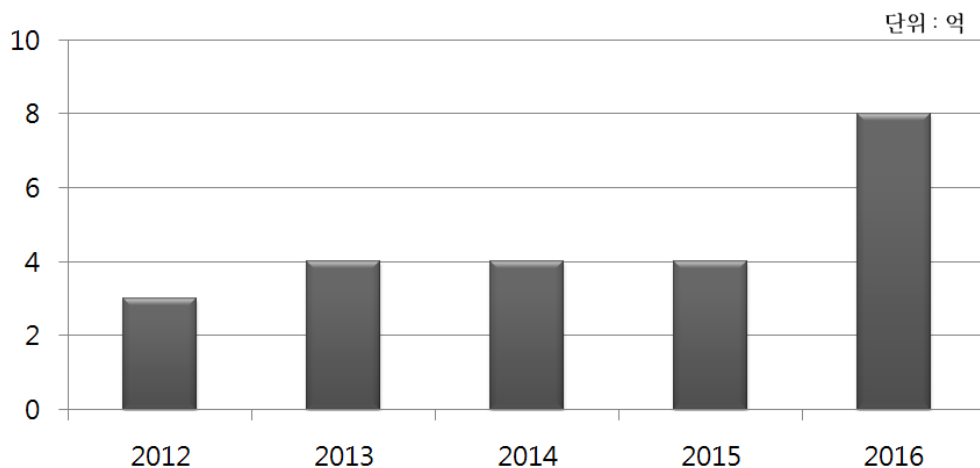
1) 권수진, 2001, 「사회복지관 재정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 지난 5년간(2012~2016) 총 재원은 23억 원이고, 이는 전부 도비 출연금으로 구성되었음. 국비를 비롯해 도비 중 다른 항목의 예산(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등) 수입, 자체 수입 및 수익사업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음.
- 지난 5년간(2012~2016)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2015년까지 거의 같은 액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2016년 2배 가량 증가함. 도비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음. 이는 도정의 지원 의지 유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도 함.

<표 II-4> 제주학연구센터 재원

구분	예산액	재원	주무부서
2012	3억	도비 출연금	문화정책과
2013	4억	도비 출연금	문화정책과
2014	4억	도비 출연금	문화정책과
2015	4억	도비 출연금	문화정책과
2016	8억	도비 출연금	문화정책과
총	23억	—	—

지난 5년간 예산액 증액



- 제주학 진흥과 관련하여 국책사업을 통한 국비 사업비 확보 및 제주학(센터)육성기금 조성, 공기관 출연 등을 통해 재원을 다양화시킴으로써 항상적·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

- 육성기금 조성을 통해서 제주학 연구자 양성 지원,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비 지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주학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출연금 예산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적 역점 대형 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구센터의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에만 의존하던 연구센터의 재원을 기금,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등으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제주학연구센터 시설분야 실태 분석

5-1 제주학연구센터의 시설현황

- 제주학연구센터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내 1층에 위치함.
 - 2011년 개소 당시 현 센터가 위치한 건물 입구에 현판
 - 2012년 1월~5월까지 현 센터 옆 임시 공간 사용(면적 약 10~13m², 3평~4평)
 - 2012년 5월~2015년 10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 지하 공간 사용(30.73m²)
 - 2015년 10월~2016년 2월까지 제주상공회의소 1층 건물(면적 약 10~13m², 약 3~4평)에 위치
 - 2016년 3월~현재(2016년 11월말 기준)까지 제주상공회의소 1층 건물 옛 평생교육진흥원 자리로 이전(면적 약 56m², 17평 정도). 1층 서쪽 공간을 세 부분으로 분할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공투자관리센터, 지하수연구팀 등이 입주해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실 안에는 센터장 1인, 전문연구위원 2인, 전문연구원 1인, 행정직 1인, 연구보조원 1인의 연구·업무 공간이 배치되어 있음.

<사진 II-1> 연구실 전경



5-2 제주학연구센터 시설운영 한계

- 그간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 및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주발전연구원 지하실 공간과 제주상공회의소 1층 공간을 번갈아가며 이동하여 왔기 때문에 연구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정적인 연구 업무 공간 면적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연구자료 및 기증 아카이브 원자료, 장서, 기타 서류의 수장 공간이 없어서 제주발전연구원 창고를 임시로 활용하는 형편임.
- 별도의 자료보관 시설이나 연구자 휴게실, 회의실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자료 보관상 문제와 회의 시 제주발전연구원 본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연구센터를 방문하는 연구자 및 내방객들의 면담 공간이 없음.

- 제주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시민과 학자들이 제주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학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및 시민들에게 자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음.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학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아카이브 전용 공간(도서관, 수장고, 전시실, 시민 정보서비스실이 융합된 복합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6. 제주학연구센터 고유목적사업 추진 실태 분석

6-1 성과분석 개요

-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 성과 분석을 위하여 외부적으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연구원 각자 사업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작성함.
-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성과 분석은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제주학 관련 1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제주학 관련 전문가들은 직업군으로 보았을 때, 대학의 교수(32명), 언론인(18명), 교사 및 공무원(16명), 연구직(20명), 기타(14명) 등으로 구성됨.²⁾ 성별로는 남성 71명, 여성 29명이 되며, 연령대별로는 30대 11명, 40대 28명, 50대 54명, 60세 이상 7명이 됨. 학력별로는 대졸 17명, 대학원 석사 17명, 대학원 박사 66명임. 분야별로는 인문학 57명, 사회과학 29명, 자연과학 10명, 기타 4명임.³⁾

2) 기타 직업은 문화예술분야, 시간강사, 사서, 사회단체, 재야학자 등으로 나타남.

3) 기타 관심분야는 공학, 문화, 지역학 등으로 나타남.

<표 II-5> 분야별 전문가 수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수와 비율					내부평가
	교수	연구직	언론인	교사 및 공무원	기타	
100(명)	32	20	18	16	4	—
100(%)	32	20	18	16	4	—

- 성과 분석을 위해서 항목별 성과 달성에 대하여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함.

6-2 제주학 관련 추진사업 성과 분석

- 지난 5년간 성과 분석에 대한 항목은 크게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과 역할을 해왔는가와 분야별 사업 평가로 이루어짐.
-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및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①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 ② 지난 5년 간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및 역할, 기능 수행, ③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었음.
- 반면 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② 제주학 연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표 II-6>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목적 부합 운영과 역할

항목	세부항목	성과달성(평균)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2.91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3.10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학 연구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3.08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및 역할, 기능 수행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전반	3.16
	제주학연구센터 역할 및 기능	3.19
	제주학연구센터 고유목적 사업	3.25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사업의 수행	탐라문화, 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3.16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24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03
	제주학 연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90

- 고유목적 사업별 평가는 <표 II-7>과 같이 대개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표 II-7> 고유목적 사업별 평가

사업별	성과달성(평균)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운영	3.49
제주학 관련 연구비 지원 및 연구사업	3.21
제주학 총서 발간 및 출판지원 사업	3.45
제주어 연구사업	3.44
제주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	3.24

6-3 제주학연구센터 추진사업 한계

- 제주학 관련 일부 자료는 구축되어 있으나,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구축 필요.
- ‘역사·민속·언어’ 등의 연구·조사에 치중하여 제주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부족.
- 복합적이며 공동협업을 요구하는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함.

7. 각 사업별 내부 평가

7-1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학 관련 고문헌, 고문서, 역사자료, 제주학연구물DB, 전통문화 관련 사진, 동영상, 구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디지털화로 영구보전하며 대내외로 전송하여 연구 기초자료와 교육용 자료로 삼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학 자료의 연구·교육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 지역의 고유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함.

나. 추진기간 및 현황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계획서 작성(2012)
- 제주학 아카이브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국민 홍보(2013~)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제주학 자료구축 운영 : 2016년 11월 기준 36,295건의 자료 구축

구축 자료	건수(건)	비 고
문헌 DB	4,079	• 단행본 309건 • 보고서 559건 • 논문 2,622건 • 정기간행물 419건 • 세미나 170건
사 진	6,651	• 개인기증 등 사진자료 - 서재철 기증 자료 및 해녀, 오름, 포구 등 5,603건 - 강만보 사진 자료(1,005) 건 • 제주관련 사진 43건
동 영 상	721	• MBC, KCTV, KTV 기증 등 동영상 721건
구술음성	742	• 제주민요, 제주전설 등 구술음성 742건
고문서/고지도	78	• 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고문서와 고지도 - 고문헌 62건 - 고지도 등 16건
역사 기사	19,704	• 「조선왕조실록」 기사 1,754건 • 「고려사」 기사 258건 • 「비변사등록」 279건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3건 총 282건 • 승정원일기 16,343건 • 일성록 1,067건
신문기사	4,320	• 제민 215건 • 한라 593건 • 제주 424건 • 역사신문 3,088건
합 계	36,295	

○ 소요경비

연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요금액 (단위 : 천원)	148,000	141,800	60,300	53,408	105,600
생산 건수				3,782	11,628

다. 방법 및 주요 내용

-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 제주학아카이브 관리운영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축용 자료를 확정함.
 - 자료수집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탑재용 자료를 수집함.
 - 제주학아카이브 콘텐츠의 메타언어를 국가기록원이나 국립민속박물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표준 모델로 삼아, 메타데이터 설정 및 자료 관리보존.
- 특히 제주민요, 전설과 같은 구술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수집 자료의 가사, 음악 악보를 정리하여 기존의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분류한 『제주민요사전』을 발간함.
- ‘제주문화상징’과 같은 방송국의 기증 영상자료 등을 탑재함으로써 교육용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

라. 성과 및 평가

- 제주학 관련 연구·교육자료 제공 및 콘텐츠화로 지식자원화
- 제주학의 대중화 및 세계화 계기
- 제주학 자료의 영구보존 및 콘텐츠 자원화를 위한 지적 자산 축적

7-2 제주학연구비 지원 및 연구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학 연구 활성화 및 외부 전문인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주학 연구의 기초 확대.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제주학 관련 현안연구 수요조사를 통해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연구결과 도출.
- 연구 결과를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제주학 연구 대중화의 계기를 마련함.
- 제주학의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 강화에 주력.

나. 추진 기간 및 현황

○ 기간 : 2013년~현재

○ 총 연구 건수: 총 28건

- 자체 7건 • 공모과제 21건

<표 II-8> 2012~2015년도 제주학 자체 정책연구 및 공모지원 연구 목록

번호	보고서명	발행 연도	연구 책임	구분
1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 계획	2012	좌혜경	자체
2	제주학 연구기관·단체편람	2012	좌혜경	자체
3	제주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 및 진흥 방안	2012	좌혜경	자체
4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2	오승훈	자체
5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 방안	2013	오승훈	자체
6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전 방안	2013	양창용	공모
7	해역세계 시좌의 제주학 방법론 연구	2013	구모룡	공모
8	제주 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 방안 연구	2013	좌혜경	자체
9	제주도 목축문화의 실태와 보전·활용 방안	2014	김동전	공모
10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014	표명환 강명수 강창보	공모
11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2014	좌혜경	자체
12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2014	오승훈	자체
13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	2014	오승훈	자체

번호	보고서명	발행 연도	연구 책임	구분
14	이어도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2015	이어도 연구회	공모
15	조선시대 제주목민관 비석군의 실태조사와 분석	2015	홍기표	공모
16	제주 해녀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2015	김민호	공모
17	제주학 시민 신탁 대중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5	현혜경	공모
18	제주도 전설지 현지조사 및 자원화 방안	2015	좌혜경	자체
19	조선시대 이후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에 관한 연구	2015	강경민	공모
2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적응 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 교육연구	2015	황석규	공모
21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 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연구	2015	강경희	공모
22	제주 전통 용기의 전승 및 문화 유산화 과정 연구	2015	염미경	공모
23	사용자 중심의 제죽말사전 발간 방안	2015	오승훈	자체
24	제죽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2015	문순덕	자체

<표 II-9> 2016년도 제주학 자체 정책연구 및 공모지원 연구 목록

번호	보고서명	발행 연도	연구 책임	구분
1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조사	2016	고계성	공모
2	조선시대 정려비(충효열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2016	홍기표	공모
3	‘뜨는’ 제주와 제주를 ‘뜨는’ 주민들, ‘뜨는’ 지역의 주민 들은 행복한가	2016	김주호	공모
4	제주감귤 꽃차의 기능성 연구 및 상품 개발	2016	박석근	공모
5	동아시아 해상 무역로에서 제주도의 위상에 대한 실증 적 연구	2016	강창화	공모
6	제주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운동 연구	2016	황석규	공모
7	제주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	2016	이호룡	공모
8	제주 이주 네트워크 현황 조사를 통한 제주 정착 과정 고찰	2016	강봉수	공모
9	제주 역사인물 전승조사와 문화 자원화	2016	좌혜경	자체
10	제주학 시민 향유실태 및 수요조사	2016	현혜경	자체

다. 방법 및 주요 내용

- 전 국민 대상으로 제주학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수요 조사에 나타난 주제를 분석하고, 실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 선정
- 사업방법 : 공모과제 수립 → 과제공모 접수 → 선정평가 및 선정결과 통보 → 계획서 제출 → 과제수행 협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 선금 신청 → 연구비 지급 →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검수 → 완급금 청구 → 연구비 지급
- 연구의 내용
 - 정책연구 : 20건(제주학, 언어, 해양, 목축, 교육, 전설, 재일제주인, 정려비, 주민행복도, 감귤, 해상무역로 등)
 - 기초연구 : 8건(마을어장, 국제결혼, 제주성 일대 옛길, 전통옹기, 중문관광단지, 아나키스트, 이주정착민 등)
- 분야별 연구건수
 - 제주학 : 4건(아카이브, 제주학편람, 방법론, 시민수요조사)
 - 인문과학 : 13건(무형문화유산, 제주방언, 해양유적, 해녀문화, 목축문화, 지적 재산권, 이어도, 목민관, 전설지, 제주성옛길, 전통옹기, 해양무역로, 역사인물전설)
 - 사회과학 : 10건(마을어장, 국제결혼, 재외제주인, 지역주민, 중문관광단지, 아나키스트, 이주네트워크, 해녀문화, 시민실태 등)
 - 자연과학 : 1건(감귤)

라. 성과 및 평가

○ 연도별 현황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요금액 (단위 : 천원)	61,000	70,000	33,300	159,000	160,000
건수	3건	3건	3건	9건	10건

- 제주학 정립 중심 기관으로서 제주학의 발전과 연구자 양성에 기여.
- 제주학 인프라 구축에 따라 대중교육 활성화.
- 제주학 연구자 양성 지원, 학문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비 지원 미흡.
-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로 제주발전 계기 마련.

7-3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학 관련 주제를 선정 후 제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정책 방향 제안.
- 국내외 제주학 관련 연구자, 연구단체·기관의 총집결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국외 지역학(아시아, 유럽 등)과 학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제주학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

나. 추진기간 및 현황

-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2012. 08. 31
『탐라, 제주학 지구 환경학을 지향한다』
- 제2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3. 10. 4
『제주문화경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 제3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4. 11. 7
『‘제주마’ 문화정립을 위한 제주학의 역할』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제4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5. 10. 2

『문화자원론과 지역학』

- 제5회,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6. 10. 7.

『제주문화가치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주학의 역할』

<표 II-10> 연차별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예산 및 인원

구분 \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요금액 (단위 : 천원)	20,000	20,000	20,000	22,000	25,000
참석인원 (단위 : 명)	100	100	100	100	100

다. 방법 및 주요 내용

-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제주 문화경관, 생태자원, 제주마, 제주의 전통문화 등이 지니는 풍부한 가치를 찾아 학문적 성과를 구축하고, 차후 신화를 내적 기반으로 제주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특히 제주도의 전통문화 자원이 지니는 문학적,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타 지역 신화와 비교함으로써 제주신화의 위상 정립.
- 제주 고유문화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보전을 위한 노력 방안을 모색하고, 그 가치를 대내외로 홍보하여 문화자원화 계기 모색.

라. 성과 및 평가

- 제주섬 또는 도서·해양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탐라문화권 재정립.
-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사회과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제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도출.
- 제주의 정체성인 탐라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정책 기반 마련.

- 제주학의 대내·외 홍보 및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학 진흥 계기 마련.
- 제주학의 학문적 성과로 제주발전 방향 모색 및 정체성 확립.

7-4 제주학 총서 발간 및 출판비 지원 사업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제주학 연구물의 출판비 지원으로 연구자의 의욕 고취와 연구 활성화 도모.

나. 추진 기간 및 현황

- 사업 기간 : 2012년 ~ 현재
- 사업 현황 : 총 22건(현재 진행 4건)
 - 공모 8건, 자체 10건

다. 방법 및 내용

- 제주학 관련 전 분야(인문·사회·자연과학)의 학술서 지원.
- 관찬·사찬 역사서나 문집, 기행문, 보고서 등 귀중한 한문전적과 외국문헌 번역을 통해 제주학의 학문적 기반 구축과 연구 토대 마련.
 - 제주학 관련 연구서나 외국서적 번역 출판 발간비 지원(권당 500만원)
- 제목이나 내용(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실현 가능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 출판 지원사업의 취지 적합성 여부 등 객관적 심사를 거쳐서 지원.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표 II-11> 제주학 총서 발간 상황(2012~2015)

총서 번호	도서명	발행 연도	발행인	구분
1	제주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2012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2	전환기의 제주 도시건축	2012	김태일	공모
3	제주어와 영어로 걷는 제주 이야기	2012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4	제주계록	2012	고창석·김상옥	자체
5	제주민요를 지킨 명창들	2012	좌혜경	자체
6	제주통사	2013	김봉옥	자체
7	제주 먹을거리 풍경	2013	현혜경	공모
8	탐라사의 재해석	2013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9	세렌디피티로서의 제주문화	2014	김덕삼·최원혁	공모
10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2014	신재경	공모
11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2014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12	제주 방언 통사의 기술과 설명	2014	김지홍	공모
13	제주어 표기법 해설	2014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14	탐라순력도 탐색	2014	오창명	자체
15	제주민요사전	2015	좌혜경	자체
16	제주의 잣성	2015	한상봉	공모
17	김만덕의 실천적 삶과 제민정신 연구	2015	이정화	공모
18	제주곳의 이해	2015	강정식	공모
19	제죽말의 이해	2015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표 II-12> 제주학 총서 발간 상황(2016)

총서 번호	도서명	발행 연도	발행인	구분
20	재일조선인 문제의 기원	2016	문경수	공모(번역)
21	제주의 원풍경 아이덴티티	2016	오선아	공모(번역)
22	제주 사난 제죽사름	2016	센터	자체
23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2016	김범훈	공모
24	섬의 산물	2016	고병련	공모

<표 II-13> 총서 발간 및 출판비 지원 사업 예산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소요금액 (단위: 천원)		60,000	58,000	16,000	27,000

라. 성과 및 평가

- 제주학 진흥을 위한 제주학 연구의 기본 토대 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삼음.
-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제주학 고전 원문 자료와 번역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학문 후속 세대 및 시민들에게 제공.
- 연구자 참여기회 마련 및 발간비 지원으로 제주학 발전 계기 조성.
- 참신한 제주학 관련 정책 모색으로 제주발전에 기여.

7-5 제주학 교육사업 :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가.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학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중요 기대 중의 하나는 제주와 관련된 기초 자료의 수집이며,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이 향후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음.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구술사는 중요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중앙 및 정치 중심의 기록 유산에서 배제되었던 지역의 생활사와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기 때문임.
- 세계적 추세는 융·복합 연구 방법론의 일환으로 구술사를 활용하여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문화산업과 연결되어 활용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사라져 가는 제주학 기초 자료 수집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모아 2차적으로 융·복합 연구 및 활용으로 나갈 수 있음.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지역적 차원에서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소 및 전문 연구자, 일반 시민사회 인적 자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접근 방식과 통로 개척이 필요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구술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본 교육사업의 목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구술사 교육임. 시민 기초 구술사 교육을 통해 제주학과 구술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주학 자료 수집에 시민 참여와 활용 증대를 꾀함. 나아가 시민 구술사 수집 전문가 양성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추진기간 및 현황: 2016년 신규사업

- 2016년 사업 추진 현황 : 2016. 05. 16.~ 2016. 10. 31.

내 용	일 정	월 별 연 구 일 정(2016)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시민 기초 구술사 교육사업 기획							
강사 위촉 및 강의실 확보							
시민 대상 홍보							
시민 대상 교육사업							
교육 사업 만족도 조사 및 분석							
교육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다. 방법 및 주요 내용

<기획 및 홍보>

- 수강생 모집 및 홍보 방법
 -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홍보
 - 제주학 연구 및 교육사업 관련 단체 협조 요청 및 홍보
 - 언론 매체와 연계한 홍보 활동
 - 제주발전연구원 메일 발송 등의 홍보
 - 지역대학의 관련학과 협조 요청 및 홍보
 - 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홍보

○ 수강생 모집 및 인센티브

- 수강료 무료
- 구술사 관련 자료 배포
- 강의 80% 수강자에게 수료증 발급

○ 홍보기간 : 2016년 6월 1일 ~ 6월 30일

<교육 방법>

○ 강사진에 의한 이론 및 사례 교육

<강사진 구성 및 기관 협력>

○ 강사진 구성 :

- 국내 구술사 관련 전공 교수 및 전문 연구자 섭외
- 구술사 관련 기관의 협조(예: 한국구술사학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주요내용>

○ 시민을 위한 기초 구술사 강좌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음.

- 구술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 구술 자료 생산 기획
- 구술 자료 생산을 위한 면접 진행 요령
- 구술 자료의 관리와 활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인원 : 60명(애초 40명에서 → 60명 증원)

○ 모집 : 선착순 모집

○ 교육기간 : 2016. 07. 07.~ 2016. 08. 25.

○ 장소 : 제주벤처마루 10층 대회의실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교육일자 및 교육내용

회차	일자	시간	주제	강사진
1강	7월7일 (목)	19:00 ~ 20:30	• 개강식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 한국에서 구술사의 의미와 성과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강	7월14일 (목)	19:00 ~ 20:30	• 구술사 자료 수집은 어떻게 기획되고 진행되는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3강	7월21일 (목)	19:00 ~ 20:30	• 구술사 자료 수집에서 영상의 생산과 가치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4강	7월28일 (목)	19:00 ~ 20:30	• 구술사 아카이브 : 정리에서 활용까지	김선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 한국구술자료관 구축 연구단 자료정보실장)
5강	8월4일 (목)	19:00 ~ 20:30	• 구술사 연구에서 균위안부 구술채록의 의미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6강	8월11일 (목)	19:00 ~ 20:30	• 구술사를 통한 제주해녀의 삶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7강	8월18일 (목)	19:00 ~ 20:30	• 증언과 증언으로 복원하는 제주4·3	허영선 (시인·제주대학교 강사)
8강	8월25일 (목)	19:00 ~ 20:30	• 구술사와 문화콘텐츠 : 제주신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쟁점	한진오 (극작가)
			• 종강식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라. 성과 및 평가

- 구술사 참여는 40명 선착순 모집에 130명 이상이 신청서 접수 및 문의를 함. 인원수를 다소 확대하여 60명에서 출발. 청강생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현장 청강생이 매 강의마다 10~20명 선이었음. 이는 그간 구술사에 대한 도민 수요가 매우 높았음을 반영하는 것임.

<표 II-14> 강의별 참석 인원

구분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수강등록생	59	47	45	39	45	43	39	34
현장청강생	15	8	10	11	13	20	10	12
계	74	55	55	50	58	63	49	46

- 단기적으로는 시민 구술사 특강 및 결과를 통해 시민 구술사 교육의 단계별 교육의 장 마련 가능.
- 시민 구술사 교육을 통해 이들을 조사자로 활용한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가능.
- 시민들이 참여한 제주학 구술사 자료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제주학 및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연구 역량 확보.
- 시민들이 생산·수집한 구술사 자료의 결과물 향유 장 마련을 통해 시민 향유 및 활용성 증대.
- 향후 구술사 방법론을 동원한 제주지역 주민 생애사 아카이브 운동이 가능함.
- 기초 강의에서는 구술사 사례 강의가 훨씬 효율적으로 나타남.
- 강의 후 실시된 수강생 설문 조사에 39명이 참여하였으며,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구 분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계
1. 구술사 강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 셨습니까?	9	24	4	1	0	38
2. 구술사 강좌의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3	6	0	0	39
3. 구술사 강좌를 통해 알게 된 교육내용과 정보가 향후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겠습 니까?	13	22	3	0	1	39
4. 구술사 강좌 참여 후, 참여 전에 가졌던 기대감에 비해 만족감은 향상되었습니 까?	5	23	9	2	0	39
5. 구술사 강좌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였습 니까?	1	18	13	7	0	39
6. 구술사 강좌의 교육 강사에 대해 만족하 셨습니까?	7	24	7	1	0	39
7. 구술사 강좌 교육 장소 및 기타시설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13	22	4	0	0	39
8. 나중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른 구술사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23	12	2	2	0	39
계	81	168	48	13	1	

○ 설문지 조사 결과 구술사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온 가운데, 강좌 전
반에 대해서 33명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교육내용에서 33명이 긍정
평가를, 자기개발에서 35명이 긍정 평가를, 만족감에서 28명이 긍정 평
가를, 홍보에서 19명이 긍정 평가를, 교육강사에서 31명이 긍정 평가를
교육장소에서는 35명이 긍정 평가를 내렸음. 또한 차후 제주학연구센터
에서 제공하는 구술사 강좌 프로그램에 35명이 다시 참여를 하겠다는 평
가를 내렸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홍보부분에서는 상대
적으로 평가가 낮았음.

○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제주발전연구원 및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홍보를
비롯해 메일링, 제주도내 각 대학교 및 각 제주학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공서 및 도서관/박물관 등 홍보물 배포, 일간지, KCTV, 인터넷 신문을
동원하여 약 한 달간 이루어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구술사 강좌 외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향후 개설하였으면 하는 교육강좌에 대하여 비구조화된 설문을 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

9. ‘구술사 강좌’ 외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개설하였으면 하는 교육강좌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제주신화	7
	제주역사	5
	스토리텔링	1
	자연생태	2
	구술사심화	4
	인문학, 독창적 문화유산(올레길 등)	1
	제주문화	1
	제주 채록 및 기록	1
	제주어	1
	세계사 또는 국제관계 속의 제주	1
	제주학 세미나	1
	원풍경	1
	탐라국, 조선시대의 역사	1
	제주여성사	1

- 결과를 보면, 제주신화와 제주역사, 구술사 심화 등에 대하여 향후 희망을 원하는 강좌로 나타났음.

7-6 제주어 연구사업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에서 ‘제주어 연구’는 중점 특화 사업으로 선정.
- 자체 연구 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사업성과 제시.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대분류	중분류	세부 사업	년도
자체 연구 사업	제주어 정책연구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12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 방안	2013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2014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	2014
		사용자 중심의 제춧말사전 발간 방안	2015
		제춧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2015
	제주어 관련 대중화 자료 개발	『제주어와 영어로 곧는 제주 이야기』 발간	2012
		제주 이주민 대상 제주어 책자 발간	2016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제주어 표기법’ 제정	2012, 2013
		『제주어 표기법 해설』 발간	2014
		제춧말 개설서 발간	2015
	제주어 교육	제주어 교육 강좌 운영	2016
	제주어 순수연구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2014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2015
	세니마 및 토론회 개최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2012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2013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표기법 해설	2014
		방언 보전 활동의 전국 동향과 전망	2014
		제주 방언사전의 역사와 방향	2016
연구 지원 사업	제주어 정책 연구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전 방안	2013
	제주어 순수 연구	『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발간	2014

□ 7-6-1. 제주어 정책 연구

①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 목적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 지역 문화와 역사의 계승 및 전승 기반 마련

○ 추진 기간: 2012.06.28.~2012.11.30.

○ 소요 예산: 15,120,000원정(15.12백만원정)

○ 방법

- 제1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성과 정리 및 평가
- 도내외 제주어 환경 분석
- 전문가, 일반인 설문 결과 분석
-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부문별 정책과제 수립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도민의 제주어 능력 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 개선 방안
-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 교육의 연계 방안
-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 방안
- 제주어 관광자원화 방안
- 제주어 정보화 방안
-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방안
- 제주어의 사용,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 성과 및 평가

- ‘제주어 능력 향상 기반 조성’, ‘제주어 교육 기회 확대’, ‘제주어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6개 정책과제 선정
- 6개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3개의 세부추진과제 선정
-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제공
-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 제시

②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 방안

○ 목적

-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및 활용 방안 제시를 통해 제주어 교육, 사용의 일상화 보전에 기여

○ 추진 기간: 2013.01.24.~2013.12.20.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소요 예산: 11,120,000원정(11.12백만원정)

○ 방법

- 선행 연구 방법과 결과를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에 반영
- 제주어 어휘 조사 업적물에 수록된 어휘의 목록화
- 주관적 방법(subjective method)에 의한 기초어휘 선정
- 기초어휘 활용 방안 제시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기준 설정
- 제주어 기초어휘 목록 작성
- 제주어 기초어휘 활용 방안 제시

○ 성과 및 평가

- 주관적 방법(subjective method)에 의해 1,424개의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제시
- 제주어 대중화 자료, 교육 자료 발간 등에 우선적 활용 가능자료 선정
- 제주어 교육에 있어 어휘 실러버스(syllabus) 설계 근거 제공
- 제주어 대중화 자료, 교육 자료 집필의 참고 자료 제공

③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 목적

- 옥외 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제주어의 일상적 사용 분위기 활성화, 바른 사용 및 관광 자원화에 기여

○ 추진 기간: 2014.10.23.~2014.12.31.

○ 소요 예산: 14,000,000원정(14백만원정)

○ 방법

- 제주지역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상호에서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분석

○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방향 설정 및 기초 조사
- 옥외광고물의 제주어 상호 실사
-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분석
- 상호에서의 제주어 활용 개선점 및 활용 방안 제시

○ 성과 및 평가

- 옥외광고물 상호에서의 제주어 활용 위치, 언어적 기능에 따른 제주어 활용 양상, 제주어 어휘 활용의 특징, 제주어 표기 문자, 제주어 표기 오류 양상, 언어적 구조 규명
- 실태 조사에 따른 정책 제언
- 옥외광고물 상호에서의 제주어 사용의 다양성 및 정확성 확보 계기 마련
- 옥외광고물 상호에서의 제주어 활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

④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

○ 목적

-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하여 그 경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보완점과 지향점 제시

○ 추진 기간 2014.02.20.~2014.08.25.

○ 소요 예산: 14,303,000원정(14.303백만원정)

○ 방법

- 도내 110개 초등학교 대상 전수 조사
- 2012년, 2013년 2년간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
- 실태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정책 제언

○ 주요 연구 내용

- 연구 방향 설정 및 기초 조사
-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 통계 처리 및 결과 분석
- 설문 분석 결과에 따른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분석
- 제주어 보전 활동의 보완점, 지향점 제시

○ 성과 및 평가

- 초등학교에서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 결과 제시
- 초등학교에서의 제주어 보전 활동의 활성화,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초등학교에서의 제주어 보전 활동 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제언을 통해 제주어 효율적 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⑤ 사용자 중심의 제춇말사전 발간 방안

○ 목적

- 사용자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적절한 규모와 내용을 갖춘 제춇말사전 모델을 개발하여 사전 발간에 반영함으로써 제춇말 사용 분위기 조성, 제춇말 보전 기반 마련

○ 추진 기간: 2015.03.19.~2015.10.31.

○ 소요 예산: 15,000,000원정(15백만원정)

○ 방법

- 기간 방언사전 및 표준어 중심의 사전 검토
- 설문 조사를 통한 제춇말사전에 대한 요구 조사
- 사용자 중심의 제춇말 사전 발간 방안 및 절차 제시

○ 주요 연구 내용

- 기간 국어사전의 거시구조, 미시구조 분석
- 제춇말 대상 사전 및 타 지역 방언사전의 미시구조, 거시구조 분석과 비교
- 제춇말 사전 관련 요구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정책 제언

○ 성과 및 평가

- 기간 사전 검토·분석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제춇말 사전 발간 방안 및 절차 제시
- 사용자 중심의 제춇말사전 발간을 위한 형식적, 내용적 기반 마련

⑥ 제춧말 소멸 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연구

○ 목적

- 제춧말의 위기 정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
- 제춧말의 소멸 위기 단계 확인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와 정부의 언어정책에 활용

○ 추진 기간: 2015.03.20.~2015.12.20.

○ 소요 예산: 45,000,000원정(45백만원정)

○ 방법

- 연구 목적과 범위 규정
- 문헌 자료 분석
- 제춧말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실태 관련 설문 문항 설계
- 제주도민 대상 설문 조사
-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제춧말 진흥 정책 방향 제안

○ 주요 연구 내용

- 국내외의 언어 보전 정책
- 우리나라의 언어 진흥 정책
- 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제춧말의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 성과 및 평가

- 제춧말의 소멸 위기 정도를 4단계 ‘매우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진단
- 소멸 위기 정도 진단에 따른 제춧말의 진흥 정책 방향 제시
- 실증 조사에 의한 최초의 제춧말의 소멸 위기 정도 진단 연구

⑦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제주방언) 보존 방안(연구지원사업)

○ 목적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국외 소멸 위기 언어 보호 노력 사례 검토를 통한 효과적인 제주어 보존 방안 모색

○ 추진 기간: 2013.03.20.~2013.09.20.

○ 소요 예산: 10,000,000원정(10백만원정)

○ 방법

- 기존 문헌자료 검토,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 대한 워크숍 및 학술대회 참여, 소멸위기 언어가 사용되는 현장 방문 및 연구자 인터뷰를 통한 실증적 탐구

○ 주요 연구 내용

- 대륙별 사용 언어와 소멸위기 언어 현황의 비교 및 설명
- 소멸 위기 언어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의 선별적 고찰
- 타 소멸위기 언어의 언어 자료화 진행 방법 및 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교육적 노력 고찰
- 사례 탐구를 통해 제주어가 사용되는 물리적 환경, 언어적 환경, 이를 둘러싼 사회적 변인 이해 및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언어 자료화 방안 모색
- 사례 탐구를 통해 제주어를 실생활에 널리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 및 교육적 시사점 탐색
- 국제기구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 노력 고찰 및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강구

○ 성과 및 평가

- 외국 사례 및 국제적 연구 동향 파악 및 고찰을 통한 제주어 보존 방안을 ‘제주어 현황 및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 11개로 제시
- 외국 사례 및 국제적 연구 동향 파악 및 고찰을 통한 제주어 보존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제주어 보존 관련 담론 영역 확장

□ 7-6-2. 제주어 관련 대중화 자료 개발

① 『제주어와 영어로 걷는 제주 이야기』 발간

○ 목적

- 제주도민들에 대한 제주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 습득 기회 제공
- 국내외 방문객들의 제주어 체험 자료 제공

○ 추진 기간: 2012.04.20.~2012.09.10.

○ 소요 예산: 22,000,000원정(22백만원정)

○ 방법

- 제주어 대화 원고 집필
- 외부 필자에 의한 영어 번역 및 감수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의 특징, 실태 소개 제주어 대화문
- 제주의 자연, 신화·전설, 관광, 생활, 전통문화, 역사 등에 대한 소개 대화문

○ 성과 및 평가

- 제주어 배우기, 삼다와 삼무, 신화와 전설, 관광, 생활, 전통문화, 역사 등 7개 장으로 구성된 책자 발간·보급
- 제주어와 영어 등 2개 언어로 제주 소개 대화문을 제시한 최초 도서
- 민간단체 등에서 제주어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 제주어 사용의 일상화에 기여
- 국제회의 참가자, 관광객 등에 대한 제주 홍보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제주어 위상 강화에 기여

② 제주 이주민 대상 제주어 책자 발간

○ 목적

- 제주 이주민의 제주 사회 이해 지원
- 제주의 언어, 문화, 풍속과 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주어 대화에 담은 책자의 발간·보급

○ 추진 기간: 2016.02.22.~2016.11.30.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소요 예산: 40,300,000원정(40.3백만원정)

○ 방법

- 제주와 제주에서의 일상생활 관련 주제 중심의 제주어 대화문 구성
- 제주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 중심의 제주어 대화문 구성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의 언어, 문화, 풍속과 관련된 제주어 대화문 작성
- 제주어 대화문 이해에 필요한 제주어, 제주 문화 등에 대한 설명문 작성
- 제주어 대화문 내용 녹음 및 CD 제작

○ 성과 및 평가

- 제주 이주민 대상 제주어 책자 발간·보급
- 제주 이주민의 제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심화에 기여
- 제주 이주민의 제주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기여

□ 7-6-3.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① ‘제주어 표기법’ 제정

○ 목적

- 제주어 화자들에게 적절한 제주어 표기 방법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쓰기 측면의 활발한 의사소통 환경 제공
- 제주어 사용의 다변화, 적극적인 사용 및 보전 발판 마련

○ 추진 기간

- 1차: 2012.06.28.~2012.12.31.
- 2차: 2013.01.24.~2013.12.30.

○ 소요 예산

- 1차(2012.06.28.~2012.12.31.): 9,110,000원정(9.11백만원정)
- 2차(2012.01.24.~2012.12.30.): 39,740,000원정(39.74백만원정)

○ 방법

- 전문가 집단의 공동 연구
- 자문회의를 통한 내용 수정 및 보완
- 도민 설명회를 통한 내용 수정 및 보완
-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승인

○ 주요 연구 내용

- 총칙
- 제주어 표기법 세부 내용
- 부칙

○ 성과 및 평가

- ‘총칙’ 등 총 4장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주어 표기법’ 제정 및 도서 발간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2014.07.18)로 공포
- 제주어 쓰기 의사소통 환경 제공
- 각종 간행물에 대한 제주어 표기 준거 제공
- 제주어 교육의 기반 조성

② 『제주어 표기법 해설』 발간

○ 목적

- 제주어 표기법 제정 배경과 기본적인 원리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어 표기법’ 사용 확산 도모

○ 추진 기간: 2014.02.27.~2014.11.30.

○ 소요 예산: 51,000,000원정(51백만원정)

○ 방법

- 제주어 표기법 목차에 따라 전공 분야 학자 집필
- 집필, 토론, 세미나 등 협의 과정을 통해 통합 정리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 표기법’ 내용 체제에 따른 표기 원리
- ‘제주어 표기법’ 내용 체제에 따른 표기 사례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성과 및 평가

- ‘제주어 표기법’의 내용 및 체제에 기반을 둔 『제주어 표기법 해설』 발간 및 보급
-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연계 사업으로 ‘제주어 표기법’의 원리 및 표기 사례 소개를 통한 일상적 사용 기반 조성
- 제주어 교육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제주어 표기법 사용 확산 기반 마련

③ 제춧말 개설서 발간

○ 목적

- 제춧말 이해와 적극적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자료 개발·보급
- 제주 정착 이주민에 대한 제춧말 학습 자료 제공

○ 추진 기간: 2015.03.19.~2015.12.20.

○ 소요 예산: 47,000,000원정(47백만원정)

○ 방법

- 현행 학교 문법의 열개를 토대로 연구진의 세부 전공에 기반을 둔 분담 집필
- 연구진 회의를 통한 난이도 및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협의 결과 반영

○ 주요 연구 내용

- 제춧말 음운론
- 제춧말 어휘론
- 제춧말 의미론
- 제춧말 형태론
- 제춧말 통사론

○ 성과 및 평가

- ‘길잡이’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제춧말 개설서 『제춧말의 이해』 발간·보급
- 독자들에게 친근한 학교문법의 틀에서 기술한 제춧말 개설서 발간
- 제주어 교육 자료 및 제춧말 학습 수요자의 자발적 학습 자료로 제공됨으로써 제춧말 이해 및 보전 가능성 제고에 기여

□ 7-6-4. 제주어 교육

① 제주어 교육 강좌 운영

○ 목적

- 제주어 교육을 통한 제주어 상용화 기반 조성
- 제주어 보전 가능성 제고
- 제주 문화의 정체성 계승

○ 추진 기간: 2016.02.22.~2016.11.30.

○ 소요 예산: 33,100,000원정(33.1백만원)

○ 참석 인원

- 1차 제주어 교육 강좌: 40명
- 2차 제주어 교육 강좌: 44명

○ 방법

- 제주어 전공 영역별 강사 위촉에 의한 강의
- 제주어 표기법, 말소리, 문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4시간 교육의 연중 2회 시행
- 대면 교육, 집합 교육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 표기법 강의 및 토론
- 제주어의 말소리와 문법 강의 및 토론

○ 성과 및 평가

- 2회 교육 마무리
- 제주어에 대한 체계적 이해 확대
- 제주어 사용자 수 증가에 의한 보전 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 제주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7-6-5. 제주어 순수 연구

①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 목적

-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제주방언 조사를 기점으로 하여 2013년까지 약 70년간 제주방언 연구물을 발굴·수집하여 DB 구축의 토대 마련
- 제주방언의 연구 방법과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국어 다른 지역 방언 간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제주방언의 독자성과 보편성 규명의 단초 마련

○ 추진 기간: 2014.02.27.~2014.11.30.

○ 소요 예산: 49,000,000원정(49백만원정)

○ 방법

- 제주방언 연구 주제별 전공 분야 학자 집필
- 집필, 토론, 세미나 등 협의 과정을 통해 통합 정리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방언 연구 개관
- 제주방언 음운론 연구사
- 제주방언 형태론 연구사
- 제주방언 통사론 연구사
- 제주방언 어휘론 연구사
- 제주방언 정책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성과 및 평가

- 근현대(일제강점기~현재) 제주방언 연구사를 7개 주제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제주방언 연구 논저 목록을 부록으로 첨부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발간
- 근현대(일제강점기~현재) 제주방언 연구 집대성에 기여
- 제주방언의 위상 정립과 언어학적 가치 확인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언어 보전·활용 정책에 활용 기반 마련

②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 목적

- ‘제주어 표기법’의 제줏말 자모 42개에 대한 음가 측정
- 제줏말 자모 42개의 실제 발음 조사 결과 분석에 의한 효과적인 자모 배당 방안 마련

○ 추진 기간: 2015.03.15.~2015.11.30.

○ 소요 예산: 33,000,000원정(33백만원정)

○ 방법

- 제줏말 자모 42자의 실제 발음 조사
- 음성 분석기를 활용한 음성 분석
-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 내용

- 조사 지역 선정, 제보자 선정, 조사 항목 선정
- 제줏말 자모 42개 대상 발음 조사
- 음성 조사 결과 분석
- 음성 분석과 자모 대응의 시사점 정리

○ 성과 및 평가

- 제주어 자모의 실제 음성 분석 결과에 의한 효과적 자모 배당 방안 제시
- 제주어 표기와 관련하여 실제 음성 분석에 의한 최적의 자모 배당 방안 마련
- 제주어 말소리 표기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계기 마련

③ 『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 발간 (연구지원사업)

○ 목적

- 제주 방언의 통사론 기술 방법 정립
- 제주 방언 통사론의 체계적 분석·정리
- 제주 방언과 국어(표준어) 비교의 준거 마련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추진 기간: 2014.05.29.~2014.11.10.
- 소요 예산: 3,000,000원정(3백만원정)
- 방법
 - 제주 방언의 언어 형태, 배열 탐색
 - 제주 방언의 사용 층위 및 정신 작용 층위 탐색
- 주요 연구 내용
 - 조사 부류
 - 용어의 활용어미: 서술 서법의 경우
 - 의문 서법의 종결 어미
 - 감탄·서술 서법, 그리고 그 외의 경우
 - 관형사 및 부사 부류
- 성과 및 평가
 - 제주 방언 통사론 분야를 체계적인 틀에 의해 포괄적으로 기술한 연구서 『제주 방언의 통사 기술과 설명-기본구문의 기능범주 분석-』 발간
 - 제주 방언 통사론 연구의 지평 개척
 - 제주방언 통사론 연구의 지향점 제시

□ 7-6-6.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 기간 중 세미나 1회, 토론회 1회 개최
-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실적을 주제별로 제시

①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 목적
 - 제주어 표기법 제정 필요성 대한 전문가 집단의 토론 기회 마련
 - 제주어 표기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개방적 의견 수렴

○ 추진 기간: 2012.12.26.

○ 소요 예산: 3,740,000원정(3.74백만원정)

○ 참석 인원 : 70명

○ 사업 방법

- 주제 발표 및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
-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절차
- 제주어 표기법 마련과 관련한 몇 문제

○ 성과 및 평가

- 세미나 개최
- 제주어 표기법 제정 필요성 및 지향점 확인
- 제주어 표기법 제정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 계기 마련

②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 목적

- 제주어 보전 방안 및 전략 도출을 위해 개방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타 언어의 보전 정책 사례를 통해 제주어 사용의 활성화 방안모색 및 보전 전략 수립

○ 추진 기간: 2013.10.08.

○ 소요 예산: 5,080,000원정(5.08백만원정)

○ 참석 인원 : 80명

II.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의 성과와 시사점

○ 방법

- 주제 발표(3인) 및 지정 토론(5인) 및 종합 토론

○ 주요 연구 내용

- 타 언어 사례를 통해 본 제주어 활성화 방안
- 소멸위기의 제주어, 왜 국가 어젠다가 되어야 하는가
- 제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법

○ 성과 및 평가

- 세미나 개최
- 제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마련 및 보전 방안 도출
- 제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성과 보전 방안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 계기 마련

③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표기법 해설

○ 목적

-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기회 마련
-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개방적 기회 마련

○ 추진 기간: 2014.08.12.

○ 소요 예산: 10,000,000원정(10백만원정)

○ 참석 인원 : 130명

○ 방법

- 주제 발표 및 질의 응답
- 주제 발표 및 자유 토론
- 주제 발표 전체 내용에 대한 개별 토론 및 종합 토론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어 표기법 해설
-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성과 및 평가

- 세미나 개최
- 제주어 표기법 사용 확산 기회 제공
- 제주방언 연구 현황 검토 및 향후 과제 도출
- 제주어 표기법의 일상적 사용 기반 마련
- 제주방언 연구의 활성화 기반 마련

④ 방언 보전 활동의 전국 동향과 전망

○ 목적

- 국가 차원의 방언 보전 정책 이해의 장 마련
- 방언 보전 활동의 전국 동향 교환
- 방언 보전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방언의 가치 및 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계기 마련

○ 추진 기간: 2014.11.27.

○ 소요 예산: 7,000,000원정(7백만원정)

○ 참석 인원 : 50명

○ 방법

- 주제 발표(7인) 및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

○ 주요 연구 내용

- 국어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 현황(국립국어원의 지역어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중심)
- 제주방언의 보전정책 현황
- 경남방언 조사와 방언사전 편찬(사단법인 경남방언보존연구회 활동 중심)
- 강릉사투리보존회 활동 소개
- 제주어보전회 활동 상황 및 제주어 보전 방향
- 제주문화예술계와 제주방송에서의 제주어
- 학교 현장에서의 제주어 보전 활동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

○ 성과 및 평가

- 토론회 개최
- 방언 보전 전략 공유를 통한 제주 방언 보전 전략 수립의 지평 확대
- 국내 방언 보전 단체 간 교류 기회 마련
- 방언 보전 전략의 전국적 공유 기회 마련

⑤ 제주 방언사전의 역사와 방향

○ 목적

- 향후 제주 방언사전 발간을 전제로 기간(既刊) 제주 방언사전 검토 및 지향점 도출
- 사용자 요구를 고려한 제주 방언사전 발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추진 기간: 2016.10.06.

○ 소요 예산: 7,000,000원정(7백만원정)

○ 참석 인원 : 150명

○ 방법

- 주제 발표(3인),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 주요 연구 내용

- 제주 방언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 제주 방언사전의 표제어와 발음, 형태, 뜻풀이 -제주 방언사전의 역사·방향과 관련하여-
- 제주 방언사전이 지향해야 할 가치

○ 성과 및 평가

- 제주방언 사전의 발간 필요성 확인
- 제주방언 사전 발간을 전제로 한 지향점 논의
- 새로운 제주 방언사전에 대한 사용자 요구 수렴
- 새로운 제주 방언사전의 요건에 대한 개방적 논의의 장 마련

Ⅲ. 최근 국내·외 지역학 사례 분석

1. 국내 지역학 사례 분석

1-1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유형

○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은 중부권을 비롯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각 지역마다 설립되고 있음.

권역	지역학	연구기관	설립	소속기관	유형
중부권	서울학	서울학연구소	1993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연구소
	원주학	매지학술연구소	1999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대학연구소
	인천학	인천학연구원	2002	인천시립대학교	대학연구소
	강원학	강원학연구센터	2003	강원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경기학	경기학연구실	2005	경기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충북학	충원문화연구소	1997	충북대학교	대학연구소
		충북학연구소	1999	충북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충청학	충청학연구소	2001	한남대학교	대학연구소
		충청문화연구소	2003	충남대학교	대학연구소
		충청학연구부	200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전학	대전학연구회	2004	지역연구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주학	공주학연구원	2014	공주대학교	대학연구소
영남권	영남학	영남문화연구원	2001	경북대학교	대학연구소
	울릉학	독도·울릉학연구소	2001	경주대학교	대학연구소
	부산학	부산학센터	2002	신라대학교	대학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	2003	부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학	대구경북학센터	2005	대구경북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학회	2012	지역연구단체	지역연구단체
	울산학	울산학연구센터	2005	울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경남학	경남학연구팀	2005	경남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호남권	전북학	전라문화연구소	1997	전북대학교	대학연구소
	호남학	호남학연구원	1963	전남대학교	대학연구소
	전주학	전주역사실	2002	전주역사박물관	지방자치단체
	익산학	프라임사업단	—	원광대학교	대학연구소
제주권	제주학	제주학회	1997	지역연구단체	지역연구단체
		제주학연구소	2004	지역연구단체	지역연구단체

-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학 연구기관의 설립과 활동이 확대된 배경에는 지역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 외부적으로는 20세기 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거대 흐름 속에서 지역 공동체 문화 전통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공동체와 문화전통 연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였음.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민의 정체성 및 문화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지역학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엔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음.
- 국내 지역학 연구는 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를 공간 범주로 하여 연구되어 왔음. 한국사회에서 지방행정조직이 수립된 이래 대개 그 공간 범주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에서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었음.
- 전통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행정단위의 기능을 유지해왔던 서울, 인천, 부산 등과 같은 주요 도시들이 국내 지역학을 선도해왔으나, 21세기 접어들면서는 기초 자치단체 나름의 전통적인 도시 위상 및 지역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
- 현재 국내 지역학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네 부류로 나뉘볼 수 있음. 첫째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지역의 (발전·정책) 연구원 산하 연구기관, 둘째는 지역 대학 내 부설연구소, 셋째는 문화(예술)재단 산하 연구기관, 넷째는 지역 연구 단체 등임.
-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역사·문화·민속 등 종합적 연구, 문화원형 발굴과 활용방안, 문화정책 개발과 문화경쟁력 향상 등의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도시학과 문화정책 개발 등에 비중을 두고 있음.
- 기능으로는 지역 자료센터 운영, 시(도)사 편찬 기능 수행, 지역 관련 용역 사업 수행, 연구문헌 목록집 발간, 연구논총 및 기획연구물 발간,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음.

4)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2012~2016)』, 20쪽.

- 지역학 범주 설정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쟁적이나, 지역의 다층적 로컬리티를 밝혀냄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및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려고 함.

1-2 중부권-서울학 연구소⁵⁾

- 운영주체 : 서울시립대학교
- 설립연도 : 1993년
- 설립목적 : 1990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서울의 뿌리를 찾고 문화의 동질성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국내 최초로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였음. 서울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연구지원과 학술행사를 통해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 서울시 행정당국에 역사·문화·행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서울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애향심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
 - 서울 지역의 고고학 및 한국 고대사 ~ 근현대사 연구.
 - 서울의 건축, 도시계획, 도시조직, 교통수단, 도시경관, 조경 연구.
 - 조선시대 시문학, 근현대 서울을 소재로 한 문학 연구.
 - 서울 방언 연구.
 - 서울의 가족, 신분, 인구, 사회조직 연구.
 - 서울에서 유행한 음악과 연희, 서울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연구.
 - 서울지역의 민속, 통과례, 세시풍속 연구.
 - 조선시대 고지도, 근현대 서울 지도 및 지리 연구.
 - 서울의 행정편제, 행정조직, 운영체계 연구.
 - 서울의 재정, 상공인, 상공업, 경제조직, 경제운영방식 연구.
- 주요 연구 성과
 - 공개 특강, 교실 강의 및 현장탐방 실시 등 서울시민 문화대학 운영.
 - 매년 소수의 연구자에게 소정의 연구비 지급 등 연구지원 사업 수행.

5)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2012~2016)』, 22쪽.

- 총서, 연구저널, 연구총서, 교양총서, 사료총서, 번역총서, 미디어총서, 목록집, 색인집 등 발간.
- 탐사팀을 조직하여 국내외 산재한 서울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등 사료탐사 수행.
-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 정례발표회, 서울학 세미나, 대담 등 학술행사 개최.
- 학술용역 수행.
- 역사자료 발굴 및 정보자료실 운영.

○ 향후 계획

- 예산지원 방식의 변화로 인한 연구원 업무 재조정.
- 연구소 공간 재배치(연구공간, 회의 공간 분리).
- 대학의 활성화 사업 및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진행.

1-3 충청권-공주학 연구원⁶⁾

○ 운영주체 : 공주대학교

○ 설립연도 : 2014년 4월

- 설립목적 : 공주대학교는 2014년 공주시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공주대학교 내 공주학 연구원을 설치하였으며, 1년 후인 2015년 5월 공주시에서 지원한 공주학연구원 건물 개관함. 이를 토대로 공주학의 자료 정리, 공주학 연구, 그리고 공주학 교육 센터로서 활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대학의 전문가와 시행정, 시민의 중간에서 서로가 갖는 힘과 역할을 조정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 연구 분야 :

- 공주학 아카이브(Archive)의 구축 및 공주학 관련 역사 문화 자원의 조사와 연구.

6)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http://igs.kongju.ac.kr/>) 참조함.

- 공주 지역 정책 개발, 문화유산 활용 및 문화예술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공주 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들의 교육 문화 활동 지원.
- 공주 지역 관광자원 개발, 지역 축제, 국제 시민교류 등 상호 협력 지원.
- 공주 지역 생태,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 공주시 및 지역 소재 기관 단체에 대한 자문.
- 교내외 연구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
- 그밖에 공주시와 본 대학교의 공동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주요 연구 성과 :

- 지금까지 생산된 공주의 각종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대 한뉴스 컬렉션(정치, 사회/경제, 문화), 공주 관련 고신문 자료, 공주관련 문헌 자료, 공주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공주관련 사진 자료 등 수집.
- 학술연구-백제문화제 주제관 운영에 따른 관련 자료 연구용역 (2015.6.1.~8.30),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주시 사업계획 수립(2015.5.15.~6.23), 마곡사 오층석탑 상륜(풍마동)조사 연구 용역(2014.8. ~2014. 12), 제60회 백제문화제 홍보방송 및 프로그램제작 결과보고서(2014.9.1.~2014.10.30.) 등.
- 시민교육-공주학 광장(현재까지 15회 실시), 공주학 포럼(현재까지 9회 실시), 공주학 연구투어(현재까지 8회 실시).

○ 향후 계획

- 공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집적시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존, 생성-아직 기록되지 않는 공주의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으로, 공주의 풍부한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DB구축 및 지역 자료 확충, 공주 관련 최근 미간행 자료의 조사와 수집, 구술을 통한 공주에 대한 기억의 기록화 사업, 시민기록연구자 양성.
- 공주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교육,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조사 연구-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 비전 제시, 교양서적 및 기획연구 총서 발간, 홍보,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과 문화상품 개발, 금강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금강수변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 또한 공주의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공주대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 공주 연구.
- 공주가 키우는 시민, 시민이 만드는 공주(공주학 아카데미)-공주학 교재 개발 및 아카데미 운영,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계획,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대중화 사업 계획, 공주 지역 리더를 위한 공주학 지도자 과정 운영, 공주학 확산을 위한 공주학 운동.

1-4 영남권-대구경북학연구센터⁷⁾

- 운영주체 : 대구경북연구원
- 설립연도 : 2004년
- 설립목적 :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지향적인 대구경북학을 정립하고, 대구경북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주민의식을 함양하며, 대구경북시·도민의 정신문화 재조명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
- 주요 연구 분야
 - 대구 경북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개발, 민속 등 연구.
 -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에 관한 연구.
 - 대구 경북의 전통성과 역동성 탐구.
 - 대구경북의 지역문제에 대한 조사·평가·분석.
 - 대구경북학 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
- 주요 연구 성과
 - 주민의식 조사사업.
 - 대구경북학문 수도 조성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및 세미나 개최.
 - 대구경북학연구센터 연구지원 논문 공모사업 지원.
 - 대구경북지역 대학원생 학술모임 연구지원 사업.
 - 대구경북지역 대학원생 연구논문 제안 공모사업 지원.
 - 학술지 및 분야별 전문 간행물의 발간사업.
 - 대구경북 지역학 연구센터 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학술발표 및 과제별 토론회 개최.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7) 대구경북학연구센터는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http://www.dgi.re.kr/>) 참조함.

○ 향후 계획

- 대구경북의 지역주민의식 및 정체성 조사 연구.
- 대구경북의 지식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학 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 확대, 영남지역 지역학 연구센터 간의 교류협력 확대, 대구경북지역 문화인과 교류협력 확대, 대구경북지역학 연구의 발족을 위한 지역학 연구 학자간의 교류 확대.

1-5 호남권-호남학연구원⁸⁾

○ 운영주체 : 전남대학교

○ 설립연도 : 1963년

- 설립목적 : 한국의 전통문화, 특히 호남지방의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년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했던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화 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는 목적 아래 2005년 설립된 ‘호남학연구단’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기관임.

○ 주요 연구 분야 :

- 연구분야-문화예술, 역사사상, 공간 지리.
- 학술기획분야-학술연구기획, 네트워크 관리, 연구서비스.
- 교육사업분야-협동과정개발, 교재개발, <감성문화아카데미> 운영.
- 감성문화자원개발분야-한국감성문화자원개발센터 준비.
- 편집분야-호남문화연구 발간, 감성저널 발간.

○ 주요 연구 성과 :

- 『호남문화연구』 발간.
- 호남문화원형-영상갤러리, 호남문화 DB, 이러닝, 애니메이션.
- 학문의 어느 특정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문학은 물론 사회, 경제, 농 공학 등 모든 분야를 통섭하며 호남에 대한 담론을 한 자리에 모으고, 또 이를 토대로 부단히 새로운 담론을 창출함.

8) 호남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gamsung.org/>) 참조함.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 번역사업 등을 수행.

○ 향후 계획

- 호남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전통문화의 조사·연구.
- 문화예술정책 및 비교 문화 연구.
- 호남학 자료수집.
- 호남학 관련 연구논문집의 간행.
- 호남학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호남학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업.

2. 국외 지역학 사례 분석

2-1 일본

가. 일본 지역학의 등장 배경

- 1970년대까지는 지역연구와 지역과학 분야가 많았지만 1980년대에는 학교교육 분야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사회교육 분야가 증가하였음.
- 高野岳彦(2008)은 지역교재나 지역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교육 분야의 증가와 함께 현민(縣民)대학과 같은 『自地域』을 배우는 생애학습프로그램이나 지역 만들기에 대한 주민참가 추세가 사회교육 분야의 증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함.
-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역학이 보다 실천적인 경제계나 지방행정 관련 잡지에도 등장하게 되어 그런 흐름 속에서 『自地域學』에 대한 소개나 논고가 급증하여 왔음.
- 広瀬隆人(2005)는 사회정세의 변화와 지역학과의 관계성을 지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버블경기에 따른 지역

개발, 특히 1987년에 만들어진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으로 인해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개발붐의 여파를 들 수 있음.

- 그 후 버블경기의 붕괴와 함께 지방재정을 압박하게 되면서 지방은 폐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의식만이 남게 되었음.
-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의 풍부함과 좋은 점 등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반발과 저항으로서 출발하였음.
- 이와 같이 지역학의 주된 대상 분야는 시대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지방에서의 사회적 배경 변화와 그것에 따른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면서 지역학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음.

나. 일본 지역학의 개념⁹⁾

- 현재 일본의 각 지역에서는 아오모리학(青森学), 에도도쿄학(江戸東京学), 오사카학(大阪學) 등 지역 명칭을 붙여서 지역학이라고 부르고 있음. 지역학은 특정의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그 지역의 역사나 지리, 경제, 문화 등을 종합적,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를 말함.
-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역에 관해 주민이나 대학 등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상(事象)을 조사·연구하고, 학습의 대상으로서 실제에 마을을 걸으면서 거기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지역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의 자립화 요청이나 지역분권의 진전, 시(市)정(町)촌(村)의 합병, 주민자치 영역의 확대와 함께 개성화를 지향하기 위해 지역 만들기라는 틀 속에서 지역학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다. 일본 지역학의 특성

- 지역학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목적이나 실천되는 내용은

9)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2012~2016)』 참조.

다양하고 이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함. 그러나 어떤 일정의 시점에서 분류한다면 그러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지역이라는 필드를 다양한 학문영역으로부터 연구 부분을 추가하여 각 지역의 주민자신이 그 지역을 배우거나 더욱이 지역 만들기에 활용하게 하는 활동적·운동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고 함.
- 이러한 틀 속에서 지역학을 3개 분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대학 등 연구자의 조사 연구에 의해 지역학을 구축하는 것임(지역연구로서의 지역학). 둘째, 행정, 대학, NPO, 시민단체 등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풍습, 전통, 예능 등 각 분야에 대한 강좌를 개강하고, 시민이 학습을 통해 지역이해를 추진하는 것임(지역학습으로서의 지역학). 셋째, 학습 등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이나 단체 상호간의 연대를 깊게 하거나 주민이나 단체 등이 지역 만들기에 참가하게 하는 것임(활동 운동으로서의 지역학).
- 최근에는 보다 나은 지역 만들기를 지향한 지역검정(ご当地検定), 에코투어리즘(ecotourisme), 에코뮤지엄(ecomuseum) 등 지역학을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다채로운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표 III-1> 지역학의 대상 종류

구분	지역주민	학생	연구자·대학	행정	산업계·NPO
연구	지역의 유지 (향토역사가)의 연구 활동	대학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에 의한 연구 활동	대학 등의 교원의 연구 활동	자치체사의 작성, 향토 연구센터 등의 연구 활동	
학습	지역이해·향토 학습(생애학습 분야가 많음)	대학교육의 일환으로서의 과목수강	지역에 관한 과목·공개강좌 등 학습기회의 제공	지역에 관한 공개강좌 등 학습기회 제공	
지역 만들기	· 대학시설을 활용한 공개강좌·이벤트 등 개최, 도서관시설의 개방, 전문분야(지역학) 연구의 제공. · 학생에 대해서는 연구자(세미나 등) 단위에서 조사·연구 활동이나 마을 만들기 활동 등에 참가.			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에 의해 지역·문화진흥을 도모	지역검정 등의 지역에 관한 검정시험 실시 등

라. 일본 지역학 운영 현황¹⁰⁾

- 최근 요코하마학(横浜学), 야마나시학(山梨学), 나가사키(長崎学) 등 지역의 이름을 붙인 지역학에 대한 연구 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 산업, 자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이나 가능성을 발굴하려는 것임.
-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실시 주체는 현(縣)이나 시정촌의 행정,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NPO 등의 시민단체 등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이들 지역학은 독자의 목적이나 방법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지역학은 「〇〇縣民大學」이나 「△△시민칼리지」라고 하는 명칭의 지역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이들 실시(추진)단체의 대부분이 행정기관 또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며, 대상이 되는 주민과 참가자의 모집이나 활동 내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 III-2> 일본의 지역학 운영 현황

지역	실시(추진) 단체				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불명)	
北海道	7	2	2		11
青森県	1	2	2	1	6
岩手県	3	1	5		9
宮城県	5	2			7
秋田県	2				2
山形県	15	8	5		28
福島県			2		2
茨城県	1				1
栃木県	7	3	1		11
群馬県	2				2
埼玉県	7	1	3	1	12
千葉県	2	1			3
東京都	3	6	8	1	18
神奈川県	2		7		9
新潟県	12		4		16

10)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2012~2016)』 참조.

Ⅲ. 최근 국내·외 지역학 사례 분석

지역	실시(추진) 단체				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불명)	
富山県	1				1
石川県	1	4	1		6
福井県	1		1		2
山梨県	2	2			4
長野県			5		5
岐阜県	4	1	4		9
静岡県	4		7		11
愛知県	2				2
三重県	3		2		5
滋賀県	4				4
京都府	1	4	1		6
大阪府	4		1	1	6
兵庫県	8	1	13		22
奈良県			3		3
和歌山県	6		1		7
鳥取県	1		3		4
島根県	2				2
広島県	1		3		4
徳島県	4		1		5
香川県		1			1
愛媛県	4		3		7
福岡県			2		2
佐賀県	2				2
長崎県	3	5	5		13
大分県	1	2			3
宮崎県	1				1
鹿児島県		1			1
沖縄県			2		2
계	129	47	97	4	277

자료 : (財)山形県生涯学習文化財団(2000),『全国地域学ハンドブック』.

彩の国さいたま人づくり広域連合(2009),『平成20年度行政課題研究「地域学の可能性」』.

公益財団法人山形県生涯学習文化財団(2014),『山形学—山形における地域学の成立と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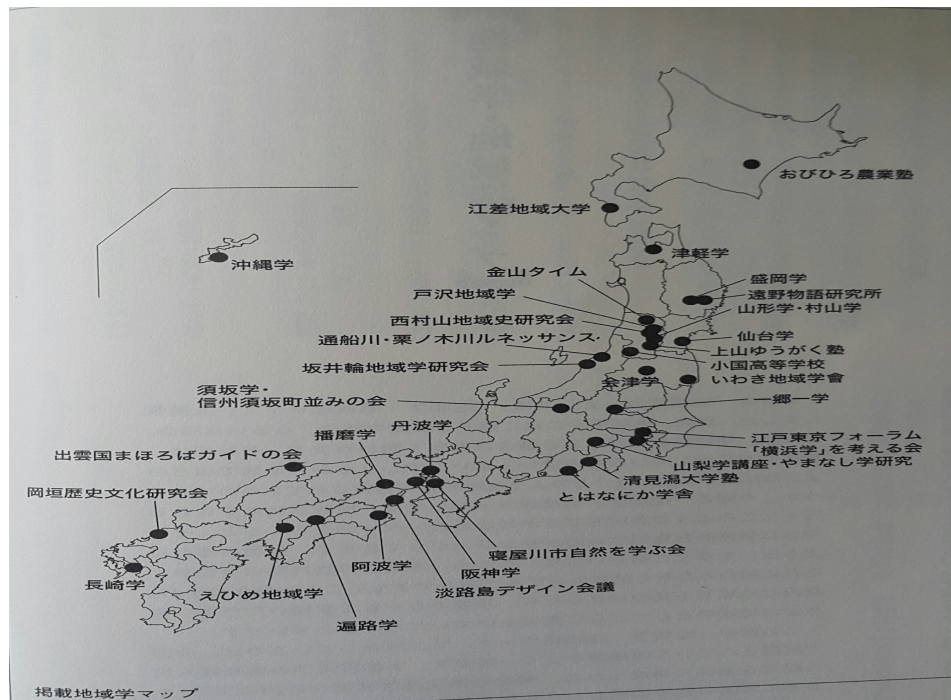
마. 일본 지역학의 사례

- 구술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기초로 지역학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표 III-3> 일본의 지역학 사례¹¹⁾

번호	지역	명칭	실시(추진) 단체	비고
1	山形県	야마가타학 (山形學)	公益財団法人山形県生涯學習文化財団 山形県生涯學習センター	존속
2	山形県	도호쿠학 (東北學)	東北芸術工科大学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존속
3	東京都	에도도쿄학 (江戸東京學)	一般財団法人住宅綜合研究財團	존속
4	神奈川県	요코하마학 (横浜學)	横浜학을 생각하는 모임 横浜学連絡協議會 (財)はまぎん産業文化振興財団	해산
5	埼玉県	사이타마학 (埼玉學)	公益財団法人 いきいき埼玉 埼玉県県民活動総合センター	존속
6	愛知県	나고야학 (名古屋學)	名古屋市教育委員会事務局生涯學習部 生涯學習課	존속
7	京都府	교토학 (京都學)	公益財団法人京都市生涯學習振興財団京都市生涯學習センター	존속
8	大阪府	오사카학 (大阪學)	大阪府生活文化部文化課 一般財団法人大阪市教育振興公社 大阪市立総合生涯學習センター	불명
9	兵庫県	효고학 (兵庫學)	兵庫県民生活課生涯學習	존속
10	兵庫県	이타미학 (伊丹學)	兵庫県伊丹市役所	해산

<그림 III-1> 일본의 지역학 지도



11) 2016년 7~8월 현지조사에 의거함.

사례 1

지역	山形県	명칭	야마가다(山形)학
설립년도	1990년	현존여부	존속
실시단체	財団法人山形県生涯学習文化財団 山形県生涯学習センター		
주소	山形県 山形市 緑町 1-2-36		
설립목적	○ 야마가다((山形)에 관한 지역연구를 기본으로 해서 현민(縣民)이 스스로 지역에 대해 배우는(지역을 안다) 것을 통해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고(지역을 인정함), 게다가 지역의 미래상을 묘사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고 추진력을 추구하는데 있음.		
활동내용	○ 야마가다(山形)학은 야마가다(山形)현의 생애학습의 일환으로서 山形県生涯学習센터의 선도적인 강좌로서 구성됨. ○ 「山形學」강좌 : 山形の 특징을 다면적으로 다루고 자기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겨냥한 선도적 강좌. ○ 「山形學」심포지엄 : 縣民 참가의 山形學의 보급계발을 도모하기 위한 심포지엄. ○ 「山形學」지역연계강좌 : 市・町・村 등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지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강좌. ○ 전국 지역학 서미트 사업 : 縣 内外에서 지역학을 실시하고 있는 市・町・村・단체 등과 연계해서 지역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사업.		
간행물	○ 홍보지 : 「遊學山形」. ○ 신아르카디아(arcadia)叢書 : 「山形の山々」「母なる川・最上川」 등. ○ 遊學館 북스 : 「山形の先達者1」「時代をひらく農」 외 5권. ○ 「山形學」심포지엄 보고서 : 「圧内の景観とくらし」「上杉鷹山の山形学」 외 3권. ○ 「山形学」講座 : 「地域から世界へ-山形のモノづくりを通して」「地域学が担うもの」「山形学-山形における地域学の成立と展開」.		
현지조사	2016년 8월 2일(화) 財団法人山形県生涯学習文化財団 山形県生涯学習センター 佐藤久一(学習振興部長), 木あすか(学習振興主任)		
「祈りにみる山形」が山形に關する事物物及び山形縣の歴史・文化・自然・産業・教育・経済・社会・政治・行政・教育・文化・芸術・スポーツ・健康・福祉・環境・国際交流・海外展開			

사례 2

지역	山形県	명칭	도호쿠(東北)학
설립년도	1999년	현존여부	존속
실시단체	東北芸術工科大学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주소	山形県 山形市 上桜田 200		
설립목적	○ 1994년 4월 동북(東北)에 묻힌 역사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에 뿌리내리면서도 동시에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새로운 문화상을 모색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설립됨. ○ 도호쿠(東北)야말로 일본에 남겨진 최후의 자연-어머니의 대지임. 현대 문명의 잘못을 극복한 인간의 존엄을 되돌리는 싸움의 울타리라고 설립·선언하고 있음.		
활동내용	○ 시민·연구자와의 교류거점 : 조사·연구(자주/공동), 「季刊東北學」, 「眞壁仁研究」의 편집·발행, 심포지엄·강연회의 개최, 문헌·영상의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연구자·연구기관의 네트워크 만들기. ○ 지역사회 활성화에 공헌 : 수탁연구와 관련된 조사·연구, 세미나 개최. ○ 지역시민에 열린 장소 : 공개강좌의 개최, 민속영상의 상영회, 「東北文化友の会」의 운영. ○ 연구 성과의 대학 교육에의 환원 : 연구 성과를 대학의 학부·대학원 연구에 환원.		
간행물	○ 『東北學』, 『季刊東北學』, 『別冊東北學』, 『まんだら』 등을 간행 특히 「東北文化友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보급 활동을 통해 2005년에는 지역지인 『会津学』 『村山学』 『仙台学』 『盛岡学』 『つ津軽学』 등을 간행.		
현지조사	2016년 8월 3일(수) 東北芸術工科大学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竹原万雄(東北大学), 蛭原一平(東北大学)		

地域学

地域学のいま

地域学を生きる思想

内山 節・赤坂徳雄・田口洋美

[地域学・地域誌マップ]

全国37の地域学・地域誌の紹介

北川ワラム
中野正和
新域学美穂
金丸弘美
廣瀬隆大
田嶋由美穂
鈴木 隆
森 繁茂
四野立樹
稻川健一
稻谷一希
橋本克彦
高 光敏
安井清子
中村生雄
増川宏一
古田隆彦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季刊東北学

第六号

2016年冬

地域学

地域誌のさらなるあゆみ

[編集 会]

そして地域誌は生まれた

杉山隆子／滝沢真喜子
千賀由香／斎藤由美
横山英子／飯田幹子
赤城真穂

[インタビュー]

「あるくみる きく」が通じたもの

田口洋美

[エッセイ]

地域学／吉岡良行 地域学／斎藤博昭
地域学／菊池正浩 地域学／松田十樹
地域学／高野公男

[レポート]

地域学読者セミナー参加記
岸本誠司
論文生はるばる紀行報告
伊藤源治・古藤かおり・飯田幹子

[東北学通信]

境界に生きる女たち
李善愛

<通 覧>

池上冬樹 斎藤源治 伊藤清彦 本村達夫
本田久市 森隆雄 飯田幹子

사례 3

지역	埼玉県	명칭	사이타마(埼玉)학
설립년도	1992년	현존여부	해산(1995년)
설시단체	公益財団法人 いきいき埼玉 埼玉県県民活動総合センター		
주소	埼玉県 伊奈町 内宿台 6-26		
설립목적	○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이타마(埼玉)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타마학(埼玉學)을 개설함.		
활동내용	○ 현민(縣民)대학 개설사업 : 후기강좌, 특별공개강좌 등을 실시. ○ 생애학습현민(縣民)강좌 개설사업 : 사이타마 축제, 사이타마 자연산책, 소설·시로 보는 사이타마 문학, 사이타마 문화재, 문학으로 걷는 고향 사이타마, 사이타마 옛길, 사이타마 평야의 자연과 사람, 사이타마 노래 이야기.		
간행물	○ 「埼玉学事始」講座(문학코스, 역사·민속 코스, 자연코스 시리즈) 등 학습프로그램 발간.		
현지조사	2016년 8월 4일(목) 公益財団法人 いきいき埼玉 埼玉県県民活動総合センター 斎藤実(生涯学習・地域連携課長), 荒木めぐみ(総務課長)		
			

사례 4

지역	愛知県	명칭	나고야(なごや)학
설립년도	-	현존여부	존속
실시단체	名古屋市教育委員会事務局 生涯学習部 生涯学習課		
주소	名古屋市 中区 大井町 7-25		
설립목적	○ 「자랑과 애착을 가진 마을 나고야」를 지향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고야에 애착을 느끼고 자랑할 수 있도록 나고야의 역사, 문화, 산업, 자연 등 다양한 시점에서 나고야를 보다 깊이 알고 나고야의 미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함.		
활동내용	○ 2003년도 「名古屋新世紀計画2010」의 제2차 계획에서 「現代なごや学ノススメ!」로서 제시됨. 「現代なごや学」으로서 환경, 방재 등 나고야시의 중요 과제나 나고야의 마을 만들기에 대해 가볍게 학습할 수 있는 강좌로서 전기·후기 각각 1강좌를 실시함. ○ 2007년도 제3차 계획에서는 「なごや学・まちづくり」에서 「なごや学」으로 변경되고, 강좌 명에 〈なごや学〉을 붙여서 개설됨. 또 「なごや学」중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 강좌를 〈なごや学マイスター講座〉라고 해서 실시됨. 〈なごや学〉은 〈なごや学マイスター講座〉을 포함해서 연간 1강좌 이상 실시함.		
간행물	○ 지역별 생애학습센터에서 공개강좌, 개설강좌 내용 등을 발간.		
현지조사	2016년 8월 4일(목) 名古屋市教育委員会事務局生涯学習部 生涯学習課 加藤弓枝(生涯学習課主事)		



사례 5

지역	京都府	명칭	교토(京都)학
설립년도	1981년	현존여부	존속
설시단체	公益財団法人 京都市生涯学習振興財団 京都市生涯学習センター		
주소	京都市 中京区 丸太町 通七本松四八		
설립목적	○ 교토(京都)의 풍부한 역사자료, 문화자료, 고고자료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토 시내 관련 시설 등과 협력·연계를 도모하고 각각 시설의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에게 환원하는 장소로서 개설됨.		
활동내용	○ 아스니 콘서트 : 일류 음악을 즐기는 가정적인 연주회. ○ 골텐·에이지·아카데미 : 교토가 자랑하는 역사, 문화, 문학, 전통예능 등을 시작으로 건강, 방재,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교양강좌. ○ 아스니 京都學 강좌 : 교토의 풍부한 역사·문화·고고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강좌. ○ 아스니 세미나 : 다양한 주제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교양강좌.		
간행물	『生涯学習』 「まなびすと」 『平安京講話』 등 발간.		
현지조사	2016년 8월 8일(월) 公益財団法人 京都市生涯学習振興財団 京都市生涯学習センター 小司敦彦(事業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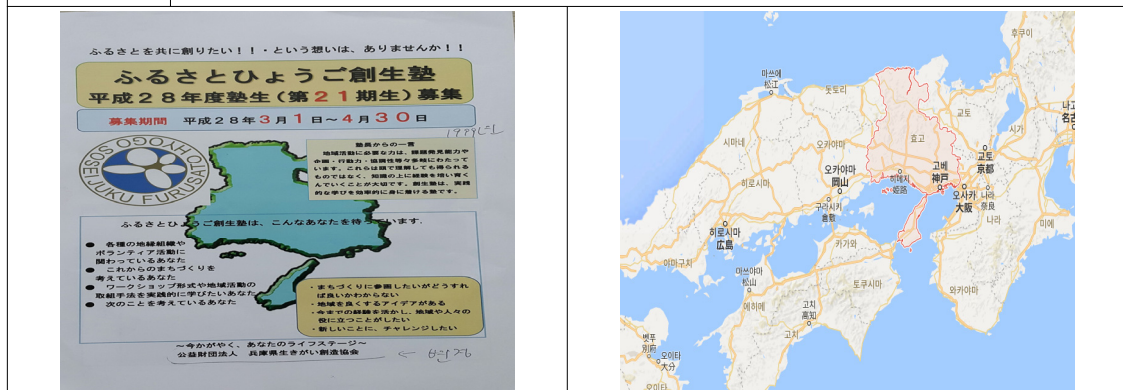
사례 6

지역	大阪府	명칭	오사카(大阪)학
설립년도	1925년	현존여부	해산(2007년)
설시단체	(財)大阪都市協会		
주소	大阪府 大阪市 中央区 舟場中央 1-3-2-209		
설립목적	○ 구미 선진국의 대도시를 규범으로서 사랑하는 시민단체를 시민으로 조직한다는 것을 취지로 창설됨. 시민생활에 관한 문제의 조사연구, 시정방침 전달, 오사카의 역사나 문화의 재발견, 오사카 발(發)의 정보통신 등 시민에게 근대적인 오사카의 마을 만들기 참가를 촉진.		
활동내용	○ 오사카 강좌 개최 : 오사카의 역사나 문화에 초점을 둔 주제로 연속강좌를 연 1회 개최함과 동시에 강좌내용 책자를 발행. 《講座テーマ》 1991年 なにわを築いた人々 1992年 なにわ事物起原(ことはじめ) 1993年 なにわ2000年 1994年 なにわ国際交流史 1995年 にぎわいの大阪史 1996年 水の都おおさか物語 1997年 文化の発信基地なにわ 1998年 大阪を掘る～遺跡でたどる大阪の歴史 1999年 大阪を掘るⅡ～出土品が語る大阪の歴史と人々の暮らし ○ 월간지 「오사카인」 발행 : 오사카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사람이나 마을, 역사나 문화를 통해 도시로서의 매력을 재발견. 오사카에서 전 지역으로 발신하는 종합잡지로서 매월 발행. ○ 최근 시정개혁에 따라 외곽단체 통합합의 대상이 되어 전 사업을 다른 단체로 이관하면서 해산.		
간행물	「大阪学講座」, 월간지 「大阪人」 등 각종 출판물을 간행하고, 문화강좌·연극·시민활동 등을 하고 있음.		
현지조사	2016년 8월 8일(월) 一般財団法人 大阪市教育振興公社(大阪市立総合生涯学習センター) 高貫順子(企画係長)		
			

Ⅲ. 최근 국내·외 지역학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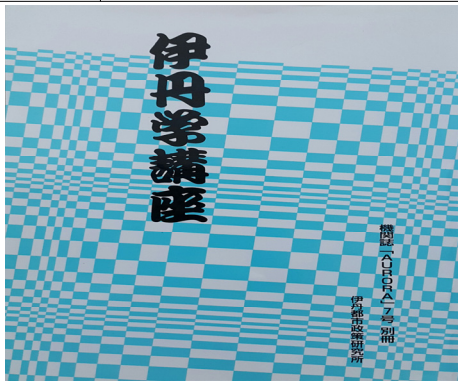
사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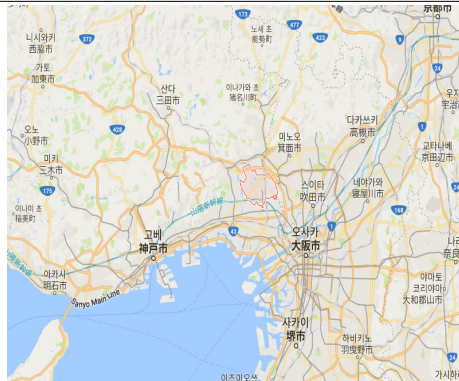
지역	兵庫県	명칭	ふるさとひょうご創生塾
설립년도	1999년	현존여부	존속
설시단체	公益財団法人兵庫県生きがい創造協会 兵庫県民生活課生涯学習		
주소	加古川市 平岡町 新在家 902-3		
설립목적	○ 21세기 성숙사회에 있어서는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발상하고 자주적, 자율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중에서 지역의 매력을 높여 가는 것이 중요. 거기서 지역의 과제해결을 위한 지(志)나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힘을 지역 활동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스킬 함양 도모를 위해 ふるさとひょうご創生塾을 개설함.		
활동내용	○ 마을 만들기나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비영리조직(NPO)·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지역 활동 실천자 및 실천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배우고 지역 만들기의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기초 강좌나 실천 강좌 등의 학습을 통해 실천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기획을 단련해서 기획을 실천, 졸업 때는 실천까지의 과정 및 성과 발표를 행함.		
간행물	ふるさとひょうご創生塾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지조사	2016년 8월 5일(금) 兵庫県民生活課生涯学習 小木曾弘康(生涯学習班長)		



사례 8

지역	兵庫県	명칭	이타미(伊丹)학
설립년도	1990년	현존여부	해산(2000년)
실시단체	兵庫県 伊丹市 伊丹都市政策研究所		
주소	兵庫県 伊丹市 潜像1-1 伊丹市役所		
설립목적	○ 가장 가까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배우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을 만들기에 대해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만들고 그 수단에 대해 생각하는데 있음.		
활동내용	○ 연간 5~6회 강좌를 개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행위원회에서 기획한다. 주제는 이전 역사부터 현대 행정문제나 문화를 다루고 있음. 올해는 이미 작년의 강좌수강생이 받기인이 되어 「이타미학 마을 만들기 강좌」를 시작한 바 있음.		
간행물	○ 과거의 강좌내용을 수록한 과제물집으로서 이타미학 강좌 리포트 사례집 1~3호를 발간.		
현지조사	2016년 8월 5일(금) 伊丹市役所 中村雅光(前 伊丹都市政策研究所)		





바. 일본 지역학의 시사점

- 일본의 지역학 개념은 지역에 관한 학습 기회와 충칭이나 일련의 강좌사업의 명칭, 지역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지역의 진흥이나 문화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만들기나 지역사회 참가 활동 등 독자적인 목적이나 방법을 가지고 전개되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일본의 지역학은 오랫동안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만들고자 지역학과 주민이 밀착되어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시청, 현청 등 지방자치단체, 언론, 대학,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산·관·학이 연계되면서 지역의 기업체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일본의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종합적 학제적 연구로서의 지역연구라는 순수 학문적인 것과는 달리 주로 평생학습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음. 즉, 그 지역의 자연, 사람, 사상 등을 학습함으로써 개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활성화, 지역 만들기 등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음.
- 일본의 지역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주체로서 행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NPO 등의 시민단체에서부터 취미 생활하는 집단까지 다양한 실시주체에 의해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지역학은 행정기관의 예산 문제와 리더(reader) 역할을 했던 연구자(교수 등)들이 퇴직하고, 지역 후계자 양성의 미흡, 일상생활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
- 따라서 지역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이 튼튼하고 정치적인 관계와의 단절, 재단설립, 지역학의 연구자 양성, 조연자(기획위원 등), 담당자의 열정, 주민 스스로의 노력, 시대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계속성이 있어야만 발전가능한 지역학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2 중국의 지역학

가. 중국 지역학의 등장 배경

- 중국의 지역학은 서구세계에서 중국 지역과 연구를 지칭하는 중국학(Sinology)과 차이가 있음. 중국의 지역학은 Local Studies in China로, 중국 내부의 지역을 일컬음.
- 현재 중국 학술허에는 지역학 혹은 지방학에 대해 명확하게 통일된 개념 정의가 없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는 땅으로써 “學”을 이름 짓는 것. 즉 지역 명칭을 따서 이름 붙인 학문을 지방학이라 함(樂成顯, 2004).
- 1980년대 이전 중국 3대 지역학이라고 불리는 둔황학(Dunhuang Studies), 회학(Hui Studies), 티벳학(Tibet Studies) 등이 선구적임.
-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 실시로, 지역학 관련 기관은 서서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설립되고 있음. 현재는 40~50개의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존재함.
- 중국의 개방 개혁 정책은 농촌지역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중국 인구의 80%가 농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는 중요할 수밖에 없음.

나. 중국 지역학의 개념

- 중국 지역학의 개념은 융·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지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포괄적 원리 탐구 및 복합적인 주제에 대한 교차적 이론(원리)에 대한 연구 주제를 포함함.
- 서구세계에서는 국제관계의 한 차원으로 중국학(Sinology)을 지역학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 지역학을 별도 설정함.

다. 중국 지역학의 특성

- 지역 공간에 대한 연구 및 지역 공간 발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발굴과 지역 문화 전통에 대한 보존 등을 중국 지역학의 영역으로 포섭함.
- 중국의 지역학은 기록 및 유물 유산이 온전히 보전됨에 따라 고고학적 발굴 및 역사 연구와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각 지역학에서 강세를 보임.

라. 중국 지역학의 운영현황

- 현재 중국에는 북경학을 비롯해, 상해학, 남경학, 서안학, 광주학, 천주학, 온주학, 하서학 등 40~50여개의 지역학들이 존재함. 이들은 중국 지역학 연합회(The Association for Chinese Local Studies)를 구성함. 이들 중 북경학은 중국 지역학 연합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음.
- 중국 지역학에서 대표적인 지역학은 돈황학, 장학, 휘학, 객가학, 조주학, 온주학 등임.

<표 III-4> 중국의 대표적 지역학¹²⁾

지역학	내 용
돈황학	돈황은 중국 감숙성 하서의 회랑 지대 서쪽에 자리, 한당 시대 돈황은 유명한 실크로드 중심지로 오랫동안 고대 동서문화 교류의 요충지였으나 송대 이후에는 점점 쇠락함. 그러나 1900년대 돈황의 동굴에서 수만 권의 문헌자료가 발견되어 중국 내 학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후부터 중국 외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 돈황이라고 명명된 신학문이 형성, 이것이 이른바 돈황학이라고 함. 돈황학은 돈황의 문헌자료, 석굴예술, 역사지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써 20세기 초엽부터 시작함. 1998년에는 漢子 200만자, 표제어 6925개, 불교미술·건축부터 민속·문화까지 담아낸 돈황학 대사전이 13년 집필을 거쳐 발간됨. 2015년 10월에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및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출간.

12) 돈황학, 장학, 휘학, 객가학, 조주학, 온주학에 대해서는 樂成顯(2004)를 참조함.

지역학	내 용
장학	장족과 서장 지역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장족의 역사문화와 사회 현실 반영을 연구하는 하나의 종합 학문임. 19세기 초에 헝가리 학자인 교마가 처음으로 장학이라는 말을 사용함. 그 후 외국 학자들이 근대적인 인문과학의 방법으로 장족과 서장 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장학을 기타의 인문 과학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만들게 됨. 그리고 195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장학 연구가 하나의 발전단계로 접어들게 됨.
휘학	휘주는 중국 안휘성 남부의 산악 지역으로, 중국의 남부와 북부가 교차하는 곳에 있음. 당송시대부터 명청시대까지 이곳은 경제의 발달과 문화의 창달로 ‘정주권리’라든가 ‘동남추로’라는 명성을 지니고 있었음. 1950년대 이후에 휘주의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하여 갑골문, 한진의 간독, 돈황의 문서, 명청의 내각대고당안 등과 함께 20세기 중국 역사 문화의 5대 발견이라고 불리게 됨. 휘학은 휘주의 문서 당안, 휘주의 전적 문헌, 휘주의 역사문화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종합 학문 분야임. 휘학 연구의 역사는 20세기 상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80년대 와서 제대로 연구됨.
객가학	객가라고 하는 것은 본래 4세기 초인 동진 말년, 9세기 말인 당조 말년, 13세기 초인 남송 말년에 각각 중국 북방의 황하 유역으로부터 점차 남방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현재에는 광둥, 복건, 광서, 강서, 호남, 대만 등지에 분포되어 있음. 객가학은 객가 민족의 역사문화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임. 객가학 연구의 역사는 20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1980년대 이후에 흥성하게 됨.
조주학	조주는 중국 광둥성 동부에 위치, 조주학은 조주지역의 역사문화, 내지 이민사, 해외개척사, 회극, 방언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1990년대 정식으로 흥성하게 됨.
온주학	온주는 중국 절강성 동남부에 위치, 온주학은 온주지역의 역사문화와 사회 현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21세기에 와서 정식으로 흥성.

- 돈황학과 휘학은 동시대 주류 문화를 대표함. 그러므로 전국적인 의의를 가짐. 장학은 독특한 민족의 문화적 성질을 규명. 객가학과 조주학은 동일민족 중의 다른 계층 혹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함. 온주학은 선명한 지방특색을 가지고 규명.

마. 중국 지역학의 사례

사례 1

지역	안후이성	명칭	회주학/회학
설립년도	1998년	현존여부	존속
설시단체	-		
주소	-		
설립목적	○ 회학은 회주학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3대 지역학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둔황학, 티벳학, 회학). 회학은 중국 안후이성을 중심으로 발달함. 안후이성(安徽省)은 많은 지리적 지역 및 문화적 지역이 걸쳐 있음. 중국 동부 창 강과 화이하 유역의 성임. 안후이성 행정구역의 시작은 청나라 강희 초임. 안치잉, 후이저우 두 지역의 앞 글자를 따서 그 이름을 지음. 회학이 발생한 안후이 성의 후이저우(徽州)는 송대~명청대 중국 강남에서 가장 발달한 경제권임.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풍부한 문헌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당시 중국사회의 경제와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회학임.¹³⁾		
활동내용	○ 언어(방언), 중국전통가극, 음식문화, 서예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 이에 대한 관심이 높고, 1950년대 이후 회주의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하여 20세기 중국 역사 문화의 5대 발견이라고 불리게 됨. 회학은 회주의 문서 당안, 회주의 전적 문헌, 회주의 역사문화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종합 학문 분야임. 회학 연구의 역사는 20세기 상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80년대 와서 제대로 연구됨.		
간행물	-		
현지조사	문헌조사에 의거함.		



13) 환청셴(樂成顯), ‘중국 지방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회학을 중심으로’ 참조.

사례 2

지역	간쑤성 둔황	명칭	둔황학
설립년도	1952	현존여부	존속
실시단체	둔황문화연구원		
주소	-		
설립목적	○ 둔황학은 중국 간쑤성 둔황에 있는 석굴의 존재 및 연구로부터 시작됨. 둔황은 중국 간쑤성 서부에 있는 도시로, 고대 동서양 교류의 요지인 실크로드로 가는 통로였음. 기원전 11년 한나라 무제가 이곳의 흉노를 무찌르고 동부에서 한족을 이주시켜 서역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그 후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되고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가 이곳 둔황을 거치면서 독특한 둔황의 문화를 이룸. ○ 당대 7세기부터 8세기 중엽 가장 왕래가 성해 동서무역의 중계지점으로 문화의 꽃을 피우며, 세계적인 둔황예술을 창출. 특히 둔황은 막고굴로 유명한데, 1900년대 발견된 막고굴은 명사산 동쪽 절벽에 남북으로 약 1.8km에 걸쳐 조성된 석굴군임. 둔황 석굴로 알려진 이 지역에는 기원전 전한 시대의 불교 유물부터 시작하여 당나라 후기까지 불교 유물이 시대별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 ○ 둔황은 몽골 침입과 이슬람의 침입을 거치면서 완전히 쇠퇴해진 도시가 되었으나, 1900년 둔환의 문헌이 장경동(둔황 막고굴 유적, 제17굴, 둔황 유물의 정수이자 도서관)에서 발견되면서 다시 주목됨. 1907년 오렐 스타인이 이곳을 관리하던 도사 왕위안루(왕원록)에게 소액의 기부금을 주고 장경동에서 약 7,000점의 유물을 유출하여 대영박물관에 가져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됨. 그의 연구는 다시 둔황학이라고 이름 붙여 오늘에 이르게 됨. 1908년 프랑스인 폴 펠리오가 또 7,000점의 유물을 프랑스로 유출하게 됨.		
활동내용	○ 1940년대 국립둔황예술연구소가 설립되어 막고굴에 대한 조사와 보호활동을 하다가, 건국 후 1952년 중국 정부가 ‘둔황문화연구소’를 개설해 보존과 조사를 진행하여 왔고, 1984년 둔황연구소가 설립되어 하부 조직 11개 연구기관을 두어 둔황예술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1961년 전국 중점문화보호단위,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현재는 이 연구소가 정한 동굴 번호가 하계의 표준이 되었음. 둔황의 유적과 출토된 문물의 연구를 총칭하여 ‘둔황학’이라고 부름. 현재는 국제둔황프로젝트(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도 있음.		
간행물			

현지조사	문헌조사에 의거함.
	

바. 중국 지역학의 시사점

- 중국의 지역학은 지역 내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자원으로 지역학을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중국의 지역학은 서구 세계의 학문 체계와 관점을 벗어난 동양체계의 학문적 체계적 특징을 지니고자 함. 예를 들어 중의학과 같이 서구 세계의 학문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통합적, 융복합적 학문체계를 지향함.
- 중국 지역학은 중국 고대의 유물 및 유적의 다량 발견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정부가 주도함. 둔황학을 주도하는 둔황문화연구원도 중국 정부 주도 하에 생긴 연구기관임.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1. 제주학 연구 현황과 변화

- 기관별로 보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학 관련 기관들은 인문·사회과학 25개소, 자연과학 16개소, 복합분야 9개소, 박물관 8개소, 제주대학교 내 연구소(연구센터) 및 학회 45개소 등이 파악되고 있음. 최근에는 지역 현안이 많아지면서 유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¹⁴⁾
- 제주학 연구기관들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인문분야와 사회과학분야는 민간연구소와 지역학회에 의해 주도 되고 있고, 자연과학분야는 국·도립 연구소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재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교 부설 연구소이거나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나 민간연구소의 경우 대체로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연구기관들은 자연과학에 비해 연구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연구전담인력이 적은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제주지역사회에서 제주학관련 연구기관은 매 시기마다 시대의 역사적 소명에 따라 연구기관의 탄생과 성격을 달리해옴.

1-1 제주학 연구단체 현황 및 변화

- 제주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음. 1967년 제주대학교 내 제주도문제연구소가 설립되어 제주지역에 대한 연구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음. 1970년대까지는 주로 향토사학자 및 민속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초 조사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음. 1978년에는 제

14) 좌혜경(2012) 및 현혜경 외(2015)를 참조함.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주도연구회(2004년 제주학회로 개칭)가 설립되었고, 이 기관은 분과학문을 넘어서 제주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지역 연구의 실제적이고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1980년대 전국적으로 지방사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제주사 자료의 수집과 함께 연구단체 및 기관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음. 제주역사연구회(1980)를 비롯하여 탐라연구회(1985), 제주도사연구회(1989), 제주 4.3연구소(1989) 등이 설립되어 매년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출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음.

- 1990년대에 서귀포시 문화원(1995),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1997), 제주학연구소(1997), 제주전통문화연구소(1999) 등이 새로이 생겨나면서 역사 연구가 심화되는 가운데 신화, 무속 연구 등이 활발해졌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음.
- 1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 연구기관 인문사회과학분야는 23개로 파악되었음.
-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대학교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분류상 제주대학교 편으로 옮기고, 또한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연구기관 및 새롭게 생겨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27개로 파악됨.

<표 IV-1> 인문·사회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번호	1차 조사 시	2차 조사 시	창립년도
1	제주4.3연구소	제주4.3연구소	1989
2	제주고고학연구소	제주고고학연구소	2009
3	제주문화유산연구소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8
4	세계섬학회	⇨복합분야로 이동	—
5	소암풍수지리연구소	소암풍수지리연구소	2006
6	제주학연구소	제주학연구소	1997
7	제주철학사랑방	—	—
8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화연구소로 개칭	1999/2016
9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6
10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회	1989
11	제주소리연구소	제주소리연구소	1997
12	평화연구소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
13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
14	영주어문학회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
15	제주방언연구회	제주방언연구회	2009
16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
17	글로벌제주문화연구원	—	—
18	제주관광학회	제주관광학회	1997
19	제주경제개발연구소	제주경제개발연구소	2000
20	제주복지미래연구회	제주복지미래연구회	—
21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2001
22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
23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 연구소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
24		민요학회	1987
25		사회복지미래연구회	—
26		서귀포 문화원	1996
27		이어도교육문화센터	1996
28		제주구술사연구소	—
29		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
30		제주마문화연구소	2004
31		제주문화원	1994
32		제주미래비전연구회	—
33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2014
34		제주평화연구원	2006
35		제주섬문화연구소	2016
36		제주어연구소	2016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 1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 연구기관 자연과학분야는 20개로 파악되었음.
-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은 분류상 제주대학교 편으로 옮기고, 또한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연구기관 및 새롭게 생겨난 자연과학분야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16개로 파악됨.

<표 IV-2> 자연과학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번호	1차 조사 시	2차 조사 시	창립년도
1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제주생태도시연구소	2006
2	제주지질연구소	제주지질연구소	2005
3	제주화산연구소	제주화산연구소	2003
4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연구센터	1995
5	제주트레킹연구소	제주트레킹연구소	2010
6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
7	제주난대림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 연구소	1965
8	제주카네기 연구소	—	—
9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2007
10	제주수산연구소	아열대 수산연구센터	1962
11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999
12	제주감귤연구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주감귤연구소	—
13	제주동물위생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1951
14	한라산연구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014
15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 제주대학교로 이동	—
16	제주대학교 해양과 환경연구소	⇨ 제주대학교로 이동	—
17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 제주대학교로 이동	—
18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 복합분야로 이동	—
19	이어도 연구소	⇨ 복합분야로 이동	—
20	생태교육연구소	제주생태교육연구소	2008
2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1956
2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012

- 1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 연구기관 복합분야는 7개로 파악되었음.
-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대학교 복합분야 연구기관은 분류상 제주대학교 편으로 옮기고, 또한 새롭게 생겨난 복합분야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8개로 파악됨.

<표 IV-3> 복합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번호	1차 조사 시	2차 조사 시	창립년도
1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4
2	이어도연구소	이어도연구회	2007
3	제주학회	제주학회	1973
4	제주문화포럼	제주문화포럼	1997
5	제주학연구자모임	제주학연구자모임	2004
6	제주녹색연구소	녹색제주연구소	2003
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 편으로 이동	
8		세계섬학회	2002
9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2013

- 1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 연구기관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는 파악되지 않았음.
-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 연구기관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는 8개 기관으로 파악됨.

<표 IV-4>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 제주학 연구단체

번호	2차 조사 시	창립년도
1	감귤박물관	1999
2	국립제주박물관	2001
3	우당도서관	1984
4	제주4.3평화재단	2008
5	제주교육박물관	1995
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4
7	제주돌문화공원	2006
8	해녀박물관	2006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대학교 내 제주학 관련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총 24개로 파악됨.

<표 IV-5> 제주대학교 내 연구소 및 연구센터

번호	분야	연구소명	창립년도
1	복합	탐라문화연구원	1967
2	사회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2001
3		법과정책연구원	1994
4		사회과학연구소	2008
5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2010
6		평화연구소	1990
7	인문	국어문화원	2006, 2008(명칭변경)
8		김창인 실천철학연구소	2013
9		박물관	1967
10		백록어문학회	1994
11		영주어문학회	1993, 2001(개편)
12		인문과학연구소	1995
13		재일제주인센터	2012
14		초등교육연구소	1988
15	자연	공과대학첨단기술연구소	1990, 2001(통합)
16		기초과학연구소	1986
17		수의과학연구소	2009
18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2001, 2003(개정)
19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1996
20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1982
21		의과학연구소	2003
22		친환경농업연구소	2015
23		해양과 환경연구소	2001(통합)
24		해양과학연구소	1968, 1988(개칭)

- 현재 매해 지속적으로 제주학 관련 단행본, 논문집, 보고서, 세미나, 학술 심포지엄 진행 등 학술활동에 전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30여개소로 정리됨.
-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인문·사회과학 25개소, 자연과학 16개소, 복합분야 9개소, 제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물관 등은 8개소, 제주대학교 내 연구소 및 연구센터, 학회는 45개소로

파악됨.

- 현재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학 관련 연구소 및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을 비롯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함(제주발전연구원, 2011 ; 좌혜경, 2012). 제주대학교는 2015년 제주대학교 요람을 참고하여 별도 처리함.
- 이외 지역사회 현안이 많아지면서 유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2015년 8월 1일 기준) 등록되어 있는 317개 단체들 중 20여 개를 추려볼 수 있음.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연구활동 시민단체들이 존재함.

1-2 제주학 관련 연구자 현황 및 변화

- 현재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제주학 연구자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제주학연구센터임. 2011년 8월 제주학연구센터가 개설되고, 2014년 3월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시하였음. 현재 제주학 연구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된 제주학 연구자는 178명(2015년 6월 기준)임. 그러나 제주학 연구자 등록시스템은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제주학 연구자는 실제로 이 수치보다 많음.
- 국회도서관에서 검색어 ‘제주’와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9,800건(2016년 11월 30일 기준)임. 석·박사 이수자 동일 인물 또는 중복 학위자 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4천여 명 이상이 제주학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제주학 연구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은 이루어져 있지 못함. 이에 대해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 연구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¹⁵⁾

15) 국회도서관에서 검색어 ‘탐라’는 242건임(2015년 10월 3일 기준). 이 중 ‘제주’와 중복되는 학위논문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가되는 건수를 고려해야함.

1-3 제주학 관련 연구 업적 현황 및 변화

-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검색에서 ‘제주’을 입력하면 전체 50,563건의 자료를 찾을 수 있음(2016년 11월 30일 기준).

<표 IV-6> 국회도서관 제주 관련 자료

구분	수량	구분	수량	구분	수량
도서자료	4,582	인터넷자료	3,605	참고데이터	2,186
학위논문	9,800	전자자료	63	탐라	1,218
학술기사	28,297	비도서자료	353		
연속간행물	156	국회회의록	521		

- 제주학을 하나의 지역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1990년대 중반 <제주학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음.¹⁶⁾ 제주학회는 설립 당시부터 학문범주로서 제주학의 가능성과 연구 성과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제주학의 정의와 범주를 완성시켜나가고자 하였음. 이 시기 제주학 인문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주학의 정의, 연구대상, 연구방법론, 학제적 결합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력들은 나중에 학문적 범주로서 제주학의 성립 및 제주학연구공동체가 형성되는 중요 자산이 되었음. 또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제주대학교 내에 지역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 과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주 지역 연구물들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축적물들이 발생하기 시작함.

16) 제주학회는 1978년 3월에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역사와 사회구조, 주민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등 제주도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 학문분야 전공자들이 모여 창립한 학회이며, 전신은 제주도연구회였음. 제주도연구회는 1996년 12월에 제주학회(濟州學會)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7년 11월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여 공인 법인체가 되었음. 매년 전국 규모의 정기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 정기 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학술지인 『제주도연구(濟州島研究)』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전국에 회원이 200여명 정도임. 1984년 12월부터 발행한 학술지 『제주도연구』에는 제주도에 관한 언어, 민속, 사회, 경제, 문화, 생활양식, 자연, 해양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비롯하여 제주도 관련 실증 조사 연구 결과물들이 실려 있는데, 제주학 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였음.

2. 제주학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요인 변화

2-1 외부 환경 요인 변화

- 제주학 활성화 및 제약 요인들은 제주학을 둘러싼 내부 환경 요인과 외부 환경요인들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질 수 있음.
-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지역주민 등 외부의 수요, 지역학 향유와 지역학 활용사업, 지역학 연구기관의 협력과 연대의 측면 등을 통해 고려됨.
- 문화기본법(2013년)과 지역문화진흥법(2014년)의 제정 등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의 위상 부각과 기대 상승.
- 세계문화 다양성선언(2000년)과 협약(2005년)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화 다양성에 주목.
-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세계 중심은 특정 행정 수도가 아니라, 지역으로 이동 중임.
- 지방자치제도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지각이 확산됨.
- 지역의 고유 브랜드에 대한 내외의 수요가 지역축제, 지역특산물, 지역인물, 지역 역사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 향후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 변동 및 통일 대비 속에서 제주학 연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어도 문제를 비롯하여 4·3 등 제주는 역사 속에서 항상 세계적인 힘의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어 국가 차원을 넘어선 지역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통일 후 제주사회의 총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제주학 논의는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일본 내 제주 공동체 사회의 변화, 4·3사건에 대한 규명 및 재해석, 제주 지역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등 굵직한 문제들이 제주지역사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또한 이

과정에서 제주-일본, 제주-북한, 제주-미국, 제주-중국 등 제주학 연구의 세계적 접점들이 예상됨.

2-2 내부 환경 요인 변화

- 내부 환경요인으로서는 제주학의 개념, 특성, 연구인력과 물적 토대(예산), 연구성과물, 제주학 연구기관들의 현황과 활동, 제주학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 등을 통해 고려됨.
- 지역학 공유화와 시민신탁에 대한 관심 확대.
- 제주학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가 점차 높아져 시민향유 욕구 증대.
- 제주학 연구가 제도적 단계로 정착되어가는 추세이며, 제주학연구센터는 중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음.
- 1차 5개년에 비해 다수의 민간학회, 대학연구소 등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함.
- 제주학 연구자들의 생산이 많아졌으며, 제주학 연구자들의 제주학 연구의지 투철.
-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한 제주학 아카이브의 DB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전체 36,295건(2016년 11월 기준)으로 지속적 증가
- 제주학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9,800건, 국회도서관 제주 관련 자료 50,563건, 탐라 관련 자료 1,218건(2016년 11월 기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역주민들의 제주학 연구 성과물을 향유할 수 있는 제주학 관련 기관들 시민 향유 강좌 및 탐방 프로그램이 많아짐.
- 제주학이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활용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대

- 제주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 공감대 형성.
- 제주학 관련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열망 높음. 자체 제주학 정기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10년 이상인 곳도 상당수 임.

3. SWOT 분석 및 전략 방향 도출

3-1 제주학 SWOT 분석

- 제주학 활성화 및 제약 요인들을 통해 제주학을 둘러싼 내부 환경요인과 외부 환경요인들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SWOT 분석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동시에 판단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함.
 - 내부 환경 요인으로는 제주학의 개념, 특성, 연구 인력과 물적 토대(예산), 연구 성과물, 제주학 연구기관들의 현황과 활동, 제주학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 등을 통해 고려됨.
 -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지역주민 등 외부의 수요, 지역학 향유와 지역학 활용사업, 지역학 연구기관의 협력과 연대의 측면 등을 통해 고려됨.
- 현 제주학 연구의 개념, 특성, 연구 인력과 물적 자원, 연구 성과물, 지역주민 등 내·외부 수요, 지역학 연구 기관과의 연대 측면들을 토대로 SWOT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① 장점 및 기회 활용 전략, ② 약점 보완 및 위협 최소화 전략 ③ 약점 보완 및 기회 활용 전략, ④ 장점 강화 및 위협 최소화 전략 등의 제주학 추진 전략을 수립함.
- SWOT 분석에 의한 제주학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① 운영 목표 및 기본 원칙, ② 지속발전 가능한 제주학의 추진 과제 등을 도출함.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제주학 SWOT 분석>

내부	강점(S-strength]	약점(W-weakness]
	· 제도적 단계로 정착되어가는 추세임. · 민간학회,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 및 단체들이 존재함. · 제주학연구센터라는 중심 거점이 있음. · 제주학 연구자들의 제주학 연구 의지 투철. · 제주학에 대한 관심, 인지도가 높아 수요저변 확대. · 제주학이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이라는 활용의 필요성 공감. · 제주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 공감대 형성. · 제주학 관련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열망 높음. · 자체 제주학 정기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10년 이상인 곳도 상당수 됨. · 제주학 기관들은 지역주민들이 연구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강좌,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한 제주학 아카이브의 DB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전체 36,295건임(2016년 11월 기준). · 제주학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9,800건, 국회도서관 제주 관련 자료 50,563건, 탐라 관련 자료 1,218건임(2016년 11월 기준).	· 전담 정규직이 1명 이하인 기관이 90% 이상이며, 연구 외 활용사업 수행 인력 부족. · 제주학 연구 성과에 비해 주민 향유사업과 대중화 사업 부족. · 전국적 규모의 정례적인 포럼, 제주학 관련 학술교류 및 문화 행사 부족. · 제주학 관련 학회의 안정적인 운영 미흡. · 제주학 개념, 학문적 범위, 방법론, 활용 사업에 대한 합의 미흡, 연구 우수성 담보 구조 미진. · 제주학 관련 기관들 간의 소통 채널 부족으로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 연구자가 적음. · 제주학 전문연구자들의 학술 및 연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공간 지원 취약. · 제주학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은 연구비 부족으로 외부공모연구 과제에 의지해 연구를 진행. · 제주학 관련 원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수행, 수집 자료의 보존 및 발간 사업 취약. ·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미디어 협력, 출간물 배포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미약함.
외부	기회(O-opportunity]	위협(T-threat]
	· 문화기본법(2013년)과 지역문화진흥법(2014년)의 제정,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초로서의 지역학의 위상 부각과 기대 상승. · 세계문화 다양성선언(2000)과 협약(2005)을 통해 지역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화 다양성 주목. ·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세계의 중심은 특정 행정 수도가 아니라 지역 색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 중임. · 국내에서도 지방자치제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시각이 확산. · 지역의 고유 브랜드에 대한 내외의 수요가 지역축제, 지역특산물, 지역인물, 지역역사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 지역학 공유화와 시민신탁에 대한 관심 확대.	· 지역 격차와 여건을 도외시키고, 제주학 발달은 제주지역만의 책임이라는 사고 만연. · 제주학 거점이나 전국의 안정적 네트워크의 필요성 인식 부족. · 제주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 지역주민의 일시적 기호를 충족시키는 제주학 활용 행사. · 지역주민의 학습 욕구 등을 고려한 평생학습기관 등 난립된 제주학 활용 프로그램의 비체계성. · 제주학의 문화적 효용가치 등에 대한 자각 없이 학문적 영역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 문화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문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동경과 개발문화 가속화. · 제주학 기관들 간의 관계 및 협력의 가치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

3-2 전략방향성 도출

구 분	주 요 내 용
O/S	〈 장점·기회 활용 전략 〉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0)과 협약(2005) 등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목이 커지면서, 제주학의 미래 정책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문화기본법(2013.12.30)과 지역문화진흥법(2014.01.28)의 제정 등으로 제주학의 위상이 한 단계 상승하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이것을 활용한 수요 저변 확대 추진이 가능함. · 지역학 공유화와 시민신탁에 대한 관심 확대에 따라 제주학 시민신탁의 모색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T/W	〈 약점 보완 및 위협 최소화 전략 〉 · 제주학은 제주지역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정례적인 포럼 및 학회의 안정적 운영 활성화가 요구됨. · 전국 및 세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학 연구 및 그 성과물의 교류와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 ·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고려한 평행학습기관 등 제주학 활용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화가 필요함. · 제주학 기관들 간의 관계 및 협력의 가치에 대한 관심 유도를 통해 제주학 소통 채널의 확대와 위상 재정립 등.
O/W	〈 약점 보완 및 기회 활용 전략 〉 · 문화기본법(2013.12.30)과 지역문화진흥법(2014.01.28)의 제정 등으로 제주학의 약점을 보완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0)과 협약(2005)등으로, 제주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되며, 이를 활용한 주민 향유사업과 대중화 사업이 가능함. · 제주학 시민신탁 수립으로 제주학의 열악한 물적 토대 및 제주학을 활용한 주민 수요 창출 추진 등.
T/S	〈 장점 강화 및 위협 최소화 전략 〉 · 제주학의 거점 확보와 전국의 안정적 네트워크 필요성을 재고함과 동시에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강화. · 제주학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장기적 기호를 충족시키는 활용 행사 추진. · 제주학의 문화적 효용가치 등에 대한 자각을 통해 학문적 영역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에서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 · 제주학에 대한 연구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지로 제주학 기관들 간의 관계 및 협력의 가치에 대해 중앙 부처 및 지자체의 관심 유도.

4. 2차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4-1 조사의 설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학 진흥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제주학연구센터)을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설치함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음.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의 만료에 따라 이어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게 되었음.
- 이 조사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 방향 및 사업내용, 운영방안 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 조사를 통해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제주학연구센터 안정화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설문지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방향',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설정과 세부적인 기능 평가',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연구사업의 설정과 평가',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원이 전문가(조사대상자)를 방문, 직접(face-to-face) 면접조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가 이메일로 설문지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설문지를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여 응답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병행 사용하였음.
- 대표성을 높여야 하는 일반적인 표본 조사와 달리, 이 조사의 대상자는 제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객관성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 학자, 언론인, 교사, 정치인, 행정가 및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연구진의 협의에 따라 표집되었음. 조사대상자는 선정된 136명 가운데 100명을 조사하였음.

○ 자료수집은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간 이루어졌음.

○ 회수된 설문지 100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음.

4-2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 100명(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함.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71명(71.0%), 여성 29명(29.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을 살펴보면 50대 54명(54.0%), 40대 28명(28.0%), 30대 11명(11.0%), 60세 이상 7명(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은 대학원 박사 66명(66.0%), 대학원 석사와 대졸이 각 17명(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은 대학교수 32명(32.0%), 연구직 20명(20.0%), 언론인 18명(18.0%), 교사 및 공무원 16명(16.0%), 기타 14명(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직업은 문화예술 분야, 시간강사, 사서, 사회단체, 재야학자 등으로 나타남.

○ 관심 분야는 인문학 57명(57.0%), 사회과학 29명(29.0%), 자연과학 10명(10.0%), 기타 4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관심 분야는 공학, 문화, 지역학 등으로 나타남.

4-3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2차 제주학연구센터 비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제주학 지식자원의 가치 재창조’ 50명(50.0%), ‘문화융성의 시대를 여는 제주학’ 24명(24.0%), ‘시민을 향해 열린 제주학’ 16명(16.0%), ‘민간연구단체와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9명(9.0%), ‘기타’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표 IV-7>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

구 분	빈도(명)	비율(%)
문화융성의 시대를 여는 제주학	24	24.0
제주학 지식자원의 가치 재창조	50	50.0
시민을 향해 열린 제주학	16	16.0
민간연구단체와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9	9.0
기타	1	1.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제주학 연구의 기초 자료 축적 및 아카이브관 설립’ 41명(41.0%),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40명(40.0%), ‘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 연구기관으로 전환’ 13명(13.0%), ‘제주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5명(5.0%), ‘기타’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운영 방향은 ‘도내·외 제주학 연구 허브 역할 및 연구 지원’으로 나타남.

<표 IV-8>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방향

구 분	빈도(명)	비율(%)
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연구기관으로 전환	13	13.0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40	40.0
제주학 연구의 기초 자료 축적 및 아카이브관 설립	41	41.0
제주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5	5.0
기타	1	1.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 제주학에 대한 자료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93명(93.0%), ‘보통’ 4명(4.0%), ‘중요하지 않음’ 3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60%로 나타남.

<표 IV-9> 제주학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0	4.60
중요하지 않음	2	2.0	
보통	4	4.0	
대체로 중요함	22	22.0	
매우 중요함	71	71.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제주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84명(84.0%), ‘보통’ 14명(14.0%), ‘중요하지 않음’ 2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30으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0> 제주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30
중요하지 않음	2	2.0	
보통	14	14.0	
대체로 중요함	36	36.0	
매우 중요함	48	48.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79명(79.0%), ‘보통’ 20명(20.0%), ‘중요하지 않음’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98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1>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30
중요하지 않음	1	1.0	
보통	20	20.0	
대체로 중요함	59	59.0	
매우 중요함	20	20.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자료 등 제주학 기초 자료 구축과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90명(90.0%), ‘보통’ 7명(7.0%), ‘중요하지 않음’ 3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42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2>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과 서비스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0	4.42
중요하지 않음	2	2.0	
보통	7	7.0	
대체로 중요함	34	34.0	
매우 중요함	56	56.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세계적 수준의 장기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73명(73.0%), ‘보통’ 22명(22.0%), ‘중요하지 않음’ 5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85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3> 세계적 수준의 장기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0	3.85
중요하지 않음	4	4.0	
보통	22	22.0	
대체로 중요함	55	55.0	
매우 중요함	18	18.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84명(84.0%), ‘보통’ 12명(12.0%), ‘중요하지 않음’ 4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14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4>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여건 조성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14
중요하지 않음	4	4.0	
보통	12	12.0	
대체로 중요함	50	50.0	
매우 중요함	34	34.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제주학 연구결과물의 향유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84명(84.0%), ‘보통’ 14명(14.0%), ‘중요하지 않음’ 2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09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5> 제주학 연구결과물의 향유 여건 조성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0	4.09
중요하지 않음	1	1.0	
보통	14	14.0	
대체로 중요함	56	56.0	
매우 중요함	28	28.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75명(75.0%), ‘보통’ 24명(24.0%), ‘중요하지 않음’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97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6> 제주학 연구자 및 연구단체 지원 기능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0	3.97
중요하지 않음	—	—	
보통	24	24.0	
대체로 중요함	51	51.0	
매우 중요함	24	24.0	
합계	100	100.0	

- 그 외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 기타 역할 및 기능으로는 ‘사업 성과 홍보 및 공유’, ‘전문학술지 창간 및 운영 배포’, ‘제주학연구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제주학 연구 기획 및 추진’, ‘향토자료 아카이브 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자료 집적기관’ 36명(36.0%),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32명(32.0%),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14명(14.0%),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13명(13.0%),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과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 진흥기금 조성'이 각 2명(2.0%), '타 지역학 연구소와 교류 협력'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주요 업무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32	32.0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자료 집적 기관	36	36.0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14	14.0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13	13.0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	2	2.0
제주학 관련 공모사업 추진	—	—
세계 섬 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	—
타 지역학 연구소와 교류 협력	1	1.0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 진흥기금 조성	2	2.0
제주학에 대한 시민 향유 공간 제공	—	—
기타	—	—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 연구사업 분야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90명(90.0%), '보통' 10명(3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48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8>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48
중요하지 않음	—	—	
보통	10	10.0	
대체로 중요함	32	32.0	
매우 중요함	58	58.0	
합계	100	100.0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70명(70.0%), ‘보통’ 25명(25.0%), ‘중요하지 않음’ 5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86으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19>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 수행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3.86
중요하지 않음	5	5.0	
보통	25	25.0	
대체로 중요함	49	49.0	
매우 중요함	21	21.0	
합계	100	100.0	

-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수행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91명(91.0%), ‘보통’ 7명(7.0%), ‘중요하지 않음’ 2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32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20> 제주학 관련 토대 연구 수행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32
중요하지 않음	2	2.0	
보통	7	7.0	
대체로 중요함	48	48.0	
매우 중요함	43	43.0	
합계	100	100.0	

-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83명(83.0%), ‘보통’ 15명(15.0%), ‘중요하지 않음’ 2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05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21>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05
중요하지 않음	2	2.0	
보통	15	15.0	
대체로 중요함	59	59.0	
매우 중요함	24	24.0	
합계	100	100.0	

-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80명(80.0%), ‘보통’ 18명(18.0%), ‘중요하지 않음’ 2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00으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22>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00
중요하지 않음	2	2.0	
보통	18	18.0	
대체로 중요함	58	58.0	
매우 중요함	22	22.0	
합계	100	100.0	

- 제주문화 원형 발굴 조사, 보존 활용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78명(78.0%), ‘보통’ 18명(18.0%), ‘중요하지 않음’ 4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4.04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23> 제주문화 원형 발굴 조사, 보존 활용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4.04
중요하지 않음	4	4.0	
보통	18	18.0	
대체로 중요함	48	48.0	
매우 중요함	30	30.0	
합계	100	100.0	

-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54명(54.0%), ‘보통’ 30명(30.0%), ‘중요하지 않음’ 16명(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46으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24>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사업 수행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0	3.46
중요하지 않음	15	15.0	
보통	30	30.0	
대체로 중요함	45	45.0	
매우 중요함	9	9.0	
합계	100	100.0	

-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중요함’ 68명(68.0%), ‘보통’ 27명(27.0%), ‘중요하지 않음’ 5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3.87로 나타남(5점 만점).

<표 IV-25>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구 분	빈도(명)	비율(%)	평균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3.87
중요하지 않음	5	5.0	
보통	27	27.0	
대체로 중요함	44	44.0	
매우 중요함	24	24.0	
합계	100	100.0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공통 연구사업은 ‘분야별 체계적인 기초 조사’, ‘연구사업 기획 및 지원’, ‘제주학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제주학 후속세대 양성 지원’ 등으로 나타남.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인문학 분야 연구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제주문화사 연구’ 34명(34.0%), ‘제주어 연구’ 14명(14.0%), ‘탐라사 연구’ 11명(11.0%), ‘기타’ 9명(9.0%), ‘제주민속, 신앙 연구’와 ‘제주 해양문화 연구’, ‘제주인문지리 연구’가 각 7명(7.0%), ‘제주신화, 설화 연구’ 4명(4.0%), ‘제주고문헌 연구’ 3명(3.0%), ‘제주 고고학 연구’ 2명(2.0%), ‘제주민요 연구’와 ‘제주인물사 연구’가 각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인문학 분야 연구사업은 ‘제주 고지도 연구’, ‘제주역사·문화연구’, ‘제주역사 연구’, ‘제주역사·지리 연구’, ‘제주인문분야 연구 주제 발굴 및 지원’, ‘제주자연·문화사 연구’, ‘제주학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인문학 자료 수집’ 등으로 나타남.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표 IV-26> 인문학 연구사업의 중요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어 연구	14	14.0
제주고문헌 연구	3	3.0
제주신화·설화 연구	4	4.0
제주민요 연구	1	1.0
제주민속, 신앙 연구	7	7.0
제주 고고학 연구	2	2.0
제주해양문화 연구	7	7.0
탐라사 연구	11	11.0
제주문학 연구	—	—
제주목축문화 연구	—	—
제주인문지리 연구	7	7.0
제주인물사 연구	1	1.0
제주문화사 연구	34	34.0
기타	9	9.0
합계	100	100.0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사회과학분야 연구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53명(53.0%),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16명(16.0%), ‘제주지역개발 연구’ 6명(6.0%), ‘제주사회운동 연구’와 ‘제주이주민 연구’가 각 4명(4.0%), ‘제주농어민 연구’와 ‘제주산업 연구’, ‘제주도시/주거 환경 연구’, ‘기타’가 각 3명(3.0%), ‘제주4·3 연구’와 ‘제주여성 연구’가 각 2명(2.0%), ‘제주사회복지 연구’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사회과학분야 연구사업은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주제 선정’, ‘지속 가능한 제주지역 연구’ 등으로 나타남.

<표 IV-27> 사회과학분야 연구사업 중요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53	53.0
제주4·3 연구	2	2.0
제주여성(해녀포함) 연구	2	2.0
제주농어민 연구	3	3.0
제주노동자 연구	—	—
제주지역개발 연구	6	6.0
제주사회운동 연구	4	4.0
제주산업 연구	3	3.0
제주도 기업 및 기업가 연구	—	—
재외제주인 연구	—	—
제주 이주민 연구	4	4.0
제주사회복지 연구	1	1.0
제주도시/주거환경 연구	3	3.0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16	16.0
기타	3	3.0
합계	100	100.0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자연과학분야 연구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제주환경 연구’ 29명(29.0%), ‘제주해양 연구’ 18명(18.0%), ‘제주지질 연구’ 12명(12.0%), ‘제주건축 연구’ 11명(11.0%), ‘한라산 연구’ 8명(8.0%), ‘기타’ 6명(6.0%), ‘제주 지하수 및 수자원 연구’ 5명(5.0%), ‘제주화산 연구’와 ‘제주기후 연구’가 각 4명(4.0%), ‘제주식물 연구’ 2명(2.0%), ‘제주수산 연구’ 1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자연과학분야 연구사업은 ‘자연과학 분야는 제주학 사업과 맞지 않음’,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한 분야 선정 및 연구 촉진’, ‘제주 중산간 연구’, ‘제주바다 연구’ 등으로 나타남.

I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표 IV-28> 자연과학분야 연구사업 중요도

구 분	빈도(명)	비율(%)
제주지질 연구	12	12.0
제주화산 연구	4	4.0
제주식물 연구	2	2.0
제주동물 연구	—	—
제주건축 연구	11	11.0
제주환경 연구	29	29.0
제주수산 연구	1	1.0
한라산 연구	8	8.0
제주감귤 연구	—	—
제주기후 연구	4	4.0
제주월에 연구	—	—
제주해양 연구	18	18.0
제주 지하수 및 수자원 연구	5	5.0
기타	6	6.0
합계	100	100.0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방비’ 60명(60.0%), ‘기타’ 7명(7.0%), ‘국비’와 ‘시민신탁’이 각 3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기타 운영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방비와 후원금 매칭’, ‘연계 가능한 모든 재원 활용’ 등으로 나타남.

<표 IV-29>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재원조달 방안

구 분	빈도(명)	비율(%)
국비	3	30.0
지방비	60	60.0
후원금	—	—
시민신탁	3	3.0
기타	7	7.0
합계	100	100.0

V.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구상

1.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1-1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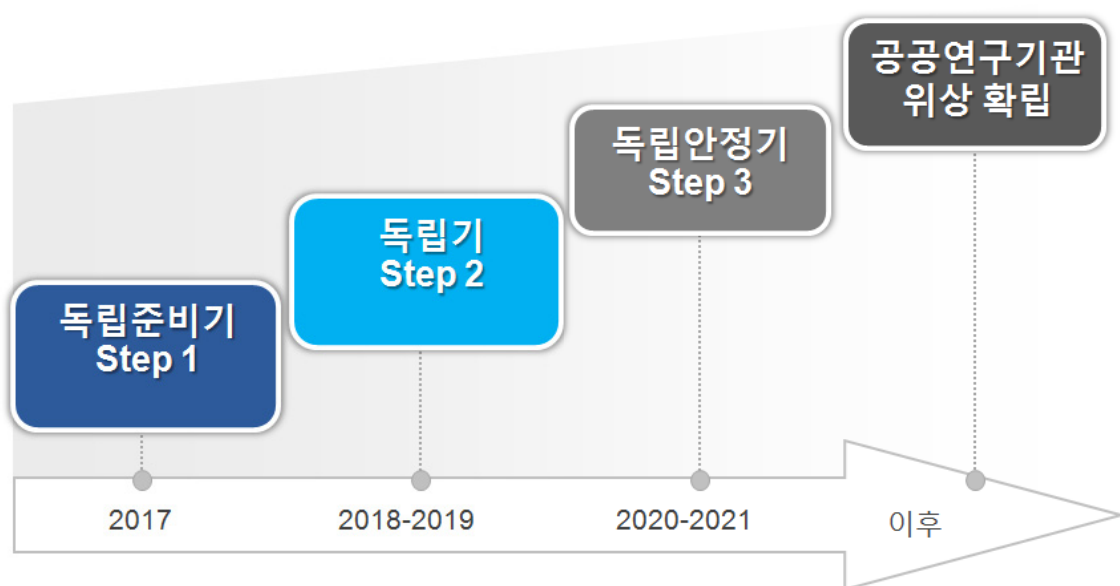
- 『제37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 3·6·5 약속 실천계획서』의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계승 발전 : 제주어 회생사업 지원 및 제주학 집중 육성.
- 민선 6기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방향) 핵심정책 ‘제주학 및 제주어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탐라문화 세계화’ 실천 계획.
- 201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운영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미래비전 실행계획(제주특별자치도 문화분야) : 과제번호 6-1-1, 제주의 문화정체성 강화.
 - 제주 정체성 강화 추진.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에 ‘제주 정체성 보존 및 유지’ 삽입.
 - 제주학의 대중화와 실용화를 위한 시설 마련과 조직 구성 ; 인력 확대 및 독립공간 마련.
 - 제주학 아카이브관 독립 공간 구축 및 운영.
 - 제주학 자료 가치 창조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 확대구축, 제주 전통문화원형 조사 및 축적 활용.
 - 제주통사 편찬.
 - 제주 전통문화의 미래자원화 방안 강구 ; 제주 전통문화 원형에 대한 미래 가치 도출 연구 및 활용.
 - 제주 도시공간의 역사성 부각 ; 탐라유적, 향토문화유산 등 계획수립, 복원, 정비 등.
 - 제주어 진흥 ; 제주어 총괄기관 지정, 제주어 특화거리 시범지구 지정.

1-2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

- 제주학연구센터는 설립 이후 제주학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제주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지원을 확대시켜 왔으며, 다양한 학술 사업 교류를 통해 제주를 넘어서 전국적 차원에서 선구적으로 지역학의 초석을 마련하여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을 넘어선 제주학에 대한 시선이 미흡하며, 민, 관, 학, 연 등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연구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전국적·세계적 차원에서 지역학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제주학과 지역학의 위상을 견인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함.
- 제주학연구센터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학이 갖는 의미를 내포하여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을 띠는 것이 중요함. 제주학연구센터는 과거의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함.
- 따라서 제주학연구센터 비전 설정을 위한 준거로 3R법칙, 연계성(Relevance), 투영성(Reflexiveness), 책임감(Responsibility)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계성(Relevance)은 과거와 미래를 연계하는 기능으로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의 과거와 미래 연구를 연계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아내면서 전 인류가 공감하고 참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수행함.
 - 투영성(Reflexiveness)은 거시적 관점에서 제주학연구센터는 시대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른 자원들과의 공존을 통하여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책임감(Responsibility)은 제주학연구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함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토대로 본연의 기능을 다해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어 구조적, 기능적 완성도를 추구하여 미래 비전을 달성하도록 함.

1-3 사업방향 및 로드맵 설정

- 제주학연구센터는 설립 초기(2011년)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여 제주발전 연구원에 일정 기간 위탁되었음.
- SWOT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 학계 및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보았을 때,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이 완료되고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이 설립되는 시점에서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을 위한 추진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 추진 단계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 안에서 크게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음.



[STEP 1] 1단계는 제주학연구센터 및 제주학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단계로, 제주학 연구 확산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 및 분위기를 통해 독립을 모색하는 시점이자, 안정적인 사업·운영 예산 확보 및 조직 확대, 독립 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독립의 물적 토대 구축 시작.

[STEP 2] 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의 공론화를 시작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임. 또한 향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제주학 및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화를 다지는 단계임.

[STEP 3] 3단계는 독립기관의 내실화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사업의 확장과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도약을 추구하는 시기임. 관련 사업의 연계 개발 등을 추진하여 독립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 하는 단계로 설정함.

- 3단계 이후 제주학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성(publicity)확립 및 확고한 위상 정립.

2. 운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SWOT 분석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제주학의 2차 운영 기본계획의 비전 및 연구목표와 기본 원칙을 수립할 수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Vision)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지역연대·시민지향의 제주학(Jeju studies for local people and solidarit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vision of Jeju)’ , 목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을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제주학 및 지역사회 자원 구축’임.
- 세부과제 설정을 위하여 발전적 운영의 대원칙 4가지를 설정함.



비전

제주의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지역 연대·시민 지향의 제주학

Jeju studies for local people and solidarit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vision of Jeju

목표

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을 통한 지속발전가능한 제주학 및 지역사회 자원 구축

운영의 4원칙

전국·세계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제주학 지향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플랫폼 구축	센터의 안정적 기반 구축	시민을 향해 있는 제주학 지향
----------------------------------	---------------------------------	---------------	---------------------

- [전국·세계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제주학 지향] 중앙(국가)의 하부가 아닌 독립적인 단위로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역, 세계의 지역과 만나는 트랜스로컬(trans-local) 학문 지향. 세계 지역 간 연대, 보편성 추구, 대륙·해양문명, 세계섬문화 비교 연구 수행.
- [민간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플랫폼 구축] 모든 연구 사업을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 기획과 지원의 플랫폼 역할 수행.
- [센터의 안정적 기반 구축] 센터의 독립기관화 추진, 독립 공간의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예산의 증액 및 항상적 제주학 진흥 예산 확보 등 지원체계 구축. 대형 국책·지방시책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자체 사업재원 확보.
- [시민을 향해 있는 제주학 지향] 제주학 청소년 교육사업, 시민강좌, 교양서적 발간 보급 등 제주학 대중화 사업 추진. 제주학대회를 연구단체·연구자, 시민·학생·청소년이 어우러지는 학술축제의 장으로 구현.

VI. 사업별 추진계획 및 5개년 로드맵

1.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1-1 자체연구사업

가.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의 연구 범주를 제주도와 한반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유명한 섬과의 비교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학’을 지향하며, 제주의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 문화 가치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섬,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섬들과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계섬문화 축제의 부활 분위기에 따라 축제의 이론적 근거와 콘텐츠 발굴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도과 지중해의 유명한 섬(사르데냐, 마요르카, 마테이라, 시칠리아, 크레타, 코르시카 등)과의 문화 비교 연구
 - － 주제 : 역사, 언어, 지질, 음식문화, 친족문화, 관광, 미래비전 등 조사
- 추진주체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팀+현지 전문연구팀
- 추진기간 : 2017년 1월~2021년 12월 (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르데냐 비교연구					
지중해섬 비교연구 II					
지중해섬 비교연구 III					
지중해섬 비교연구 IV					
종합 단행본 발간					

- 총사업비 : 25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50	50	50	50	50	250

○ 기대효과

- 세계 섬문화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을 생산할 수 있음.
- 제주학 연구의 확장 및 글로벌적 연계성으로 외연 확대.
- 세계 섬문화 축제의 이론적 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의 국제적 위상 및 역량 증진.

나. 제주해양생활 문화연구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해양생활사 연구는 제주 문화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가 국제저명저널 Island Studies Journal 특별호(2018년 5월)를 편찬하기로 함. 주제는 ‘쿠로시오 해류권 섬 해양생활문화’임.
- 이에 따라 제주가 속해 있는 해류권 섬들의 해양생활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제주해양생활사 전범 및 제주를 포함한 쿠로시오 해류권 섬 해양생활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제주해양실크로드 규명의 단초 마련.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를 포함한 쿠로시오 해류권 섬들의 해양생활문화 조사·연구로 민속, 공동체, 의식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주해양실크로드 규명의 토대 마련.
- 추진주체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팀+현지 전문연구팀
- 추진기간 : 2017년 1월~2021년 12월 (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큐슈지역 연구					
중국지역 연구					
보고서 및 논문 작성					
특별호 편찬					
확대 연구					

- 총사업비 : 15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30	30	30	30	30	150

○ 기대효과

- 제주해양생활문화연구를 통해 한국 해양생활문화의 전범 창출.
- 인식론적 확대를 통해 제주학 연구의 확장 및 글로벌적 연계성으로의 외연 확대.
- 해류를 통한 상호 교섭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제주해양실크로드 규명 단초 마련.
- 제주학연구센터의 국제적 위상 및 역량 증진.

1-2 연구지원사업

가. 기획주제 연구지원 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 연구사업을 민간 연구단체 및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주학 연구의 기초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사업과 시의적으로 적절한 연구주제를 기획하여 주제별 연구지원을 함으로써 소기의 연구성과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학 연구 주제를 발굴 기획하여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하는 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륙·해양문화 비교연구					
외국 지역학연구 사례조사					
제주학 선구자 조사연구					
제주의 옛문화 자취 기초조사사업					
‘잃어버린 탐라’ 흔적 찾기					
제주의 전통 생업기술 기록화					
제주와 연관된 왕족 조사 사업					
사회과학 분야 기획 연구					
자연과학 분야 기획 연구					

- 총사업비 : 48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80	100	100	100	100	480

○ 기대효과

- 제주학 연구의 주제가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음.
- 제주학 연구의 기초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음.
- 제주학 연구의 전문 인력 확충 및 학문후속인력 양성이 가능해짐.

나. 자유공모 연구지원 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 연구 활성화 및 외부 전문 인력 참여 기회 확대로 제주학 연구 확대 심화.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학 연구 주제를 자유 공모하여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학 관련 자유 주제					

- 총사업비 : 45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50	100	100	100	100	450

○ 기대효과

- 제주학 연구자 양성지원,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비 지원.
- 제주학 정립 중심 기관으로서 제주학의 발전과 연구자 양성 기여.

2. 제주학대회

○ 사업추진 필요성

- 국내외 제주학 관련 연구자, 연구단체·기관이 총집결하여 학술토론과 화합 축제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동아시아 지역학 연구기관을 초청하여 제주학의 국내·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학 국제학술대회, 제주학 세미나, 도서사진전, 시민특강, 청소년과 함께 하는 제주학 경연대회 등.
- 추진주체 : 제주학대회추진위원회+제주학연구센터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학대회					

- 총사업비 : 50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500

○ 기대효과

- 제주학의 글로벌화 지향.
- 민간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주최, 제주학 연구 인적 자원 확대.
- 시민·청소년과 함께 하는 '열린 제주학' 지향, 제주학의 대중화·보편화 실현.

3. 제주마을기록화 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사적 지식 기반 사회 흐름의 급속한 변화와 지방 차원의 세계적 신산업기반 경쟁력 확보 경쟁 속에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 미시적으로는 제주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한 '제주다운 것'에 대한 회의와 다층적 로컬리티(locality) 규명을 통한 다층적 제주문화원형의 기반 디지털 구축.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1910년대 이래 제주마을 경관원풍경 및 마을 생활문화원풍경 조사 연구를 통해 제주마을의 다층적 로컬리티 규명 및 다층적 제주문화원형 구축.

분야	디지털 수집 방식	시간적 수집	수집내용	이후 사업
마을경관 원풍경 자료 수집	GIS / CAD 항공사진 / 지적도	1900~현재	공간사	디지털 마을지 구축
마을공동체 생활사 자료 수집	음성 / 영상 사진 / 구술	1900~현재	생활사	

－ 읍면별 순차사업으로 실시

- 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21년 12월(4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한림면·대정면·안덕면 마을					
(구)구좌면·성산면·표선면 마을					
(구)서귀면·중문면·남원면 마을					
(구)제주읍·조천면·애월면 마을					

- 총사업비 : 60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150	150	200	300	800

○ 기대효과

- 가칭 디지털 마을대사전 혹은 디지털 마을지 편찬 가능.
- 마을 기록관 및 공동체 정보 센터 공간 설치 가능.
- 해당 마을 학교 교육 자료 이용.
- 마을 기록자 역량 강화 사업 등 연계.
- 마을 만들기 사업에 영향.
- 제주문화산업(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산업)의 토대.
- 제주구술자료관(센터) 구축 및 제주학 빅데이터 연계 등.

4. 제주역사 편찬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탐라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를 총괄하는 제주역사 정립 사업.
- 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갖게끔 하는 시민·학생 대상 역사 교육의 필요.
- 제주 관련 관찬·사찬 역사서, 문집, 기행문, 보고서 등 귀중한 한문전적과 외국문헌의 번역을 통해 제주학 연구의 토대 마련.
- 개별적으로 수행된 제주학 관련 고문헌의 번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인 아카이브 구축.
-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제주학 고전의 번역 내용을 디지털 아카이브화 함으로써 제주학 원문 자료를 학문후속세대 및 시민들에게 제공.
-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제주의 역사·문화 지침서의 필요.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역사』(개설서) 편찬, 『승정원일기』 국역, 일제강점기 신문 제주관련 기사 추출 정리, 구한말 신문·잡지·관찬사료 제주관련 기사 추출 정리, 제주현대사 기록 정리 등.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승정원일기』 국역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집 발간					
구한말 자료집 발간					
현대사 기록 정리					
『제주역사』 편찬					

- 총사업비 : 92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120	200	200	200	200	920

○ 기대효과

- 제주역사 정립을 통한 특별자치도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
- 개별적으로 수행된 제주학 관련 고문헌의 번역을 통한 종합적인 아카이브 구축.
- 제주학의 진흥을 위한 기본토대 구축.

5. 교육문화 교류사업

5-1 제주학교육사업 : 제주학아카데미, 시민강좌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학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 및 대중화 계기 마련.
- 제주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주학에 대한 주민 참여, 향유, 활용의 기회 증대.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학 정책포럼, 제주정체성 시민강좌 등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학 정책포럼					
제주정책성 시민강좌					

- 총사업비 : 22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	50	50	50	50	220

○ 기대효과

- 제주학 진흥의 취지를 도내외적으로 공감, 확장시키는 계기 마련.
- 제주학의 보편화 및 대중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비전 탐색.
- 마을기록사업, 주민구술생애사 등 시민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 제공.

5-2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국외에 산재하고 있는 제주학 관련 자료의 소재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세계에서 제주학과 만나는 접점 또한 제주학 자료 아카이브와 연결될 수 있음.
- 이를 위한 제주학연구센터 인터넷에 영문 홍보 사이트 개설과 담당자 이메일 주소 제시. 외국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성격과 범위를 아울러 제시. 이를 위해 국외에 산재하고 있는 제주학 관련 자료의 소재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외국의 국립문서보관소, 스미소니안 박물관·하버드대학·하와이대학(미국), 天理대학(일본) 등 외국 대학 박물관 소장 자료 수집 작업 추진,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유배인, 근현대 시기 제주를 방문했던 외국인 가문 소장 자료 수집 조사 작업 추진, 제주도와 비슷한 역사문화 배경과 콘텐츠를 지닌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문화교류센터 개설, 제주와 역사 문화적으로 연관 맺었던 한반도, 일본, 오키나와, 동남아, 몽골, 중

국, 대만, 연해주 등 네트워크 구축.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국 자료 수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총사업비 : 40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100	100	100	100	400

○ 기대효과

- 외국의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에 존재하는 제주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제주학 자료 수집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음.
- 국내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제주학 연구 및 제주학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6. 공기관 대행사업 및 국책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연구센터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대형 편찬사업, 국가정책 및 지방정부 정책사업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 있음.
- ※ 제주학연구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임.
- 따라서 민간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힘든 공공의 국가프로젝트, 공기관대행사업 등 정책기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제주학과 연관된 장기적이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제주도지』 편찬사업, 제주어 채록사업 자료 표준어 발간 보급사업, 큰굿 텍스트화 사업. 제주학 서점 개설, 제주학 선구자 조사사업, 제주학 개설서 편찬 등.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도지 편찬사업					
제주어 채록자료 표준어 발간 사업					
큰굿 텍스트화 사업					
제주학 서점 개설 운영					
제주학 개설서 편찬					
제주학 대백과사전 편찬					
제주학 선구자 조사사업					

- 총사업비 : 3,47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0	520	960	935	855	3,470

○ 기대효과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학 관련 공공 정책연구 성과가 다량으로 축적될 수 있음.
- 민간연구기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대형 편찬사업, 대형 조사연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 학술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7.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7-1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구축

○ 사업추진 필요성

- 급변하는 정세 속에 제주의 삶과, 자연,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제주 세대들에게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전해줌으로서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제주 정체성을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 도내·외 산재해 있는 제주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집대성의 필요성 제기.
- 구축된 다양한 자료의 접근성 강화 및 문화자원으로서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화 추진.
- 수집 자료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자료제공 서비스를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확대 구축.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공립 전시시설 온라인 관람서비스 제공.
- 제주연구 및 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자료개방(온·오프라인 동시).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 현재 3만5천 건의 자료를 2020년까지 20만 자료 수집 및 구축 계획. 관공서, 공공기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텍스트(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 파일 등 관리전환, 기증, 매입 등.
 - 자료 디지털화, 데이터 이력관리, 분류, 디지털 업무 표준화 등,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모델로 메타데이터 설정 및 자료의 보존관리, 수집자료의 체계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시스템 확대구축 및 운영전문 인력 확보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관련 중요자료 체계적 자료 수집 및 DB화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확대 구축					
전담 운영조직 신설 운영					
도내 유사 아카이브시스템 통합화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일원화					

- 총사업비 : 1,40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0	300	300	300	300	1,400

○ 기대효과

- 도내 유일 국제적 수준의 통합 아카이브관 조성을 통한 선진적인 문화자원 시스템 구축.
- 체계적·과학적 통합자료 관리 및 고품질의 정보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료가치 재생산.
-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기반 제공.
- 구축된 자료를 교육, 연구, 창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문화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8. 제주학 출판 지원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 학문적 기반 구축과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여.
- 제주학 연구물의 출판비 지원으로 연구자의 의욕고취와 연구 활성화.
- 제주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제주학 관련 연구물 번역서에 대한 출판비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제주학총서 발간과 인터넷 아카이브 탑재를 통해 제주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며, 제주학 자료수집에 시민 참여와 활용 증대를 꾀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다양한 영역의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지원, 제주학 관련 한문·일문·영문 등, 또는 외국서 국문 번역 출판 사업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주학총서 출판지원사업					
제주학 번역출판지원사업					

- 총사업비 : 45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50	100	100	100	100	450

○ 기대효과

- 제주학 연구자 양성지원,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비 지원.
- 제주학 정립 중심 기관으로서 제주학의 발전과 연구자 양성 기여.
- 제주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및 시민들에게 원문 자료를 쉽게 번역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함으로써 제주학의 전문화 및 대중화에 기여함.

9. 제주어 연구사업

가. 제주어 연구 사업 개요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에서 제주어 연구는 중점 특화 사업으로 선정, 자체 연구 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 자체 연구 사업은 다음 3개 사업을 선정, 계획 수립.
 - 제주어 보존·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주어 관련 기초자료 구축.
 -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연구 지원 사업은 다음 3개 사업을 선정, 계획 수립.
 - 제주어 관련 대중화 자료 개발.
 - 제주어 전승자 양성 지원.
 -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나. 기존 사업의 지속과 혁신 방안

<자체 연구 사업>

-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은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수행된 바, 이는 법정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속 사업으로 선정 필요.
- 제주어 정책 연구는 7건이 수행된 바, 제주어 보전 전략 수립 및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지속 사업으로 수행 필요.
 - 연구 주제의 다양화, 정책 제언의 실효성 제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제주어 관련 기초자료 구축 사업은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제주어 보전 및 연구의 기본적

이고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행 기간 중 시행 사업에 포함 필요.

- 제주학연구센터 자체 연구 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으로 시행 필요.
 - 제주어 조사자, 민간단체, 연구단체 등에서 채록한 제주어 자료 수집 및 정보화 필요.
-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은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제주어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에 의한 연구 수행,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으로 그 토대가 마련된 바, 지속적인 구축 확대 및 강화 필요.
- 제주어 보전 및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의 외연 확대 필요.
-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사업은 5회 시행되어 제주어 보전 전략 수립 및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 역할을 한 바, 지속적 시행 필요.
- 효율적인 제주어 보전 전략 수립,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제주어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최 필요.
- 제주어 관련 대중화 자료 개발 사업은 2건이 수행된 바, 제주어 사용자 확산을 위해 지속 사업으로 선정 필요.
- 대상별로 위계화된 내용의 대중화 자료 개발·보급 필요.
-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은 3건이 수행된 바, 제주어 사용 확산 및 제주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를 위해서는 의도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속 사업으로 선정 필요.
- 영역별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지향 필요.
 -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필요.
- 제주어 교육 사업은 제죽말 이해도 향상 및 일상적 사용 분위기 조성으로 제주어 보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되므로 지속 사업으로 선정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제주어 순수 연구는 자체 연구 사업으로 2건 수행된 바, 제주어 연구 기초 자료 구축, 연구 활성화 및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속 사업으로 선

정 필요.

- 제주어 교재 개발, 학문적 연구 등의 사업 시행.
- 연구 인력 양성 및 연구 범위 확대 필요.

<연구 지원 사업>

- 제주어 전승자 양성 지원 사업은 제주어 전승자 양성 시스템 및 기관 부재 등의 사유로 수행되지 못한 바, 현재 여건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난점 존재.
- 제주어 정책 연구 1건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제주어 순수 연구 도서 1건에 대한 발간비 지원이 이루어진 바, 제주어 연구 역량 강화, 연구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 사업으로 선정 필요.
- 연구 지원 사업은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제한적 대상과 분야에 대해서 시행된 바, 향후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원 분야의 다양화 필요.

<기타>

- 자체 연구 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특정 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체 연구와 연구 지원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사업 효과의 극대화 필요.
-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및 기대 효과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시행 사업 선정 필요.
 - ‘선택과 집중’의 가치 환기 필요.
- 대외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다양화, 내실화 도모 필요.
- 제주어 보전 및 연구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 필요.
 - 언어 정책 및 보전 전략, 연구 방법론 공유.

다. 신규 중점연구사업

< 제주어 연구사업 >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자체 연구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되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진 및 외부 연구자, 연구 단체 간 공조에 의한 사업 시행의 효율성 고려.
-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사업 시행 실적 및 개선 사항 검토를 통해 지속 사업 및 신규 사업 선정.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어 분야 전문가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의 개방적 반영을 통한 지속 사업 및 신규 사업 선정.

< 자체 연구 사업 >

-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2018년~2022년)
- 제주어 정책 연구
 - 제주어 보전, 진흥, 위상 강화 관련 정책 연구
- 『(가칭) 제주어대사전』 편찬
 - 제한적 보급, 절판 등의 사유에 의한 기존 방언사전의 낮은 접근성 극복
 - 표제어 수, 제공 정보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전의 한계를 극복한 언어사전 편찬
- 제주어 조사 및 정보화
 - 제주어 어휘 조사 및 정보화
 - 제주어의 사회방언학적 조사 및 정보화
 - 이야기 자료 채록(신화, 전설, 민담, 생애 구술 등) 및 정보화
- 제주어 자료 구축 및 정보화
 - 민간단체, 연구단체 소장 제주어 구술 자료의 수집 및 정보화

- 제주어 실태 조사
 - 제주어 능력 조사
 -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 제주어 대중화 자료 개발 및 보급
 - 대상별로 위계화된 내용의 대중화 자료 개발·보급
-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 『(가칭) 제주어 음운론』, 『(가칭) 제주어 어휘론』 등 영역별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주어 보전 및 연구 관련 관계망 강화
 - 국내 방언 보전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 소멸 위기 언어 연구자, 언어 정책 담당 기관과의 국제적 협조 체계 구축
 - 제주어 연구자 관계망 강화

< 연구 지원 사업 >

- 제주어 연구서 발간비 지원
 - 제주어 관련 연구서 발간비 지원
 - 제주어 연구 활성화 환경 조성
- 제주어 정책 연구비 지원
 - 제주어 정책 연구의 객관성, 다양성 도모
- 제주어 문학 창작물 발간비 지원
 - 제주어로 표기된 문학 창작물에 발간비 지원
 - 제주어 사용 확산 환경 조성
- 제주어 조사 지원
 - 제주어 음운, 어휘, 이야기 등 조사 지원

라. 소요 예산(안)

- 총사업비 : 1,500,000천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자체 연구 사업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어 정책 연구 제주어 조사 및 정보화 제주어 자료 구축 및 정보화 제주어 실태 조사 제주어 대중화 자료 개발 및 보급 제주어 교재 개발 및 보급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주어 보전 및 연구 관련 관계망 강화 등	70	100	100	100	100	470
	『(가칭) 제주어대사전』 발간		200	200	200	200	800
연구 지원 사업	제주어 연구서 발간비 지원 제주어 정책 연구비 지원 제주어 문학 창작물 발간비 지원 제주어 조사 지원 등	30	30	30	30	30	150
합계		100	330	330	330	330	1,420

주 1) 『(가칭) 제주어대사전』 발간은 장기 사업인 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시행 기간인 5년간의 소요 예산만 반영

주 2) 인건비 미포함

10. 자연과학분야 제주학 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 제주학과 관련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사업은 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 이는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 때문임. 장기적이고 방대한 규모이기에 연구과제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있음. 자연과학 분야 연구사업은 지역학과 융합된 특정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라산, 오름, 꽃자왈, 습지, 섬, 지하수, 해양을 비롯한 제주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에 한정하여 아카이브 구축, 연구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원의 확보가 요구됨.
-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반영함.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이 제주학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목표임.
- 자연자원의 보고인 제주에서 지질, 화산, 경관, 생태, 지하수, 해양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특성을 연구과제로 발굴하고, 해설서 발간, 현장 답사 활동을 통하여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함.
- 금번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에서 자연과학 분야는 전반기에 한국연구재단이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과제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이를 기초로 파생적으로 지속성을 갖는 연구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 사업추진 개요

- 추진내용 : ‘한라산의 자연’ 시리즈 발간, 자연사 연구 서양인 선구자 발굴, 100년 전 지적 기록화 사업, 제주 부속섬 조사, 사라져가는 용천수 조사, 잃어버린 꽃자왈 조사.
- 추진주체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기획팀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5년 연차사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한라산의 자연 시리즈발간					
자연사 연구 서양인 선구자 발굴					
100년 전 지적 기록화 사업					
제주 부속섬 조사					
사라져 가는 용천수 조사					
잃어버린 꽃자왈 조사					

- 총사업비 : 350,000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50	100	100	100	350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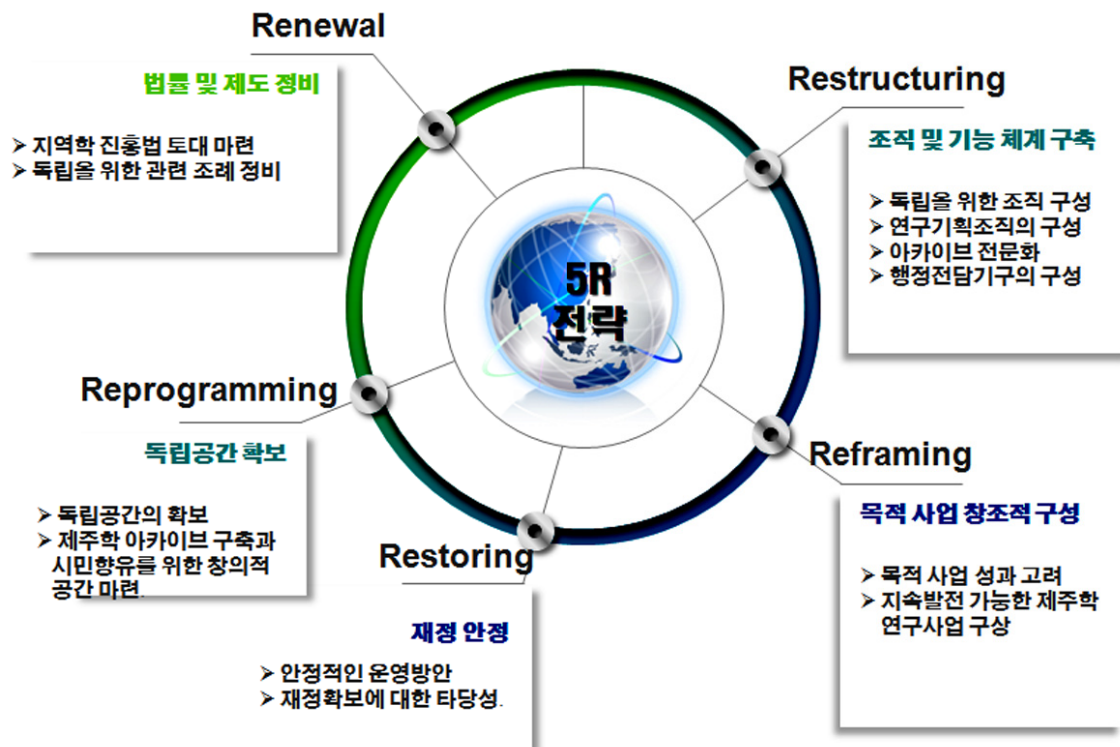
- 한라산, 귤자왈, 용천수, 섬 등의 자연자원과 선구자, 지적 등의 근대사 자료는 현재 제주 자연자원의 세계적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미비된 상태임.
- 위 연구조사 사업들은 새롭게 발굴된 사업들로서 제주만의 독창적인 연구 주제이며 기 연구된 바가 없음.

VII. 실행계획

1. 행정계획

1-1 제주학연구센터 독립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제주학연구센터가 2차 운영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독립을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를 둘러싼 내·외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과 위상 확립이 필요함.
- 본 기본계획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 확립을 위해 법(Renewal), 조직(Restructuring), 재정(Restoring), 고유 목적 사업(Reframing), 공간(Reprogramming) 등 5R전략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1-2 법률 및 제도 정비

- [관련 법률의 제정 노력]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지역학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으로는 지역학에 대한 직접적 수혜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 없음. 전국 지역학 연구단체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학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지역 연구 토대를 구축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201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민간이나 대학 내 연구소 안에 머물러 있던 제주학은 지자체의 공식적인 제주학 전담시설 설립의 단계로 진전됨. 제주학 연구센터의 경우 지역학 연구기관 중 조직 운영 안정성,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가장 확실한 요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운영(제정 2013.03.20. 일부 개정 2016. 07. 08., 2016. 11. 23.)을 들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VII-1>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사업명	추진시기					비고
		'17	'18	'19	'20	'21	
관련 법 제정	지역학진흥법 제정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발전가능한 지역학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조례 정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개정						독립에 대비한 조례 개정의 필요

1-3 조직의 창조적 구성 및 기능 확대

- 독립을 전제로 한 창조적 조직의 구성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함. 연구기획팀의 신설, 아카이브 연구 관리팀 구성, 행정전담팀의 구성 등이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기능 분야를 토대로 조직 형태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센터의 독립성과 사업 추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에게 조직 및 인사의 관리권을 부여하여 소속감과 업무 전문성 축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제주학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제주학연구센터 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 성과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통합 관리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조직의 창조적 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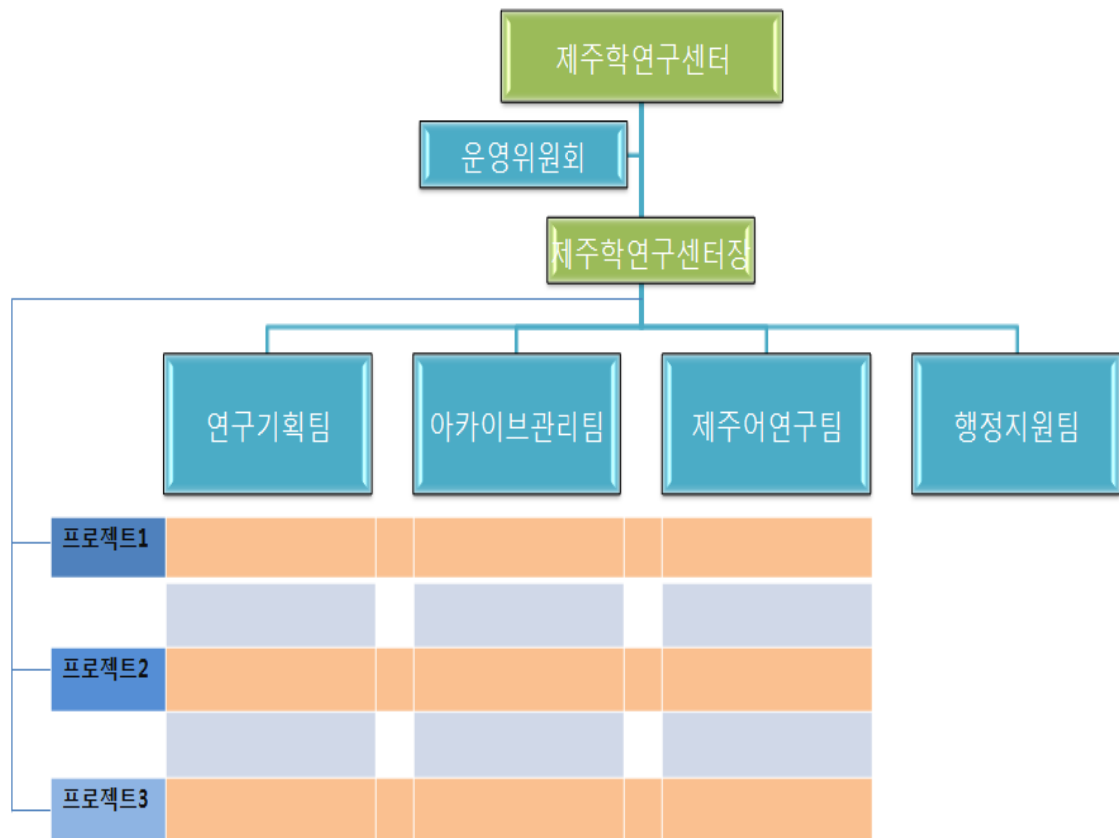
<표 VII-2> 조직의 창조적 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사업명	추진시기					비 고
		'17	'18	'19	'20	'21	
조직 재정비	조직재설계						
통합관리 기능 구축	성과 관리 체계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KMAC(2010)의 ‘업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조직재설계 과정’에 따르면 조직구조의 유형은 기능별 조직, 사업부별조직, 프로젝트 조직, 매트릭스 조직 등으로 분류됨. 기능별 조직(Functional Structure)은 전체 조직을 기능별 분류에 따라 형성시키는 것임. 사업부별 조직은 이익책임단위로서 각각 자율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분권적 조직 형태를 말함. 프로젝트 조직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통합·조정을 통한 조직상의 혁신을 꾀하는 것임.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혼합한 형태로 조직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임.

- 제주학연구센터는 학술연구사업 및 교류사업을 비롯하여 제주학 연구단체 및 연구자 지원 사업, 제주학 시민향유 사업 등을 통하여 제주학 및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기능별 목표달성이 가능하면서도 때때로 프로젝트 조직을 통하여 제주학 연구단체 및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에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VII-3> 매트릭스 조직 형태의 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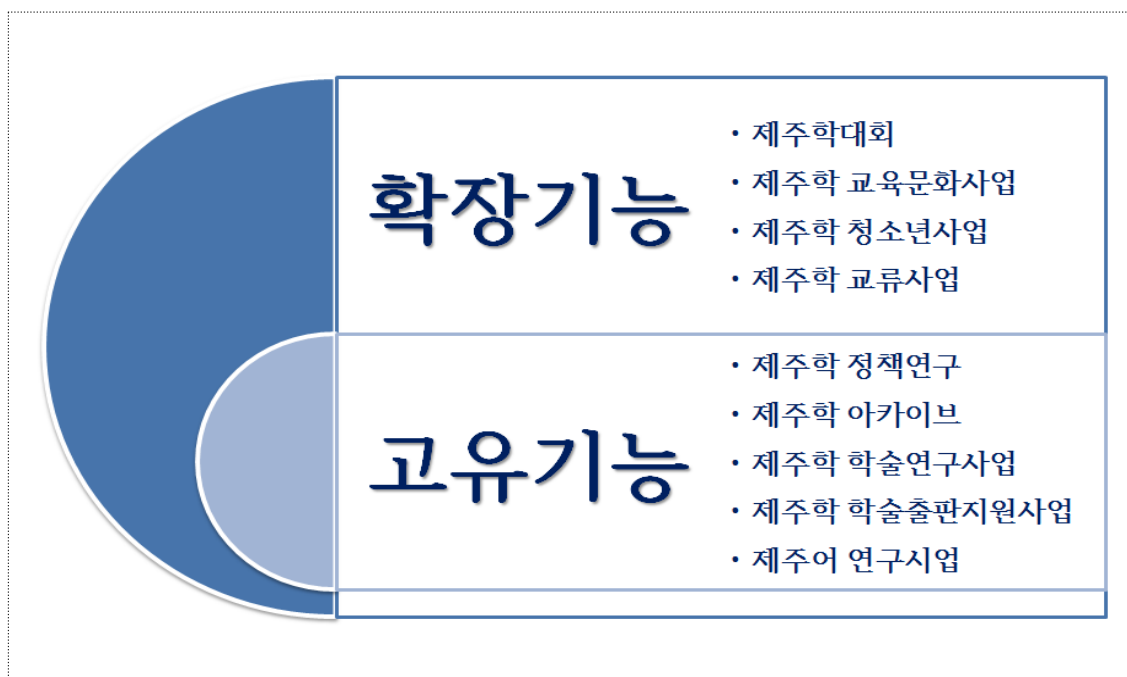


○ 독립 후에는 제주학연구원으로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완성도를 갖추.

<표 VII-4> 독립 후 제주학연구원 조직도



○ 제주학연구센터의 창조적 조직 구성과 기능 확대를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학술연구사업 및 지원 사업 등의 고유기능과 더불어 교류사업 및 시민향유 사업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 재편되어야 함.



- 핵심 기능을 통한 조직인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직 인력 규모의 편성은 다음과 같음.

<표 VII-5> 조직인력 규모 및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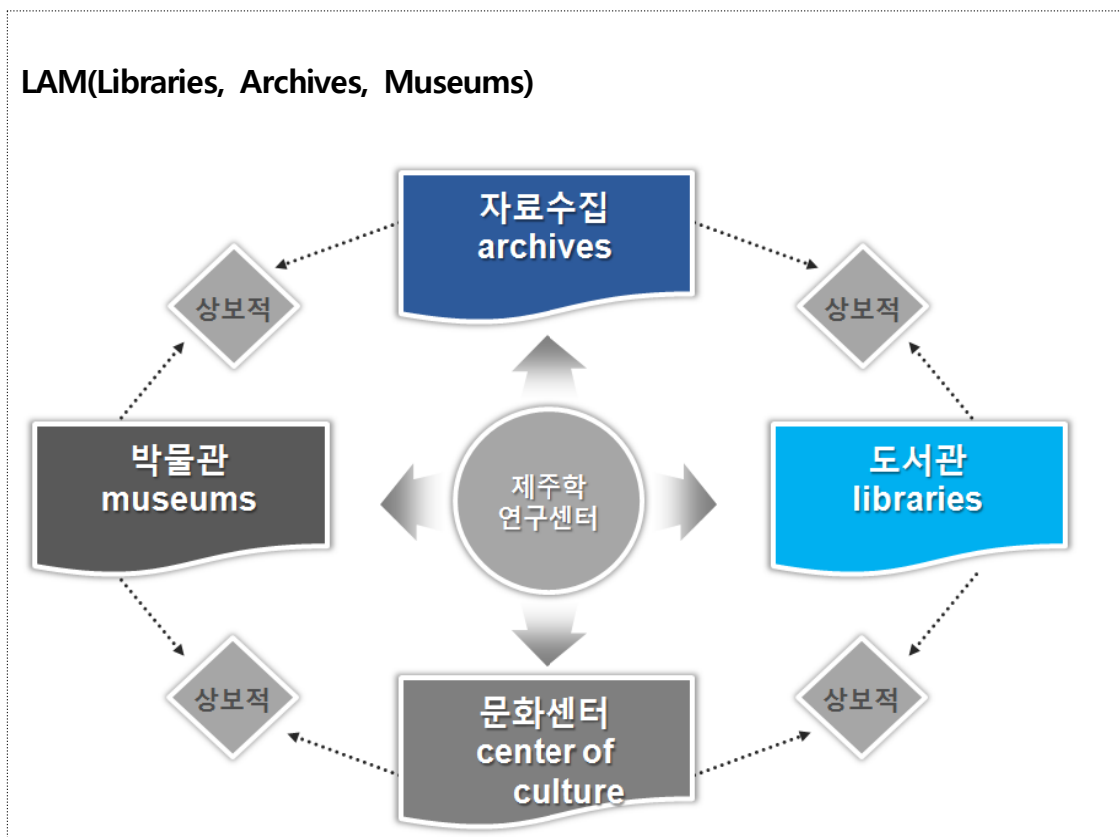
구분	업무 내용	인력의 구성			단계별 인력 확대				
		필요 인력	현재 인력	추가 인력	'17	'18	'19	'20	'21
연구 기획 팀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5	1	4	1 (석)	1 (박)	1 (석)	1 (석)	
	제 주 학 대 회								
	제 주 역 사 편 찬 사 업								
	교 육 문 화 교 류 사 업								
	대행사업 및 국책사업								
아카이브 관리 팀	제 주 학 아 카 이 브 시 스 템 관 리	3	1	2		1 (석)	1 (석)		
	제 주 학 총 서 발 간 지 원 사 업								
제주 어 연구 팀	자 체 연 구 사 업	2	1	1					1
	연 구 지 원 사 업								
행정 팀	행 정 · 회 계	3	1	2	1		1		
계		13	4	9	2	2	3	1	1

* 센터장 및 운영위원회, 비상임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 등을 포함하지 않은 인원임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지역학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 내부 운영규칙을 제정,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함. 또한 통합관리기능을 구축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 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함.

1-4 독립 공간의 확보

-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는 조직의 발전과 안정, 사업 확대에 의한 상근 및 비상근 연구 인력의 확대, 아카이브 자료의 구축과 시민 향유 공간 등 독립을 위한 기반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공간 확보는 단계별 과정을 통해 독립 건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독립된 공간의 구성은 수요 및 업무 분석에 따라 규모와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LAM(Libraries, Archives, Museums)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학연구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최소 건립 규모 : 600m²
- 최소 사업비 : 3,500백만 원

<표 VII-6> 독립 후 공간 구조

시설명	용 도	규모(m ²)
자료관(archives)	문서수장고, 도서 서고, 귀중본 수장실, 자료인수실 등	300
도서관(libraries)	도서 열람, 도서 대출, 온라인 자료, 미디어실 등	150
박물관(museums)	전시, 상영 등	150
문화센터(center of culture)	교육, 동우회 활동 등	
연구실 및 작업 공간	연구업무, 행정업무, 학예활동	

- 자료관 및 도서관 : 제주학 연구결과물의 공개 및 열람 프로세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예상됨. 또한 기존 우당도서관, 한라도서관, 제주대 향토 자료실 이용 등 제주관련 이용자 수를 파악해볼 때, 평균 각 기구 오프라인 이용자는 연간 30~40만 명. 대출 자료 수는 40만 권이 되기에 제주학연구센터 독립 건물이 확보되고, 도서관이 설치되었을 때, 연간 30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함.

<표 VII-7> 독립 후 시설 공간 예상 이용 층위

시설공간	예상 이용 층위	예상 열람 내용
공개 및 비공개 열람실	일반이용자	전체 서비스 이용, 열람
	학생/교사	관련 도서 및 특화 컬렉션 열람
미디어아트 열람실	네트워크 기관	업무상 특화 컬렉션 열람
	연구자	연구를 위한 기록 열람
	미술전공자	도록 등 전시 관련 도서 및 정보 열람
	일반이용자	전체 서비스 이용, 열람
	학생/교사	관련 도서 및 특화 컬렉션 열람
온라인 자료실	네트워크 기관	업무상 특화 컬렉션 열람
	연구자	연구를 위한 자료 열람
	미술전공자	도록 등 전시 관련 도서 및 정보 열람
	작가	특화 컬렉션 도서 열람
	콘텐츠 제작자	전시도면이나 특수 매체를 이요한 기록 열람
	학생/교사	관련 도서 및 특화 컬렉션 열람

- 박물관 : 현대적 아카이브 흐름에 맞는 복합매체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본 전시 프로그램 및 상설기획 전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야 함.
예) 미국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는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와 연계, 코리안 시네마테크를 통해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형성(해외방문학자, 작가, 학생, 연구기관 등).
 - 문화센터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지난 3년 간(2014~2016) 제주관련 강좌 수강 도민은 3,000여 명으로 추정됨. 제주 관련 교육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자료 증가와 건물 확장에 따른 여유 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또한 방문자 접근성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제주관련 교육강좌 수강생 300명 중 92.7%는 제주관련 자료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공간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음. 특히 제주 관련 자료 이용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VII-8> 결집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구분	제주자료 결집 아카이브실	시민향유 및 체험공간	연구자들의 연구공간	시민교육 장소	청소년 체험공간	온라인 자료 이용실
찬성(명)	221	246	212	239	245	234
백분율(%)	73.7	82.0	70.5	79.7	81.6	78.0

2. 재정계획

2-1 재정의 안정 및 투자계획

- 제주학연구센터의 독립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학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의 확대는 필요 요건임.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목적 사업의 촉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제주학연구센터의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이 100%임. 재원의 경로를 다양화함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VII-9> 재정 확보 추진일정

(단위 : 억원)

추진과제	재원의 형태	추진 시기별 재원액					비고
		'17	'18	'19	'20	'21	
재원 확충 방안	도 출연금	12(8/4)	15(10/5)	20(14/6)	20(14/7)	20(14/7)	
	공기업 출연사업	-	3	3	3	3	
	공기관 대행사업	2	5	5	5	5	
	국책사업	-	5	5	5	5	
	합 계	14(10/4)	28(23/5)	33(27/6)	34(27/7)	34(27/7)	

※ 도 출연금 : (사업비/운영비)

- 장기적으로 자료 및 연구결과물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2-2 목적 사업의 창조적 구성

- 제주학연구센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연속과 변화를 꾀해야 하며, 사업을 창조적으로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목적 사업은 단계별로 구체적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2차 시기에는 기존 연구사업의 지속과 새로운 연구사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학연구기획팀, 제주학아카이브팀, 제주어연구팀, 행정지원팀으로 나누어 그 사업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함.
-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목적사업은 크게 제주학 연구기획사업, 제주학 아카이브사업, 제주어 연구사업 등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VII-10> 주요 목적사업

대분류	중분류	2017년 추진사업 계획
제주학 연구기획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자체연구 2건 -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 - 제주해양생활문화 연구
		기획주제 연구지원 2건
		자유공모 연구지원 4건
	제주학대회	국제학술대회
		제주학연구기관 세미나
		제주어 세미나
		제주학 도서사진전, 시민특강
	제주역사 편찬사업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일제하 신문기사 편찬
	교육문화 교류사업	제주학아카데미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대행사업 및 국책사업	제주도지 편찬사업 등
제주학 아카이브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구축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확대 구축
	제주학총서 출판지원사업	제주학총서 출판지원사업 6권
		제주학총서 번역 출판지원사업 2권
제주어 연구사업	자체연구사업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가칭) 제주어대사전』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지원사업	제주어 대중화 자료 발간
		제주어 연구·교육자료 발간

○ 제주학연구센터의 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제주학 관련 연구(자체, 지원)는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는 제주학 연구 및 활용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분야이므로, 전문적으로 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내·외 산·학·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주학 관련 연구 체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출판 및 발간 지원 사업은 총서, 역사 편찬, 번역서 외에도 여러 제주학 관련 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 출판을 통해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제주학대회는 시민들이 제주학을 전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학술축제로서 창조적 구상이 필요하며, 이 장을 계기로 제주학연구자 및 연구단체들, 그리고 지역학연구단체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무엇보다 학문후속세대의 관심을 유발하는 대회 기획이 필요함.
- 교육문화 교류사업은 제주학연구센터의 고유 기능 외에 확대된 기능으로, 시민들의 제주학 향유 기회 확대 및 제주학연구센터의 글로벌 외연 확대를 염두에 두어야 함. 미래는 트랜스로컬(trans-local) 시대로서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학을 염두에 두어야 함.

2-3 연도별 사업 추진 일정과 소요예산

- 제주학연구센터의 고유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학 연구를 진흥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어야 하며, 발굴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과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VII-11> 연도별 사업 추진 일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7	'18	'19	'20	'21
제주학 연구 기획사업	제 주 학 관 련 연 구 사 업	자체연구					
		기획주제 연구지원					
		자유공모 연구지원					
	제 주 학 대 회	학술대회/도서사진전 등					
	마을기록화사업	읍면별 순차 실시사업					
	제 주 역 사 편 찬 사 업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일제하 신문기사록 편찬 구한말 관찬자료집 편찬 제주역사(개설서) 편찬 등					
	자 연 과 학 분 야 연 구 사 업	'한라산의 자연' 시리즈 발간 사라져가는 용천수 조사 등					
	교 육 문 화 교 류 사 업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학 정책포럼 제주정체성 시민강좌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대 행 사 업 및 국 책 사 업	제주도지 편찬사업 제주어자료 표준어 발간사업 큰굿 텍스트화 사업 제주학 서점 개설 제주학 선구자 조사 사업 제주학대백과사전 편찬 제주학 개설서 편찬 등					
제주학 아카이브 사업	아 카 이 브 시 스템 관 리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구축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확대 구축 등					
	제 주 학 출 판 지 원 사 업	제주학총서 출판지원사업 제주학 번역출판지원사업					
제주어 연구사업	자 체 연 구 사 업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어 정책 연구 제주어 조사 및 정보화 제주어 교재 개발 보급 등					
	연 구 지 원 사 업	제주어 연구서 발간비 지원 제주어 조사 지원 등					
	대 행 사 업	(가칭) 제주어대사전 발간					

<표 VII-12> 연도별 세부사업 소요 예산(추정)

(단위 : 백만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원	'17	'18	'19	'20	'21	계
제주학 연구 기획사업	제주학 관련 연구 사업	자체연구	도비	80	100	100	100	80	460
		기획주제 연구지원	도비	80	100	100	100	100	480
		자유공모 연구지원	도비	50	100	100	100	100	450
	제 주 학 대 회	학술대회/도서사진전 등	도비	100	100	100	100	100	500
	마 을 기 록 화 사	읍면별 순차 실시사업	도비		150	150	200	300	800
	제 주 역 사 편 찬 사 업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 일제하 신문기사록 편찬 구한말 관찬자료집 편찬 제주역사(개설서) 편찬 등	도비	120	200	200	200	200	920
	자연과학분야 연구 사업	‘한라산의 자연’ 시리즈 발간 사라져가는 용천수 조사 등	도비		130	90	65	65	350
	교 육 문 화 교 류 사 업	제주학 아카데미 제주학 정책포럼 제주정체성 시민강좌 등	도비	20	50	50	50	50	220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도비		100	100	100	100	400
	대행사업 및 국 책 사 업	제주도지 편찬사업 제주어자료 표준어 발간사업 큰굿 텍스트화 사업 제주학 서점 개설 제주학 선구자 조사 사업 제주학대백과사전 편찬 제주학 개설서 편찬 등	국비 도비 기타	200	520	960	935	855	3470
제주학 아카이브 사업	아 카 이 브 시스템 관리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 구축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확대 구축 등	도비	200	300	300	300	300	1400
	제 주 학 출 판 지 원 사 업	제주학총서 출판지원사업 제주학 번역출판지원사업	도비	50	100	100	100	100	450
제주어 연구사업	자 체 연 구 사 업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주어 정책 연구 제주어 조사 및 정보화 제주어 교재 개발 보급 등	도비	70	100	100	100	100	500
	연 구 지 원 사 업	제주어 연구서 발간비 지원 제주어 조사 지원 등	도비	30	30	30	30	30	150
	대 행 사 업	『(가칭) 제주어대사전』 발간	도비		200	200	200	200	800
합 계				1000	2280	2680	2680	2680	11300

<참고문헌>

- Edward J. Shultz, 2004, ‘미국 내 지역사 연구의 전망과 조건 : 하와이대학교의 안동연구 진행경과 및 성과를 중심으로’, 『안동학 연구』 3집.
- Haga Shoji, 2004, ‘18~19세기 나고야학과 지역지식인’, 『안동학 연구』 3집.
- Kinda Akihiro, 2004, ‘일본에서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안동학 연구』 3집.
- 권수진, 2001, 『사회복지관 재정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 樂成顯, 2004, ‘중국 지방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 휘학을 중심으로’, 『안동학 연구』 3집.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1차 중기발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조례 1020호)」.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11, 『제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 좌혜경, 2012,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좌혜경, 2012, 『제주학 연구기관·단체 편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현혜경, 2016, 『제주학 교육사업 결과보고서 :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 강좌』,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현혜경·강수경, 2015, 『제주학 시민신탁과 대중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현혜경·김대호, 2016, 『제주학 시민 향유 실태 및 수요조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KMAC, 2010, 『업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조직재설계 과정』.
- (財)山形県生涯学習文化財団, 2000, 『全国地域学ハンドブック』.
- 公益財団法人山形県生涯学習文化財団, 2014, 『山形学－山形における地域学の成立と展開』.
- 彩の国さいたま人づくり広域連合, 2009, 『平成20年度行政課題研究 「地域学の可能性」』.

• 홈페이지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제주학아카이브 <http://www.jst.re.kr>
- 서울학연구소 <http://seoulstudies.uos.ac.kr/>

인천학연구원 <http://www.isi.or.kr/study/main/index.php>
경기학연구실 <https://gjicp.ggcf.kr/business-status/gyeonggi-research/spirit>
충북학연구소 <http://www.cri.re.kr/>
공주학연구원 <http://igs.kongju.ac.kr>
영남문화연구원 <http://ynculture.knu.ac.kr/>
부산학연구센터 https://www.bdi.re.kr/04annexcenter/02_01.asp
울산학연구센터 http://www.udire.kr/about/about03_08.php
호남학연구원 <https://www.gamsung.org/>
제주학회 <http://www.jejustudies.or.kr/>

<부록>

■ 분야별 전문가 회의록

1. 인문학 분야

회의 일시	2016년 07월 6일 17시~18시	회의 장소	제주발전연구원 소회의실
참석자	김동윤 제주대학교 교수, 김동전 제주대학교 교수 박경훈 제주섬문화연구소 소장, 윤용택 제주대학교 교수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수 내부(센터) : 박찬식, 현혜경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 현승환 교수

-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 집/사람/생활양식/이웃과의 소통 방식 등
- 기층문화로서 화전, 농경문화(민요 등)에 주목
- 제주도내 지역별 농사법 정리 필요(동영상 기록 필요) : 기록화사업
- 기획 촬영이 필요함(농사를 직접 센터 인력이 지으면서 촬영)
- 축산 및 어업, 일생의례에 대한 장기적 사업이 필요

□ 김동윤 교수

- 제주학대회
 - 제주학대회와 관련하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도서전 참여 의사 피력
 - 제주학대회도 소통 중심이 되어야 함
- 제주학연구센터 위상 정립
 - 2015년에 말했던 부분으로, 제발연과 연구공모 방식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음. 독자적인 위상 강화 필요
 - 지역 대학과의 교류 증진 필요 : 지역대학 교수 참여 과제 증대
- ※ MOU, 지역 대학연구기관 체결 없음
- 제주학연구센터는 연구기관보다 한국연구재단처럼 연구지원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이 필요 → 향후 ‘제주학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필요

□ 박경훈 소장

- 향후 5년이 제주학센터 위상 확보 및 도약기로 중요함
- 센터의 방향성 :
 - ① 지역학 연구지원센터
 - ② 제주학 디지털정보센터(웹 검색 서비스 강화)
 - ③ 제주학 아카이브 센터
 - ④ 제주학 대중화 센터

○ 김동전 교수

- 기본방향에 대해 고민 시점 : 제주발전연구원 하부기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음.
 - 센터장 공모를 통해 선발했으니, 독립기관으로 발돋움해야.
- 제주학의 범위를 전체 아우르는 것은 문제
 - 제주문화와 가치(정신) 중심으로
 - 자연과학 분야 : 제주정신, 제주문화에 귀결될 수 있는 특수한 분야 추출
→ 결국 인문학으로 집결
 - 사회과학은 제발언에서 할 수 있음.
 - 제주어 중점연구 : 상당부분 특화되어 있지 않음. 잘 묶어서 해야
- 토대구축 체계적으로 : 한국연구재단 토대 구축사업 확보하기 어렵다. 연구단체, 대학에 토대 구축할 수 있게, 기초자료조사 가능하도록 돈을 쥐야 함.
- 대중화사업 : 평생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민→독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탐라문화연구원 공동사업으로 하길 바람.
- 제주학대회 학술사업 지원
 - 큰 틀의 이슈(주제)를 주고, 전체 국내 학회도 참여 가능하게 해주길
 - 글로벌 학술연계 지원사업으로 발전 : 타이완과 오키나와와 공동주최 추진

○ 박경훈 소장

- 제주학대회→대중화 중요, 제주학과 섬문화 연결(섬문화축제 부활 조짐)

○ 윤용택 교수

- 제주학대회
 - 주관기관 돌아가면서 하자(예: 탐라문화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 ※ 타 위원들 대다수는 부정적 의견 피력 / 공공연구기관이 해야 타당
 - ※ 박찬식 제안 : 「제주학대회 추진협의회」 구성
- 「제주학관련 총목록」 작성 제안 :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 작성 제안
 - 제주학 분류 사전, 연구 총목록 등 : 대학연구기관과 협업 필요
 - ※ 김동전 : 오키나와에서는 매년 1권씩 편찬하는 사례 언급

-
- 제주어사전 디지털 서비스
 - 2014~ 제주대 국어문화원에서 제주어 전수조사 사업→대사전사업 추진→디지털 사업/아래아(·) 연구 5억원
 - 제주문화원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자연과학 포함).
 - 가치부여 : 가치부여 세미나 학술조사, 자료조사 영역
 - 인문활동과 연계
 - 인문생태→제주학
 - 제주학을 인문사회에만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선택과 배제에 대한 조심)
 - 자연과학 : 감귤/어류/오름... 등 제주의 특수한 분야 연구 필요성

○ 박찬식 센터장

- 연구 분야 좁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음. 그러나 제주학은 문화 중심, 특성 중심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함.
 - 공공영역기반
 - 토대구축사업이 가능(대학에 맡길 수도 있지만, 고전번역사업 등)
 - 지원센터 역할이 큼(내용 기획→지원에 주력)
 - 주제별 공모 염두(실제는 어려움 있음)
 - 대중화사업
-

2. 사회과학 분야

회의 일시	2016년 07월 8일 16시~18시	회의 장소	제주발전연구원 소회의실
참석자	김동주 에너지민주화센터 연구원, 김진호 제주대학교 교수 정광중 제주대학교 교수, 홍선영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황석규 제주민주화사료연구소 소장 내부(센터) : 박찬식, 현혜경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 박찬식 센터장

1. 제주학은 제주와 연관된 ‘특징’있는 분야/‘문화’탐구 학문으로 가야함.
2. “대학에서 하면 될 것들”에 대한 논쟁 :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역할 모색
 - ① 기초자료 구축과 해제(토대사업) 아카이브관 설립
 - ② 지원과 네트워크 구성 : 기초자료+인문/새로운 이론적 토대 구축
(보조금 사업, 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사례)
 - ③ 국가정책/도정책사업 수행(전담기구): 인문학진흥법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
 - ④ 대형편찬사업 : 제주통사, 제주어대사전
 - ⑤ 대중화사업 : 시민 대상 교육사업, 제주학대회 추진 등

□ 김진호 교수

- 대학 제한된 진입
- 향후 5년 동안 인문중심+사회과학분야 열어주길~
- 섬연구소와 탐라문화연구원과의 유사성 논쟁 등 인문대 배타성

□ 황석규 소장

- 제주학연구센터가 자리를 잘 잡았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잘 안되었으면 기본에 충실하길
- ‘문화’란 주제 때문에 유사 연구단체들 간의 논쟁이 있음.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함. 에너지처럼 에너지는 제주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
- 제주발전연구원은 정책 수행기관이지만,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민의 삶과 질을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함.

□ 홍선영 교수

- 지역학 네트워크. 접점을 맺어주는 역할 기대

-
- 김동주 연구원
 - 조직형태 → 독립할 때라고 봄.
 - 황석규 소장
 - 원자료(토대연구) → 해석
 -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포스트닥터 활용사업 등 기획 : 제주학 포닥 지원사업 (홍선영 교수 해외→제주 와서 연구하는 포지션 확보 필요)
 - 정광중 교수
 - 평가 부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고민할 것.
 - 제주학연구센터 새로운 발굴, 기획이 필요: 제도적 차원과 다른 별도의 차원 필요
 - 관심있는 사람들을 통한 역주제 선정
 - 제주학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적(연구자) 리스트 작성
 - 활용, 관리시스템 만들어야
(김동주 제안 : 연구자 등록, 연구비 신청 등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도입 언급)
 - 젊은 학자들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지향
 - 김진호 교수
 - 제주학회와 제주학연구센터가 공동협력(상생 맥락에서) 학술지 지원 사업 모색
 - 현혜경 연구위원
 - 학문후속세대 양성문제 논의구조에 놓여야 함.
 - 제주학 이론적 토대 강화, 정체성 연구, 인력의 문제 등
-

3. 자연과학 분야

회의 일시	2016년 07월 19일 17시~19시 30분	회의 장소	제주학연구센터 회의실
참석자	강순석 지질연구소장, 강시영 한라일보 선임기자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사 김찬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소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전용문 제주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박사 내부(센터) : 박찬식, 현혜경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 ☐ 박찬식 센터장
 - 제주학과 자연과학 연계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음.
 - 국립기관들이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자연과학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있음.
 - 그러나 자연과학분야 중에서 ‘문화’, ‘제주특성’(사람과 연관되는 자연분야)을 드러내는 부분은 제주학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 이제까지 제주학연구센터 자연과학분야 소홀했음.
- ☐ 강순석 소장
 - 제주학에서 자연과학은 꼭해야 하는 부분이며, 그에 대한 인식 확대가 중요.
 - 외부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여김.
 - 제주 100년대계 제안서 제출이 필요함.
- ☐ 강시영 기자(별도 페이퍼 작성, 발표)
 - (분량이 많아, 아래 별도 작성) 관련하여 사진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제주대 독일학과와 협력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함.
 - 그 외 추자도 부분: 도립공원, 산업의 위기, 주민인구 1600명으로 급감, 역사문화환경관광 관련 프로젝트 진행 필요 →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자도 문제 접근 필요성 있음(*김태일 교수와 연계되는 내용임).
- ☐ 김찬수 소장
 - 조례에서 다루는 제주학 정의 부분을 보면 인문사회도 애매하고, 자연과학에서 보면 취약.

-
- 식물분류학, 식물의 역사, 작물의 역사 등은 제주를 알리는 데 중요한 기점.
 - 식생사(자연사)는 아무 데도 속하지 않는 학문이면서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식물분류학 다루면 좋을 듯.
 - 더불어 스토리텔링(박물학 같은 것) 중요 → 제주도 박물관 같은 것. 그런데 자연과학분야에서 취약
 - 제주학연구센터 한 분과로서 자연과학 있어야 함.
 - 식생사=역사와 관련, 어떤 식물명(『향약집성방』에 있는 식물)에 대해 서울 사람들은 전혀 이해 안 되는 식물명이 있음. 제주도 사람들은 안다는 것. 향토사학자는 모르고 자연과학분야 사람들은 안다는 것.

□ 강순석 소장

- 자료집 8쪽 보면 자연과학 분야 연구대상 자연환경, 한라산, 지질, 식물 순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 한라산 연구가 핵심임.

□ 전용문 연구원

- 일반인들(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설계
- 지질테마 재미있는 분야가 많음 → 제안했을 때 수행 방식에 대해 제고

□ 박찬식 센터장

- 센터 연구인력이 할 일은 기획, 사업발굴, 협업, 네트워크라고 봄.
-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센터 공모 등으로 사업 발굴이 필요
- 자연과학분야 좋은 테마가 있으면, 자연과학분야 인력 연결, 협업 → 의뢰.

□ 강순석 소장

- (전용문 연구원 의견에 대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할 역할까지 제시 부탁

□ 김찬수 소장

- 역할 중복에 대한 부분
- 국립연구기관은 국가 전체의 일부로서 제주 연구하는 것임. 꽃자왈, 한라산 연구도 국가 전체의 일부로서 연구하는 것임. 따라서 제주학과는 거리가 있음.

□ 김완병 연구사

- 탐사프로그램 만들어서 →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센터
 - 문헌정보, 연구동태 파악해서 센터가 허브 역할
 - 토종자원 개발 → 리스트 작성
-

-
- 지역 생물종 다양성은 잘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음.
 - 전국의 연구자들은 제주를 연구해야 생물종 다양성 연구를 할 수 있음.
 -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 → 지나친 학문 역할보다는 대중화 사업 필요

□ 강순석 소장

- 자연환경 보존 문제
- 환경정책의 중요성 → 경관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 도시 경관 등
- 도시계획의 중요성 → 정책연구 중요성 필요

□ 김태일 교수

- 연구자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제 지원 필요
- 1914년 지적도 → 제주도 전체 아카이브 구축 가능
- 1914년 지적도 아카이브를 통해 옛길 등 공간 조명 → 3차원적 지도(CAD파일) 가능 → 인문학자 연구도 가능
- 3차원적 원풍경 가능 → 파생 기능 (옛길, 지명찾기, 대동여지도...등)
- 현해경, 구술사와 연계하면 좋을 듯
- 1967년 항공사진 구입 관련 →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지켜야할 것에 대한 논의
- 제주도 부속섬에 대한 종합조사 제안 → 건축양식, 문화, 음식 등 차이가 있을 것, 문화풍경에 대한 차이
- 1945년 이후 개발이 어떠한 정책과 가치가 발현되었는가? 제주주민 어떻게 대응했는가? 제주도 개발 60년사 정리 필요(정책과 도민 의식수준의 변화 포함)
- 신문 기사 → Big Data 분석 → 핵심적 가치 분석 ⇒ 제주도 개발사 정리, 제주 모습 성찰 등

□ 김완병 연구사

- 1968년 9월 21일에 제주 최초의 경운기 등장(제주1호 경운기). 이처럼, 제주 1호에 대한 정리 제안

□ 전용문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안내하는 가이드 등이 신뢰할 만한 제주문화 및 자연 생태 안내책자를 제주학센터(공공연구기관)에서 발간하면 좋을 듯
 - 많은 안내책자가 각 기관에서 발행되지만, 내용이 서로 상이함
 - (박찬식) 제주관광공사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

※ 강시영 기자 별도 제출 자료

● 한라산 연구 관련

- 한라산 인문학 분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3급 격상)와 협업(MOU)
- 한라산과 4.3, 옛길 추적, 한라산과 문학

● 제주 자연사 선구 서양인 발굴 아카이브 구축

- 겐테
 - ▶ 서양인 최초 한라산 정상 등반, 높이 1950m 최초 측정
 - ▶ 독일 출신의 지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1901년 이재수란 직후 제주 탐방
 - ▶ 한국 여행기 자신이 재직중이던 쾰른신문(1801~1945)에 1년여간 연재(1901년 10월 13일~1902년 11월 30일), 서양인들에게 제주의 존재를 알림. 겐테의 여행기가 장기간 연재된 쾰니세 차이툰은 당시 하루 4번 발행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신문이어서 파급효과도 컸던 것으로 알려짐. 이 신문은 현재 폐간된 것으로 전해짐.
 - ▶ 겐테의 한국 여행기는 이를 책으로 엮은 것. 겐테의 여행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 (1904년)지 1년 뒤인 1905년 그의 동료 게오르그 베게너(Georg Begener)박사에 의해 베를린에서 ‘겐테, 코리아’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되면서 유럽에 한라산과 제주를 알리는 기폭제.
 - ▶ 겐테의 기록은 초기 구미인들의 제주 답험기들 가운데서도 백미라는 평가
 - ▶ 겐테 재조명 위해 1901년부터 연재된 신문자료(사본)독일 현지 입수 아카이브로 구축
 - ▶ 주한 독일대사관, 제주대학교 독일어과, 언론(한라일보)과 공동 진행
 - ▶ 향후 독일대사관 협조로 겐테와 제주 교류 협력 방안 연구
 - ▶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학 정립을 비전으로 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방향과 연계

● 제주광역 국립공원 가칭 ‘제주국립공원’과 관련

- 제주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의 비전과 비견될만한 초대형 의제로서 제주학센터의 역할 모색 필요
- 중산간 오름, 곶자왓, 해양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각각의 자연자원 연구물에 대한 기록화 집대성 작업 모색
- 이 과제는 내년부터 추진될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도 전역 확대 의제와도 연계 가능

■ 전문가 워크숍 회의록

회의 일시	2016년 09월 23일 16시~18시	회의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
참석자	고미 제민일보 기자,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김은석 제주대학교 교수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충기 공주대학교 교수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수, 오영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제주학회장) 내부(센터) : 박찬식, 좌혜경, 현혜경, 오승훈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주제발표 :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7~2021)(안)>

<토론>

☐ 문순덕

- 분명한 센터 방향의 설정과 실행. 센터 운영 방향에 있어 ‘제주학’의 과거 자원을 다룰 것인지, 현재 자원을 다룰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부산의 경우 현재 자원을 중심으로 한 분명한 방향이 존재.
- 센터 발전단계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줄 것. 독립을 전제로 하여 2년마다의 세부 계획 필요. 현 제주발전연구원 소속에서 독자적인 출연 기관으로의 발전

☐ 오영주

- 제주학회와의 소통 필요. 운영위원회에 제주학회 소속 포함시킬 것
- 비전을 새롭게 할 것 :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함
- 제주 지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해야 함.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현재 상황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 문화를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남방문화에서 ‘제주도’의 특성, 성격, 역사 속 제주의 위치 등을 다루어야 함. 특히 13세기 원과 제주의 관계 등도 다루어보아야 함. 제주,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세계의 역사 속 제주를 연구해야 함

☐ 염미경

- 제주도 연구에 대해 제주학회가 단일의 제주 중심 학회지였으나 현재 많이 분화된 상태. 제주학회와의 단절 문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
- 비전 1단계 주력사업을 탄탄히 이어가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비전의

최종 목표가 중요함. trans-local 시대에 맞춰 해외 제주인들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함. 자료 구축, 확장의 계기가 될 것

- ‘구술사’의 주체가 주민, 본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을기록화사업의 경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구축해야 함. 현재 연구자 중심의 구술사가 주민, 사람 중심으로 이전되어야 함
- 일회적·단기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함. 자료 축적이 가능함.
- 공무원 교육 필요. ‘제주학’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필요. 제주학 관련 정책 수립 시 제주학에 대한 지원이 용이해질 것임
- 제주의 정체성은 단지 제주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것만으로 포괄하기 어려워짐. trans-local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제주학’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네트워크가 필요

□ 고미

- 연구‘지원’센터로의 큰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흐름에 맞춰, 제주학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 제주학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의 요구를 해소시켜 줄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 제주대의 경우 현재 지역학이 아닌 한국학을 다룸. 현장에서 제주학을 바라보는 게 필요

□ 김은석

- 비전으로 내세운 세계화를 위해서는 센터 연구물이 해외 학술 저널에 등재될 정도가 되어야 함.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길일 것. ‘제주통사’가 가진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 세계적인 학술 저널을 만들거나 제주학회를 끌어올리도록 협력할 것
- 센터의 독립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필요.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관광국 하부기관 같은 성격으로 독립적이지 못함. 기금 조성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가 좀 더 필요
- 육지 이주민에 대한 아카이브도 필요. 이주민들이 제주로 내려와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갔는지 등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필요

□ 송충기

- 지역학은 중앙의 학문적 체계에서 독립할 필요가 있음
- 공주학의 경우, 시민연구원을 두고 있음. 공주연구원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 장기적인 연구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주대 교수 등 전문연구자들은 측면에서 지원 역할. 현재 12명의 시민 연구원이 있으며 향후 연구원장이 ‘시민’이 될 만큼 역량을 키우려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음. 열린 제주학에 걸맞은 길이 될 수 있을 것임. 제주학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 아카이브의 중요성. 중앙과 관에서 만든 자료들이 대부분임. 지방에서 민간이 만든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움. 이는 ‘시민기록연구자’를 추진하여 중앙-지방-민간 간 정보 불균형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학은 자연과학, 역사, 언어, 지리, 문화 등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기존 학문적 틀에서 지역학의 융합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

□ 고미

- 젊은 세대들이 창조한 자료들을 수용할 것인지 의문
- 기관에서 낸 도서가 다 ‘비매품’이다 보니 활용이 불가능. 실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움.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 고광명

- 센터 연구 현황이 아닌 제주 전체의 연구 현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야 함
- 외국에 있는 자료, 연구자가 얻기 힘든 자료들도 입수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강순석

-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을 목표로 해야 함. 지역 연구를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제주의 특성상 자연환경과 문화, 역사가 모두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가 필요. 모든 유사기관 리스트와 각 분야 연구리스트를 작성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오영주

- 센터 ‘벤치마킹’을 일본으로만 할 수 없으며, 다양한 외국 사례가 필요함

□ 좌혜경

- ‘아카이브’ 활성화 중요. 연구기반 조성, 제주학 홍보뿐만 아니라 제주 연구자원이 세계화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시스템. 명확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 집적이 가능. 교육 자원으로도 유용함.
 - 제주학은 인문 중에서도 문화자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 염미경 교수 별도 제출 자료

트랜스로컬 시대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 방향

전 세계의 사회와 문화의 상호교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권의 상호통합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가와 이를 통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상호연관성 및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연구의 방향도 이를 반영하면서 나아가 하고 제주학연구센터도 이런 틀 속에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들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국민국가의 통합에 대한 강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이같은 흐름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반영되어 등장한 것이 지방사 혹은 지역사와 지역 연구의 활성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학 등 지역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연구 단위로서의 경계가 분명하고 주민들의 정체성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일찍 지역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주학 혹은 지역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기관을 조직하기 시작했고 1967년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78년에 시작한 제주학회, 그리고 1998년에 시작한 제주학연구소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 시기 전지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연구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후 제주사회에서 제주학이 다시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2011년 ‘제주학 연구센터’ 설치 논의가 시작되면서였습니다.

2010년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설치 운영’이 선정되었고, 이것이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고, ‘제주학 기초자료 구축·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제주학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인력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상을 마련했다면,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를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그 실질적 발전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부설이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학연구센터의 2차 운영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시대, 트랜스로컬 시대 제주학의 발전방향을 담아내야 하는데, 이번 2차 운영기본계획 안에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능강화(제주학 연구지원센터, 아카이브센터, 대중화센터, 대형편찬센터, 정책센터 등)와 함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주학 및 제주지역 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없고,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더라도 개별 연구의 단순한 집합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함

니다. 여러 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모여, 동시에 이것이 한데 녹아들면서 새로운 차원의 연구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성과 충분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제주지역 연구 성과들이 충분히 흡수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연구기관들은 물론 지역 외부 혹은 국가 밖 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대학을 넘어서 지역 내외의 다양한 학술단체 혹은 공공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독자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지구화시대, 트랜스로컬 시대 제주학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2차 운영기본계획안에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제주대학교 내에 2012년 제주와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 재일제주인 후손에게 제주의 언어·문화·역사 교육, 재일제주인의 삶을 알 수 있는 자료 전시, 재일제주인 관련 연구 중심 센터로서 ‘재일제주인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대학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민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혼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연구기관이 일본을 비롯해 해외의 제주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해냄으로써 대학의 재일제주인센터와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간다면 각 기관의 특성화와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상호 보완적·협조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주학과 제주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술자료는 문헌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당시 제주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주학 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술사방법론 특강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학 자료수집의 대중화사업 차원으로 이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체계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학을 비롯해 지역학은 지역만의 독특한 언어, 민속의 특수성에 집착하여 급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료를 과거의 원형대로 수집, 보존하는 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문화를 박물관에 전시하는 골동품처럼 화석화시킬 위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자가 해당 지역인으로 제한되게 되면 편협한 지방주의와 배타적 향토주의 같은 지역 특권에 안주할 수 있어 지역학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로컬 시대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의 발전방향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학의 배타적인 관점 도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고 전국적 수준 혹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연구와 상보관계로서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을 바라보려 한다는 점에서 2차 운영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하지만 분리주의적 속성과 지역특수성이 강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연구자와 연구역량 그리고 잠재적 연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의 정체성은 출신 혹은 거주와 같은 향토의식, 애향심, 정주의식만으로 확보되는 것

은 아닙니다. 지역을 특권화하고 지역에 안주하면 연구/학문의 관점이 편벽해져 열린 시각의 확대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서 출발하되, 제주 밖 다른 지역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방법과 이론의 정립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학제 간, 보편론적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 간, 국가 간 이주의 급격한 증가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권 간 접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성과 지역성 간의 새로운 접합 경향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로컬 시대 제주학의 발전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제주문화는 제주만의 것이 아니다. 제주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것이며 세계인의 문화유산이라는 사고로 제주학이 제주를 뛰어넘어 육지부, 동아시아, 세계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2차 운영 기본계획에 재일제주인 등 해외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학이 학문적 개방성, 문화적 역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주학은 과거의 지역에만 머물지 말아야 하고,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진행형의 지역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지역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을 넘어서서 한반도, 동아시아, 전지구적 보편성으로 원근법적 통찰을 지니고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D□□□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학 진흥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설립된 공공 연구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는 1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년)이 2016년에 만료됨에 따라,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전과 운영방향, 사업내용 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제주학연구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국제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실증조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책 수립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Tel. 064-726-0973 / Fax. 064-747-6140

☎ 조사문의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영근 박사(☎ 726-7403)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 모든 항목 각각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가 다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립목적	평가				
	매우 못했다	못했다	보통	잘했다	매우 잘했다
1) 동아시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①	②	③	④	⑤
2)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연구 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학연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제주학 연구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및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및 역할과 기능	평가				
	매우 못했다	못했다	보통	잘했다	매우 잘했다
1)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전반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학연구센터의 고유목적 사업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1020호)’에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다음의 조례 제정사업을 잘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정 사업	평가				
	매우 못했다	못했다	보통	잘했다	매우 잘했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 기반 확충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5년간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음의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잘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 사업	평가				
	매우 못했다	못했다	보통	잘했다	매우 잘했다
1)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 관련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사업	①	②	③	④	⑤
3) 제주학 총서 발간 및 출판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4) 제주어 연구사업	①	②	③	④	⑤
5) 제주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	①	②	③	④	⑤

2차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한 운영 방향

5.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여는 제주학
 - ② 제주학 지식자원의 가치 재창조
 - ③ 시민을 향해 열린 제주학
 - ④ 민간연구단체와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 ⑤ 기타(구체적 기술:)
6.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 공공 연구기관으로 전환
 - ② 제주학 관련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 ③ 제주학 연구의 기초자료 축적 및 아카이브관 설립
- ④ 제주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 ⑤ 기타(구체적 기술: _____)

7.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제주학에 대한 자료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①	②	③	④	⑤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 및 기능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3) 제주학 관련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연구	①	②	③	④	⑤
4) 제주와 관련된 문헌 및 구비(구술)자료 등 제주학 기초 자료 구축과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5) 세계적 수준의 장기 지속적 연구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 여건 조성	①	②	③	④	⑤
7) 제주학 연구결과물의 향유 여건 조성	①	②	③	④	⑤
9) 제주학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기능	①	②	③	④	⑤
8) 기타(_____) ※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8.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의 세 부적인 기능과 주요 업무**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학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구심 연구기관
- ② 제주학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주학 자료 집적기관
- ③ 제주학 관련 연구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④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연구 인프라 구축
- ⑤ 제주학연구센터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
- ⑥ 제주학 관련 공모사업 추진
- ⑦ 세계 섬 지역 문화 교류센터 구축 및 활성화
- ⑧ 타 지역학 연구소와 교류 협력
- ⑨ 제주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주학 진흥기금 조성

⑩ 제주학에 대한 시민 향유 공간 제공

⑪ 기타(구체적 기술:)

9.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다음의 ‘공통 연구사업(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공히 아우르는 연구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통 연구사업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제주학 관련 대형 연구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수행	①	②	③	④	⑤

공통 연구사업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3) 제주학 관련 토대연구 (현장 기초조사 및 전수조사)수행	①	②	③	④	⑤
4) 제주학 관련 총서 발간	①	②	③	④	⑤
5) 제주학 관련 자료집 발간	①	②	③	④	⑤
6) 제주문화 원형 발굴 조사, 보존 활용 방안 및 문화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7)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연구 사업 수행	①	②	③	④	⑤
8) 제주도민 대상 제주학 교육사업 실시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다음의 인문학분야 관련 연구사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 기>

- | | | | |
|---------------|--------------|--------------|------------|
| ① 제주어 연구 | ② 제주고문헌 연구 | ③ 제주신화·설화 연구 | ④ 제주민요 연구 |
| ⑤ 제주민속, 신앙 연구 | ⑥ 제주 고고학 연구 | ⑦ 제주해양문화 연구 | ⑧ 탐라사 연구 |
| ⑨ 제주문학 연구 | ⑩ 제주목축문화연구 | ⑪ 제주인문지리 연구 | ⑫ 제주인물사 연구 |
| ⑬ 제주문화사 연구 | ⑭ 기타(구체적 기술: | | |

11.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다음의 **사회과학분야** 관련 연구사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 기>

- | | | |
|----------------|--------------------|-------------------|
| ①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 ② 제주4·3 연구 | ③ 제주여성(해녀 포함) 연구 |
| ④ 제주농어민 연구 | ⑤ 제주노동자 연구 | ⑥ 제주지역개발 연구 |
| ⑦ 제주사회운동 연구 | ⑧ 제주산업 연구 | ⑨ 제주도 기업 및 기업가 연구 |
| ⑩ 재외제주인 연구 | ⑪ 제주이주민 연구 | ⑫ 제주사회복지 연구 |
| ⑬ 제주도시/주거환경 연구 | ⑭ 현대 제주인의 삶과 문화 연구 | |
| ⑮ 기타(구체적 기술: | | |

12. 귀하께서는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할 만한 다음의 **자연과학분야** 관련 연구사업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 기>

- | | | | |
|-------------------|-----------|-----------|-----------|
| ① 제주지질 연구 | ② 제주화산 연구 | ③ 제주식물 연구 | ④ 제주동물 연구 |
| ⑤ 제주건축 연구 | ⑥ 제주환경 연구 | ⑦ 제주수산 연구 | ⑧ 한라산 연구 |
| ⑨ 제주감귤 연구 | ⑩ 제주기후 연구 | ⑪ 제주원예 연구 | ⑫ 제주해양 연구 |
| ⑬ 제주 지하수 및 수자원 연구 | | | |
| ⑭ 기타(구체적 기술: | | | |

13. 귀하께서는 **향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
| ① 국비 | ② 지방비 | ③ 후원금 | ④ 시민신탁 |
| ⑤ 기타(구체적 기술: | | | |

연구진

연구책임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공동연구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공동연구	현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공동연구	오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공동연구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공동연구	고광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공동연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제주학연구 38

2차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6년 11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219 제주도 청사로 1길 18-4 1층 (도남동)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521-8 9335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